

**A FACE SHIFT OF LOCAL CHURCH AS A MISSIONAL
CHURCH WITH COMMUNITY IMPACT:**

Focused on the Case of Daeyoung Church in Korea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변모가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영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A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By
Seungbum Jeong
July, 2018

© 2018
Seungbum Jeong
ALL RIGHTS RESERVED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pproval Sheet

**THE LOCAL CHURCH AS A MISSIONAL CHURCH IN THE
COMMUNITY: Focused on the Case of Daeyoung Church in Korea**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
-대영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Written by
Seungbum 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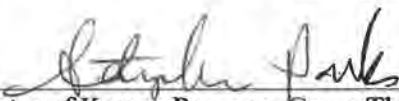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has been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Grac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Approval


Vice President & Dean Seminary, Grace Theological Seminary


Executive Director of GTS Center for Korean Studies,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rector of Korean Program, Grace Theological Seminary


Dissertation Advisor, Grace Theological Seminary

No Part of this dissert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author and the Committee for the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Degree.

Grace Theological Seminary
Winona Lake, Indiana

ABSTRACT

Seungbum Jeong

2018 “A Face Shift of Local Church as a Missional Church with Community Impact: Focused on the Case of Daeyoung Church in Korea”,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pp248.

Protestantism of 21st century in Korea is largely criticized to be more self-centered, focusing on their own with less concern about the community where the churches are set in. This particular aspect of Korean church minimizes its impact on the community and produces more negative feedback. Needless to say, these contexts hinder the outreach of Gospel to the people in the community. Using Jesus' metaphor of the "light and salt", some serious concerns become more realistic as the "light and salt" are losing its brightness and saltiness of the majority Korean church. We should look at the people in the community not as our object of evangelization, but as the main target group to serve.

All these complicated issues have pressed me for many years as I serve in the local church and I was compelled to launch a research to find a solution for this agonizing issues challenge many Korean churches. It goes same with mission of the church as we are still locked up in the old traditional concept of mission - "Go and Make Disciples". It is based more on geographical expansion of Christian church, more likely Christendom in 18th and 19th century mission.

Transformation of our mission concept is needed: from some selective people as missionaries to motivate the whole congregation as missionaries in various types of mission. Unless to change the traditional mission concept of local church, more people in

the church will lose their passion to the mission and that is on going process in Korean church now. In this regard, we must rethink our ecclesiology - our view of biblical church in our own time. In addition to this, updated, or contextualized systematic theology and missionary ecclesiology must be dealt with careful approaches. As a case study for this purpose, I take Daeyoung Church as a model of all these issues that I have mentioned above. Focused on its perspectives on the community, I surveyed its outreach program, interviewed with people involved, and offered the best way to reshape the church that fits to the felt-need of the community and the world. It is called Rebirth of Missional Church.

Mentor: Dr. Soon-Cheol Ahn

40,006words

개요(ABSTRACT)

정승범

2018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의 변모가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영교회 사례를 중심으로” Grace Theological Seminary, Doctor of
Intercultural Studies. 248 pages.

한국 사회에 비추어진 개신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지역사회에 무관심하면서도 단지 주민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 이상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 주민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전에 먼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지금의 교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교회는 크리스텐덤(Christendom)의 영향 아래서 선교를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해외에 파송되는 선교사만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요 그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다.

왜 교회는 이러한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것은 잘못된 교회론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성경에서의 교회, 조직신학자들의 교회, 선교적 교회론에서의 교회론을 연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교회론 위에 세워져야 할 지역교회의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한 사례로서 지역교회로서 대영교회가 어떻게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교회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에서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어떤 실천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상황화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자로서 걸어가는 교회이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선교적 교회가 될 것이다.

약어표(Abbreviations)

1.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2.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3.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
4. GOCN (The Gospel and Culture Network)
4. FBO(Faith-Based Organization)

용어해설(Key Words)

1. 크리스텐덤(Christendom) : 기독교제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313년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로마정부체제의 인정과 보호를 받게 되어 더 이상 박해와 핍박을 받지 않게 되면서 동시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게 된 정부과 기독교의 결합상태를 가리킨다.
2.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를 어떤 교회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교회이다.
3. 콘비벤츠(Konvivenz) : 선교신학자 테오 순더마이어(Theo Sundermeier)가 말한 공동체에 대한 개념으로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의 "배움 공동체"이다. 함께 살아가며 함께 배우며, 함께 느끼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4. 그리스도의 현세성 : 본 회퍼의 교회론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의 현존이 교회의 본질임을 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한다.
5. 타자를 위한 교회 :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오직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만 교회인 것이다.
6.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 선교는 교회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이다. 선교의 주도권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다.
7. 공적 신학(a public theology) : 공적인 삶속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적 형식, 그리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루는 것이다.

감사의 말(ACKNOELEDGEMENT)

먼저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또한 선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신 박시경 교수님, 김정은 교수님, 토마스 M. 스톨터(Thomas M. Stallter) 교수님, 세심한 관심으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안순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회의 도전을 위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성도 목사님과 송시숙 사모님,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셨던 양가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조희남 목사와 딸 아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5월

정 승 범

목차 TABLE OF CONTENTS

영문 초록(ABSTRACT).....	i
한글 초록(ABSTRACT IN KOREAN).....	iii
약어표(Abbreviations).....	v
용어해설(Key Words).....	vi
감사의 말(ACKNOWLEDGMENTS).....	vii
국문 목차(TABLE OF CONTENTS IN KOREAN).....	viii

I. 서론.....	1
A. 연구 동기.....	1
B. 연구 목적.....	7
C. 연구의 중요성.....	12
D. 연구 방법과 범위.....	13
E. 연구 질문.....	17

F. 가설.....	18
II. 교회에 대한 이해.....	19
A. 교회의 정의와 본질.....	19
1. 교회의 성경적 정의.....	19
a.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19
b.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23
2. 교회의 네 가지 본질.....	28
a. 사도성.....	30
b. 통일성.....	36
c. 보편성.....	40
d. 거룩성.....	44
B. 조직신학자들의 교회론.....	48
1.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교회론.....	48
2.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회론.....	58
3. 헤리뜨 코르넬리스 베르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	63
4.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의 교회론.....	65

5. 글렌 와그너(E.Glenn Wagner)의 교회론.....	71
6. 팀 켈러(Timothy Keller)의 교회론.....	75
III. 선교적 교회론.....	79
A.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	80
B.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와 역사적 이해.....	84
1.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	84
2. 선교적 교회와 선교하는 교회의 역사적 이해.....	91
C.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	98
1. 하나님의 선교.....	98
2. 통전적 선교.....	102
D. 선교신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	107
1. 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적 교회론.....	107
2.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	113
3. 크레이그 밴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128
4. 하워드 스나이더의 선교적 교회론.....	140
5. 대럴 구더의 선교적 교회론.....	143

6. GOCN (The Gospel and Culture Network)에 대한 이해	153
E. 선교적 교회의 특성.....	156
F. 한국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	171
IV.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184
A.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184
1. 지역의 정의와 구분	184
2. 지역의 기능.....	188
3. 한국적 상황에서의 지역의 변화	192
4.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193
B. 교회의 본질과 지역교회	194
1. 통일성과 지역교회.....	195
2. 사도성과 지역교회.....	197
3. 거룩성과 지역교회.....	201
4. 보편성과 지역교회.....	203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205

V. 대영교회 사례연구	211
A. 대영교회의 지역선교 사역	211
1. 지역적 특성	211
2.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212
3.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221
4.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223
B. 위원회의 구성 및 실천 사례	225
1. 디아코니아 위원회	225
a. 디아코니아 위원회 규정	225
b.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조직	226
c.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주요 활동	227
2. 경로대학 위원회	228
a. 경로대학의 구성과 특징	228
b. 경로대학 학사일정	230
c. 경로대학 야외활동	231
3. 다문화 학교	232
a. 다문화 학교의 구성과 특징	232

b. 다문화 학교 학사일정.....	238
c. 다문화 학교 야외활동	238
4. 아기학교.....	239
a. 아기학교의 구성과 특징	239
C.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명교회 평가.....	240
1. 장점	240
2. 전망.....	242
	J
VI. 결론	244
A. 요약	244
B. 제언	247
참고도서목록(BIBLIOGRAPHY).....	249

표목록(LIST OF TABLES)

<표-1> 교회성장과 교회건강과 선교적 교회의 비교 분석	165
<표-2> 지역사회섬김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공감대.....	215
<표-3>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섬김의 필요 이유	216
<표-4> 지역에 필요한 섬김 프로그램	217
<표-5>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의식조사.....	218
<표-6>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219
<표-7>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	220

I. 서론

A. 연구동기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의료사업, 구제사업, 교육사업, 계몽운동, 인권과 민주화 운동 등 한국교회가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는 큰 성장을 일구어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수십 여 개가 한국에 있다.

그런데 부흥하던 한국교회가 불과 130년을 넘기지 못하고, 지금은 정체를 넘어서 위기의 상황에 맞닥트리게 되었다. 필자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교인 수가 273만 900명으로 최종 집계돼 보고됐다. 전년 대비 0.76%, 5만 8,202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해마다 1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 500개가 문을 닫는 실정을 말해 준다. 이 증가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청년 대학부는 13만 4,289명으로 2만 7,059명, 중·고등부도 12만 4,904명으로 1만2,859명이 감소했고, 소년부는 5만 6,147명으로

6,211명이 감소해 각 8%이상의 감소폭을 나타냈다.¹⁾ 한국 내 교회의 상황뿐 아니라 지난 1990년대 이래 꾸준히 성장해 온 선교사 수의 증가 폭이 2000년 대에 들어서서 둔화되면서, 급기야 지난 2016년에는 선교사 증가가 멈추는 해가 되었다. 2015년 2만 7,205명이던 선교사 수가 2016년에 그대로 유지되어 선교사 수가 증가하지 않은 한 해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1980-90년대를 뒤로하고, 최근에 들어와 한국 교회의 전체 규모가 정체를 넘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²⁾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교인들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한때 세계선교사의 기적이라고 여겼던 한국교회의 양적 부흥은 그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하강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충분히 찼으니 비워질 때가 왔다면 몰라도 이젠 찼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질타와 조롱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그래도 그걸 모르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이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보고서인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³⁾에 따르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한미준이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인은

¹⁾ 한국기독교공보, 2017년 10월 9일자, 2.

²⁾ 국민일보, 2013년 1월 24일, 종교면 14.

³⁾ 한미준, *한국교회미래레포트*, 서울 두란노, 2005, 25.

다른 종교인들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이 높으며, 전도와 교회 활동에 대한 참여율도 높게 나타나 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목회자에 대한 교인의 만족도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 있다. 그런데 외부평가는 이러한 내부평가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비 종교인들이 평가하는 개신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교회 안과 밖의 평가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외부의 평가가 모두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외부에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와 평가에 대하여는 눈과 귀를 닫고, 그 관심과 생각은 교회 내부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가 외부에 비친 이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개신교는 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가톨릭이나 불교에 비하여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신자나 타종교인에 대해서도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개신교는 내부적으로는 가장 출석률이 높고, 전도에서도 가장 큰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개신교가 세상에 비춰진 이미지는 교세확장, 성장주의, 개교회주의, 배타적 태도들로 묘사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 신뢰도가 20.2%, 5점 만점에 2.5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해 가톨릭(45%), 불교(35%), 개신교(12%) 순으로 응답했다.⁴⁾ 이는 개신교의 사회적 공신력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수치는 미래 한국교회의 존립과 선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과거 우리 민족이 국가적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 누구보다 먼저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한국교회가 외래종교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선교초기 짧은 기간 안에 민족교회로 자리잡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성을 가진 한국교회와 순식간에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고 오히려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교회는 초기 교회가 창출했고 계승했던 공적인 교회로서의 소중한 전통과 가치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설립된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적 책임과 소명을 감당했던 그 '처음 사랑'을

⁴⁾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뉴스엔조이, 2017.3.3.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30>

저버리고 언젠가부터 신자 개인, 자기 교회, 자기 교파의 유익과 성공만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해방 이후의 교회 분열의 역사와 6.25 전쟁의 경험과 이념적 좌·우 갈등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전후 재건의 시기 가난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교회는 오히려 철저한 반공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제 몸집 불리기에 혈안이 되었다. 일제말기와 6.25전쟁의 수난 속에서 인내와 노력으로 교회를 지켜내느라 한국교회는 참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소중했던 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사회를 향한 공공의 책임과 소명을 어느덧 망각해 버리고 만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개신교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공신력은 매우 낮고, 전도의 결과도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다. 개신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지역에서 교회의 모습을 평가할 때 ‘지역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는 말로 압축된다. 한국 사회에 비추어진 개신교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지역사회에 무관심하면서도 단지 주민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부적 관심에만 집중하여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에 몰입하여 있다. 교회는 ‘지역’에 존재하지만 ‘지역성’을 상실한 단체가 되었다

교회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복음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의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 지역 주민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전에 먼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해야만 한다. 무신론자. 타종교인에 대해서도 사랑과 관용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개신교는 좀 더 넓고 깊고 유연한 신앙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을 펼쳐 나가야 하며, 그것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지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관점에서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선교적 관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신 근본적인 목적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혁해 가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도전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석하여 적절하게 선교적으로 대응하는 일이다. 변화된 상황에 비추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재조명함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⁵⁾을 정리하고,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세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필자가 사역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968-13에 위치한 대영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안양노회 서부시찰)에 속한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지역선교가 교회의 갱신과 올바른 성장을 이루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학적인 배경이 되는 성경에서의 교회론, 초대교회의 교회론, 조직신학자들의 교회론, 선교신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연구와 함께 지역 사회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과 실천을 모색하는데 있다.

64년의 역사를 지닌 대영교회는 지역 사회 속에서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고자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꾸준하지만 역동성이

⁵⁾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은 1천년 동안 기독교 세계(CHRISTENDOM) 안에서 형성된 교회론의 반성에서 출발했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를 교회성장의 도구로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로 순종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의 모든 성도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 받은 선교사로 인식하여 자신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모습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없는 지루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프로그램으로 머물러 있다. 교인들 또한 교회가 행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선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따라서 교회의 양적 성장의 열매가 없는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인들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전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다. 즉, 교회가 이 시대의 메시아적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천해 나갈 때 세상을 향해 선교적 교회로 전개되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사랑과 용서, 나눔과 자기 비움, 섬김과 봉사의 대안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생명체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과 의식이 반드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다.⁶⁾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교회론이나 구원론이 아닌 삼위일체의 맥락 속에 있다고 볼 수

⁶⁾ 한국일,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0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12, 101-103.

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선교의 고전적인 교리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또 다른 움직임을 포함하며 확대되어가고 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고, 실현시킨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인 기대감 속에 임하게 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⁷⁾

즉,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고, 실현시킨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적인 기대감 속에 임하게 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는 지상의 가시적 공동체적인 교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 선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 눌린 자, 갇힌 자들을(눅 4:18-20)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분임을 말과 실천을 통하여 증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⁷⁾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390.

말과 실천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이다. 즉, 교회를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회조직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기적 조직체로 이해하며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⁸⁾는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이와 같은 ‘정체성’과 ‘사회 적합성’의 회복에 있다. 교회 안으로는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교회 밖으로는 변화된 한국 사회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이학준은 위기의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분석하면서 “그 핵심에 교회론이 있다”⁹⁾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자리매김을 하고, 어떤 가치관과 목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며,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복음을 실천할지에 대한 모든 것이 교회론의 문제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의 원인은 교회론의 문제이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소된 이해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⁸⁾ 한국일, *세계를 품는 교회 통전적 선교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09.

⁹⁾ 이학준,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공적 영성’”, 목회와 신학 통권 292호, 서울 두란노, 2013. 10, 69-71.

역사를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세상과도 소통하지 못하였기에 한국 교회에 위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을 회복함과 동시에 교회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책임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교적 교회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이해들이 있다. 지금의 교회가 처한 시대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선교적 교회는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어떠한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 칭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 선교적 소명을 규명하여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지금의 한국 교회에는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교회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늘날의 문화와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 응답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론 연구에 의미를 둘 것이다.

C. 연구의 중요성

종교사회학자인 도널드 밀러(Donald E. Miller)는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동유럽 20개국을 방문하여 3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성장하는 교회의 85%가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이 잡힌 교회들”¹⁰⁾이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가 있는가?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전도라는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앞서 교회의 문제는 잘못된 교회론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지만,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보면, 교회의 위기는 잘못된 선교론에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그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한 이후 회복하지

¹⁰⁾ Donald E. Miller, *왜 세계는 섬기는 교회에 열광하는가(Global Pentecostalism)*, 김성건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17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지 않고, 선교는 단지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머물고 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성도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양육할 뿐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공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이 때에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필요하다.

D. 연구방법과 범위

본 논문은 지역 사회 속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한 선교적 교회론을 교회에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필자가 사역하고 있는 대영교회의 사례를 대안적 사례로 연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논문들과 단행자료들을 찾아 연구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복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연구그룹인 GOCN(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서 정리한 선교적 교회론에 관한 자료들을 참고할 것이며, 한국에서 발행된 관련자료들인 『복음과 선교』, 『생명과 말씀』, 『선교 신학』, 『목회와

신학』을 참고할 것이고, 기타 지역교회의 적용에 관련하여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자료 등을 활용할 것이다. 또한 대영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해 사역을 담당하는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I 장에서는 서론 부분으로써 본 논문을 시작하게 된 연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장에서는 교회의 기본적 정의와 본질을 살펴보고, 교회론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교회의 위기에 직면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고자 새롭게 등장한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 배경과 과정을 알아보고, 선교적 교회론의 논의를 주도해 온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적 교회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 특히 그 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지속해왔던 유럽의 크리스텐덤(Christendom)방식의 선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오늘날 새롭게 형성된 선교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후 나타난 GOCN(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 참가한 선교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글을 살펴보고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을 살피게 될 것이다.

IV장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지역적 상황과 특징을 문헌연구를 할 것이다. 각종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지역사회를 향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프로그램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에 지역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과연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역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선교적 교회론의 연구를 통하여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써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데 있어서 지역교회가 선교적으로 지역에 어떻게 접근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본질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갈 것이다.

V장에서는 선교적 교회론에 입각하여 지역교회로서 대영교회가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특별히 디아코니아 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특별히 대영교회의 지역사회 섬김 사역 가운데 대표적인 사역인

다문화 학교 사역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할 것이다.

1980년대 복미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주로 선교학자들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국내에서는 2003년 한국선교학자에 의해 첫 논문이 발표된 이래 10년 동안 여러 논문이나 저서들이 출판되어 주제를 발전시켜 갔다. 한국 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론의 담론은 기존의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해외 선교를 대체하거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선교의 차원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선교에서 소홀히 한 지역사회를 지역교회의 선교현장으로 깨닫는 데서 출발하였다. 선교적 교회론은 단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나 주제에 머물지 않고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과 같은 한국교회, 특히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선교적 교회론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다양한 방향에서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과 연계하여 연구주제들이 확장되어 갔다. 여러 교회의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교회가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지역과 소통하며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선교적 교회의 원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위의 연구방법은 이론적인 연구가 선행될 것이고, 실천적인 연구를 위하여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사례로 대영교회를 들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교회가 어떤 것이며, 선교적 교회의 구현을 통한 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교회로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 연구질문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가 잘못된 교회론에서 시작되었다면, 올바른 교회론은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는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선교적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역과 함께 하기 교회는 어떠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웃들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더 이상 교회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지역공동체 사람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하는가?”이러한 물음에 답을 찾아감으로써, 과거의 모습
성찰하고, 현재의 상황을 적절하게 분석하며, 내일의 새로운 비전을 전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F. 가설

지금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도전 앞에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다.

II. 교회에 대한 이해

지금의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와 혼돈은 근본적으로 교회론의 위기라 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론이 태동하게 된 배경도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교회의 성경적 의미와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되는 본질과 조직신학자들의 이해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A. 교회의 정의와 본질

1. 교회의 성경적 정의

a.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구약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는 '부르다'를 의미하는 카할(kahal), 과 '지정하다', '지정된 장소에 모이거나 만나다'를 의미하는 에다(edhah)이다. 카할은 본래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세속적 의미의 '모임, 모인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시편 26장 5절의 '행악자들의 집회'에서 '집회'를 '카할'이라고 부른다. 이

때 '카할'은 아무런 종교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였고 그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와 그의 종회'라고 부를 때에 이 '카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세속적 개념의 단어가 후대에 이르러서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카할'은 '부른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말로써

"의논하기 위해서 소집된 공동체"¹¹⁾라고 말할 수 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말하자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기 위하여 모인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에다(edhah)'라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강조할 때에 사용했던 말이지만,

택함을 받아서 모인 집단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이다. 그러나 후대에는 이 단어가

제한적이고 건물에 속해 있는 의미로 축소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후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교육받는 장소적 개념인 '시나고게(συναγωγή, synagogē)'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건물 이전에 '에다'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여호와와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즉, '에다'는 여호와와 절기 또는 성일에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했다.

¹¹⁾ 이종성, *교회론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20.

이러한 맥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과 의 계약을 위해 모인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모임' 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구약에서 사용된 용어를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확인하게 된다.

첫째, 카할과 에다는 예배공동체이다. 카할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인 모임' 또는 '하나님의 절기에 참석한 자들의 모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카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움과 가르침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교회와 그 의미에 있어서 일치한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둘째, 카할과 에다는 계약공동체이다. 구약에서의 교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에 의해 맺어진 계약공동체이다. 즉, 구약에서의 교회관은 이 지상에 신적 계약 공동체를 건설하려는데 있었다.¹²⁾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는 계약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창조 질서 회복 속에서 나타나는 노아와의 계약이 있고(창 9:8-17),

¹²⁾ 황승룡,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43.

이후에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창 15:1-21)이 있었으나, 이것은 모두 개인이나 가족과 맺은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하나님과 집단과 맺은 첫 계약은 모세를 통하여 맺은 시내산 계약이다 (출 19:5-6; 24:1-9).

이 시내산 계약의 성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다 (레 26:11; 겔 37:27). 이제 시내산 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신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를 계약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계약 공동체가 존속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때 유효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 공동체는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며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셋째, 카할과 에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신앙공동체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으로 교회는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한 백성이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출애굽 사건으로 이루어졌다.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었다. 이 선택은 선택 받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자격이 미달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 받은 자의 오로지 할 일은 선택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응답이고 주어지는 계약의 말씀을 준행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¹³⁾ (신 7:11).

이렇듯 구약에서의 교회는 다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하나님께 선택 받고,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b. 신약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

구약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연결점을 가진다. 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종말론적 공동체란 의미로서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신약에 등장한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성경에서는 교회론을 한가지로 말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저자의 다양한 교회론의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ἐκκλησία)'로서, 이 단어는 사도행전 19장 32절에서 '모인 무리',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는 '민회(民會)'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40절에서는 '집회(集會)'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ἐκκλησία'

¹³⁾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149-150.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에클레시아’는 ‘ek(‘out’)과 ‘klesia’의 동사형 ‘kaleo(‘to call’)의 합성어이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즉, 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적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에클레시아는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민주정치의 주체인 자유민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신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적용시켜 사용되고 있다.¹⁴⁾ 구약성경에서 ‘회중’을 뜻하는 ‘카할’을 70인역본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구약 성경은 이 용어를 하나님을 믿도록 부를 받은 백성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에클레시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8장 17절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의 개념을 복음서에서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사역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 지상적 도구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¹⁴⁾ 김동수, *신약이 말하는 교회*, 서울 성서마당, 2012, 155.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땅의 도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울 서신에서 밝혀진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1장 18절에서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5장 23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종합적으로 신약에서의 교회의 의미를 고찰해 보면,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다. 그런데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내의 여러 문제에 봉착하였다. 때로는 복음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영적인 체험과 사역에 대해서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왜곡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답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관계라든지, 또는 교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기록한 글이 몸으로써의 교회였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은 바울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 초기의 구절이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의 몸과 같다라는

직유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곳에는 바울이 직유로 암시하는 이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¹⁵⁾

첫째, 몸과 같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가 있고 또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는 것이다 (고전 12:12-13:20). 둘째, 이러한 통일체는 획일성이 아니라 각각의 지체가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고전 12:21). 셋째, 실제 몸과 같이 각 지체는 다른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며 서로 돌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전 12:26). 마지막으로 약해 보이는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귀중함을 주며 몸의 지체 사이에 위화감이 없이 서로 평화로 공존하게 한다는 것이다 (고전 12:24-25). 이것은 모든 지배를 반대하고 섬김의 도를 말씀하신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¹⁶⁾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될 때에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적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¹⁵⁾ 김동수, *신약이 말하는 교회*, 157.

¹⁶⁾ 김동수, *신약이 말하는 교회*, 158-150.

둘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따라서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계속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에 의해 '모인 공동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약성경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교회는 단순히 제도적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사귄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다.

셋째,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엡 2:22)이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7절은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나열하고 있다. 즉 교회가 인간들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였다. 그래서 황송룡은 "성령은 무엇보다 교회의 내적 생명의 원리로서 작용하고 계신다"¹⁷⁾ 고 말했다.

성령은 죄인이 새롭게 되고, 죄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¹⁷⁾ 김동수, *신약이 말하는 교회*, 160.

사랑을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은사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주로서 교회를 인도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더 나아가 성도와 성도를 서로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이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르시다 점점 확장되어 모든 민족을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신다.

2.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것이라고 고백하였고, 이를 계승하고 지켜왔다. 이들 네 가지 항목은 성경적으로 잘

요약한 것이고, 간략하지만 적절한 표현이고, 교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성경적 교리이다. 이 네 가지 내용을 규정한 근본이유는 초대 교회 안에 여러 이단들이 발생하여 최소한의 통일성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목하려는 교회론의 네 가지 본질은 콘스탄티노플 신경(381년)의 맨 마지막 중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Εἰς μίαν, ἁγίαν, καθολικὴν καὶ ἀποστολικὴν Ἐκκλησίαν.

[We believe]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를 믿는다.¹⁸⁾

이 고백은 지금까지 교회를 나타내는 교회의 표지, 본질 또는 속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교회의 이러한 본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지금과 같이 시대와 문화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응답해야 하는 여러 책임도 있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이에 교회가 지켜나가야 하는 네 가지 본질과 선교적 교회론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¹⁸⁾ John H. Leith, *Creed of churc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32-33.

a. 사도성(apostolizität)

고대 교부들 사이에 이미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도적 전승'을 따르는 흐름과 '사도적 승계'를 따르는 흐름이 함께 병존했다.¹⁹⁾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의 '비밀 전승'²⁰⁾에 대응하여 교회의 사도성이란 교회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도들의 복음과 가르침의 전승, 그리고 교회의 '신앙적 규범'에 있다고 하여 교회의 사도성 규정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런 사도성의 내용은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요, 모든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진리의 표준이다. 이레네우스는 사도들로부터 임명받아 승계되어 오는 감독들이 이 사도적 전승을 수호해 왔고 그것을 해석해 왔다고 본다. 즉 이레네우스에게 '사도적 전승'의 승계와 감독들의 역사적 승계는 서로 맞물려 있다고 하겠으나, 적어도 이레네우스는 '사도적 전승'의 중요성을 논하려다가 감독들의 사도성을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¹⁹⁾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서울 교육목회, 1995, 69.

²⁰⁾ 육체의 감옥과 이 세상으로의 유폐라는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는 영적 각성과 천상으로의 복귀를 구원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구원의 지식을 영지라고 가르쳤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구원의 지식을 「진주의 노래」에서 '마법의 편지'라고 표현 한 것처럼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한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신적 불꽃'을 지니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된다는 점에서 선민적(先民的) 운영론이며, 영지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이라는 점에서 밀교적(密敎的) 성격을 띠고 있다. 흔히 종교를 밀교(密敎)와 현교(顯敎)로 구분하는데, 밀교는 교리와 제도와 의식의 일부는 외부자에게 공개되고 그 일부는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되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현교는 교리와 제도와 의식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영지주의는 교리와 제도와 의식의 일부가 외부인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져 있는 밀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장은 터틀리안, 오리겐, 어거스틴으로 이어진다. 개신교회들은 '사도적 전승'에 초점을 맞추어서 교회의 사도성을 규정하지만,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감독들의 사도적 승계에 의한 교회의 사도성을 역설하였다.²¹⁾ 이후 중세에도 사도성은 이레네우스, 터틀리안,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사도들의 전승' 즉 복음보다도 교회와 감독들의 사도적 승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루터와 칼뱅은 모두 중세교회의 초석이었던 교황과 감독들의 사도적 승계를 거부하고, '사도들의 전승', '사도들의 신앙과 순종'을 내세웠다. 그러나 교황과 감독들의 사도적 승계를 거부했던 루터와 칼뱅은 가시적 교회의 교역 제도의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여, 루터는 본의 아니게 1526년 이후 국가교회의 형태를 받아들여야 했고, 칼뱅은 장로교 제도를 낳았던 것이다. 그런데 루터와 칼뱅은 교역론 체계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도적 교역을 따라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인류에게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을 다시 재해석해야 한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증인들인 사도들로부터 오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사도들의 증거들은 성경에 의해서 전수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러한 사도적

²¹⁾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70.

전승의 연속성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회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교회 위에 유일회적으로 세워진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회의 사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신실성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사도적 전승으로 그 생명이 이어졌고 증거되었으며,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의하여 표현되었다. 이 사도성은 사도들과의 교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인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헌신적 기독교적 삶을 통해서 표현된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신앙과 사명의 연속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도성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계승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보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는 의미이다. 교회는 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것은 또한 성육신적이기도 한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파송하신 것과 같이 그의 백성들을 파송하신다는 의미에서 성육신적이다. 이것이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의미로서의 교회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도(αποστολος)'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시대에 사도들을 말하거나(마 10:2, 막 6:30), 하나님의 메신저(행 13:3 이하), 교회의 파송을 받은 사람들(행 14:4), 권능 받은 사자들(요 13:36), 선교사들(행 2:2)과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였다 (히 3:1).

바울 서신에서는 바울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음의 전도자들(롬 16:7, 고전 12:28, 15:7, 고후 11:5), 교회의 사자들(고후 8:2-3, 빌 2:25)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 바울서신에서 바울이 이방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의 파송과 권능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와 결합되었다. 이로써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세상을 향해 생명을 살리는 전위대로서의 보냄을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²²⁾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신학자인 테오 순더마이어(Theo Sundermeier)는 세상에 파송받은 사도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²²⁾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303.

그는 세상에 파송된 사도적 공동체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콘비벤츠(Konvivenz)”²³⁾로 말하였다. 콘비벤츠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의 “배움 공동체”²⁴⁾이다. 함께 살아가며 함께 배우며, 함께 느끼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이다. 세상으로 파송받은 공동체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세상과 ‘함께’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세상에 파송받은 사도적인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 파송받은 공동체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콘비벤츠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정신을 보여주는 단어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성육신적 삶으로 구현된다. 세상으로 파송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리에 서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세상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²³⁾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Types and Tasks of Mission Theology*),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57.

²⁴⁾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58.

존재로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사도성은 교회 안의 교회가 아닌 세상을 향한 교회이어야 한다는 선교적 교회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 콘비벤츠에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론의 정신이 담겨 있다. 성육신적이고, 메시아적이며, 사도적이고, 세상을 향한 청지기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순더마이어는 본 회퍼의 교회론을 인용하여 교회의 사도적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지나갔고 선교사적인 파송의식도 우리에게서 없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려고 했다.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개인적으로도 그들을 섬기려고 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이 되려고 했다. 이런 태도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제3세계를 위한 노력, 독재국가 안에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도 이 점에서 신학적이고 인간학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다.²⁶⁾

사도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기원이 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보여준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 세상에 파송된 사도적 교회임을 기억해야 하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교회와 세상이

²⁵⁾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70.

²⁶⁾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71.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교회는 세상과 '화이부동(和而不同)'하는 교회의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

b. 통일성(Einheit)

고대 교부들의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의 흐름은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그리고 키프리안(Cyprian)등이 말하는 직제적 일치와 다른 하나는 어거스틴(Augustine),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두 시릴(Cyril)에게서 발견되는 성경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로서의 교회 일치이다.²⁷⁾

먼저 직제적인 이해를 하는 교부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및 키프리안은 모두 '교회일치'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단편적인 교회론을 펼쳤는데, 이들은 모두 서방교회의 교부들로서 직제에 의한 교회의 통일성을 추구했다.²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감독-장로-집사라고 하는 삼중직을 교회일치와 질서의 근간으로 보았으며, 키프리안은 감독직의 정통성을

²⁷⁾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60.

²⁸⁾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61.

‘교회일치’의 표준으로 생각했고, 클레멘트는 ‘군대’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교직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클레멘트는 직제를 통해서 개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추구하였고, ‘카톨릭’(보편적)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이그나티우스와 키프리아노는 직제를 통한 보편 교회 차원의 교회일치를 지향하였다.²⁹⁾

그러나 어거스틴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교회의 하나됨을 직제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시고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에서 찾았다. 어거스틴에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본질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되셨고, 성령의 사역으로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셨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코이노니아를 가능케 하는 사랑으로서, 사랑 자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교회의 통일성이시다. 어거스틴은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이 같은 신비적 연합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³⁰⁾

그러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영적인 일치를 말하는 것이지 교회의

²⁹⁾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67.

³⁰⁾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67.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수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있는 다양성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하나이며 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지역교회에 있어서 이단과의 교리적 다툼을 극복하기 위한 통일을 권면하고 있다(고전 1:10-31).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조화와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 몸의 지체임을 의미하는 통일성을 말하였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의 차별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통일성을 말하였다. 인종, 문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는 통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다(갈 3:28-29).

가장 중요한 교회의 통일성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지역교회의 통일성, 우주적 교회의 통일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신약성경의 통일성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다양성 안에 있는 통일성"³¹⁾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³¹⁾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255.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을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파, 교단, 피부색, 인종을 떠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하나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빌 2:2).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야 할 요소들이다. 교회의 일체성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다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며 통일성을 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다. 세상을 향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자세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배격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그들을 존중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또한 그들과 하나의 유기체로서 어떠한 관계성을 가져야 하며, 그들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지를 교회를 고민해야 한다.

그럴 때, 선교적 교회의 이상적인 모델인 지역이 교회요, 교회가 지역이 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c. 보편성(katholizität)

고대교부들의 '보편성'에 대한 이해는 적어도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교회의 보편성이라는 한 흐름과 진리 전체의 보편성 즉, 장소와 시간과 인종과 계층을 넘어서는 보편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병행되었다.

'보편적'이라는 단어 즉 카톨릭(Catholic)이라는 말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사용하였는데, 라틴어 'katholicus', 'universalis'로 번역된다. 이 말은 '전체와 관련된', '전체를 지향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이라는 의미였다.³²⁾ 역사적으로 '보편성'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주후 3세기에 이단들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편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후 '카톨릭'이라는 말은 공간적 의미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적 의미의 보편성과 수적 의미의 보편성을 의미하게 되었다.³³⁾ 이후 예루살렘의 시릴과 어거스틴에 이르러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를 만나게 된다.

예루살렘의 시릴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 회집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였고, 교회의 보편성이란 지리적 보편성, 전체 사도적

³²⁾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268.

³³⁾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270.

전승의 보편성, 모든 계층의 인간을 전도의 대상으로 하는 보편성 및 모든 형태의 기독교적 덕목들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어거스틴은 시간과 공간적인 보편성,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계시와 '교회'에 대한 계시 등 진리 전체의 보편성을 주장하였다.³⁴⁾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다.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보편적 주권에 있다.³⁵⁾ 따라서 교회는 보편성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다. 따라서 보편성은 교회가 가지는 순종의 모습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에, 복음에 뿌리내린 교회는 어느 시대와 어떤 장소에 상관없이 동일한 교회이다. 이런 보편성은 로마교회라는 일개 교단에 속한 어느 한 교회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는 속성이다. 교회의 보편성은 동일한 진리를 고백하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든 공동체에 해당하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³⁴⁾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68.

³⁵⁾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271.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가 있기에 교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 인간적인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배타적 민족주의나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어떤 장벽도 교회를 가로막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보편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향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고 그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교회는 보편적이 된다.³⁶⁾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순더마이어는 콘비벤츠의 부분을 다루면서 교회의 보편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콘비벤츠는 오고 계신 분의 선취이기 때문에 교회의 보편성은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³⁷⁾ 이라고 말하였다.

예수는 인간을 치유하고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을 자신의 친구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이런 공동체성으로부터 예수는 그들을 오고 있는 왕국의 영원한 잔치에 초대하였다. 콘비벤츠는 이런 초대에 대한 윤리적 구체화이고 해석학적인 견해이었다. 왜냐하면 콘비벤츠는 오고 계신 분의 선취이기 때문이다. 예수는 죽을 때까지 두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콘비벤츠를 지켰다. 예수의 죽음은 콘비벤츠의 확증이고, 그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콘비벤츠의 증명이었다. 성령도 장소를 찾으시는데 그 장소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찾았다. 성령은 집안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공동체성을 수여했다 (행 2:2 이하). 제자들의 파송은 이런 콘비벤츠적 공동체성, 예수가 부활한 후에 다시 새롭게 한 공동체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 안에서 삶으로 증거하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았다(요 20:21). 제자들의 일은 그 공동체성을 반복하는 것과

³⁶⁾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272

³⁷⁾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95.

다르지 않았다.³⁸⁾

결국 '보편성'이라는 것은 교회의 가시적인 어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대와 공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활동과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실천적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만 보편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보편성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 문화, 사상을 뛰어 넘어야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고 실현될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동시에 미래적인 것이며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소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 땅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뛰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편성 안에서 메시아적이어야 하고, 그 권위로 이 세상을

³⁸⁾ Theo Sundermeier,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 채수일 역, 94.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³⁹⁾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가르침을 기초로 한다. 다만 교회만의 보편성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보편성을 가지게 된다. 교회에서만이 아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실천적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세상으로 확대해 나가는 교회의 확대된 모습이라 볼 수 있다

d. 거룩성(Heiligkeit)

교회의 거룩성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느꼈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리감을 의미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개념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다. 이 말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을 의미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다.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것이다.

³⁹⁾ 이종성, *교회론 I*, 155.

본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하던 이 말을 교회에 대해서도 사용하게 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인 어떤 단체와는 다른 본질적인 면이 있음을 의미하기 위해서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현존하고 그의 말씀과 예전이 의탁되고 그의 뜻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교회는 사도바울이 말한 대로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 곧 'communio sanctorum'(고전14: 34)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거룩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기에 거룩한 것이다.⁴⁰⁾

따라서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적인 것을 초월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의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세상과 완전히 동일시 하는 것도,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공동체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어원을 보면, '거룩하다'는 말의 최초의 사용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⁴⁰⁾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Nachfolge)*, 허 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212.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뉘게” (창 1: 4,6,7,9) 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나뉘게’하셨다는 것이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본래의 자신의 자리를 찾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거룩’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과 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있어할 자리에 있는 것이다. 교회는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거룩함으로 사는 ‘대안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거룩성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거짓과 악으로 점철된 세상에서 사랑과 평화와 정의와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악을 선으로 이겨나갈 때 교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곧 거룩이 되어가는 것이다. 거룩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민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그들과 함께 거룩함을 향해

자라나갈 때,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를 위해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거룩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삶의 길을
의미하며,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세상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길을 제시해 준다.

둘째, 보편성은 교회가 국가권력이나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함으로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모든 민족, 문화, 사상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위만이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의 확장성으로
나타나며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셋째, 통일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셨듯이, 다른 이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각자의 문화를 인정하며 모든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좇아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도성은 복음의 계승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도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곧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B. 조직 신학자들의 교회 이해

지금까지 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개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기 위해 주로 20세기 전후의 조직신학자들의 교회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올바른 선교적 교회는 바른 교회론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디트리히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의 교회론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의 사상은 교회와 정치에 대한 저항적 경험 속에서 그리고 죽음을 앞둔 옥중생활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기 때문에 그의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기를 구분하여 그 시대 상황과 그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그의 사상은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시기(1926-32년)에서는 교회의 참된 형태, 둘째 시기(1933-39)에서는 세상 안에서 세상과 싸우는 교회, 셋째 시기(1940-45)에서는 세상을 위해 고난 받는 교회를 말했다. 이처럼 시기가 바뀔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이해와 강조점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본회퍼는 매우 진지하게 교회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였던 신학자였다. 본회퍼가 14세에 목사가 되겠다고 말하였을 때 형들은 그에게 “교회는 네가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는 너무나 시들어 버렸다”라고 하며 만류하였다. 그 때 소년 디트리히는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개혁하겠다”고 답하며, 오히려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존중 받지 못하는 시들어버린 교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했다.⁴¹⁾

그러나 각 시기의 사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회퍼의 교회론에는 일관된 주제가 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세성’과, ‘타자를 위한 교회’였다.

본회퍼의 이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지역에 존재하는 지역교회가 지역에 무관심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또한 그리스도의 현존을

⁴¹⁾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신학연구, 90.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준다.

교회는 본회퍼에게 일생의 주제가 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의 신학은 교회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밝히는데 집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회퍼에게 교회는 교의학의 대상이나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계 속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삶의 양식이었기에 생동감 있는 현실 자체였다. 교회의 현실에 대한 본회퍼의 관심은 이미 그가 17세에 신학 수업을 시작하고 이듬해 형 클라우스(Klaus)와 로마와 북아프리카로 여행하면서 남긴 여행후기에 나타난다.

그는 특히 로마에서 가톨릭 문화의 본류(本流)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 당시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반발이나 분노를 느끼기보다 그것에 경탄했다. 1944년 테겔(Tegel)에서 "그것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땅의 한 조각이었다. 1928년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는 마치 어린아이가 오랜 세월 후에 고향을 찾은 느낌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다. 교회란 우리가 그 의미를 잊지 않으며 그 밝음과 크기를 오늘날 다시 보기를 원하는 그것이다"라고 했다.⁴²⁾

목사가 되기를 결심하고 신학수업을 시작하고 로마 여행에서 경험한 카톨릭교회에 대한 감동적인 기억은 그로 하여금 인간 삶의 표현으로서의 종교가

⁴²⁾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98.

아닌, 인간의 삶을 압도하고 이끌어 가는 교회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했다.⁴³⁾

본회퍼가 교회의 신학자로서 초기부터 놓치지 않고 붙든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오늘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식되고 고백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현실을 신학자로서 바르게 깨닫고, 성직자로서 바르게 증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교회의 현실성과 현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의 주 관심은 현실의 교회의 경험적 형태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교회의 현실의 문제를 사회학적, 사회철학적 관점을 빌려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회의 경험적 형태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경험적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파악하는 것은 신앙의 학으로서 신학의 과제였다. 그에게 있어서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사회학의 학문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교회의 본질은 오직 안으로부터, 분노와 열정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따름이며, 그에 반해 방관자의 입장으로부터는 결코 이해 될 수 없다. 오직 교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여기는 자만이, 그리고 이와 비슷한 다른 종류의 요구나

⁴³⁾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99.

자기 자신의 사리에 맞게 교회의 요구를 상대화하지 않고 복음으로부터 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교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을 획득한다.”⁴⁴⁾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본회퍼는 교회론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했다. 교회는 그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현실의 현재화’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그의 유명한 신학적 표어인 ‘공동체로서 현존하는 그리스도’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⁴⁵⁾

하나는 본회퍼의 교회론은 그리스도론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를 교회의 삶의 원리로 가진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개념, 특히 집단적 의미의 인격은 공동체 안에서 현실화되며, 그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본회퍼에게 인격 개념은 한 인격체가 공동체 속에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개념이었다. 그에게 인격은 사권 속에서 구현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적 가치로 정의되었다. 즉 인격은 ‘나’와 ‘너’의 관계론적 양식 속에서

⁴⁴⁾ Dietrich Bonhoeffer, *성도의 교제-교회의 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Sanctorum communion)*, 유석성, 이신건 역, 45.

⁴⁵⁾ Bonhoeffer, *성도의 교제-교회의 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Sanctorum communion)*, 유석성, 이신건 역, 50.

발현되는 가치이지, 그저 단독자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와 너의 단독자적 인격은 더욱 성숙한 사권의 대상으로 변모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 안의 인격의 존재양식은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현된다. 바로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적인 믿음과 사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는 개인의 단독자적 가치로만 머무는 관계를 넘어서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과제를 소망하고 지향한다. 더욱 커다란 가치를 지향하는 각자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특성과 책임성은 그들의 각자 은사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공동체에 부여한 목표를 인지하면서 더욱 친밀한 믿음의 공동체로 변모된다. 그는 교회가 결코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안온함을 위해 안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기독교인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양식"⁴⁶⁾이라는 입장을 말하였다. 즉,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유별나게 종교적으로 된대거나 경건주의의 특정한 자세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이다. 크리스천을 크리스천 되게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⁴⁶⁾ 오재식, "본회퍼의 현대적 의미", 기독교사상, 137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70.

따라서 본회퍼는 고난을 대하는 제자들의 교회의 태도를 주목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교회는 고난이 괴롭고 힘들다 하여 그것을 벗어 던지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짊어진다. 고난을 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피할 수 없게 되는 고통과 봉변과 괴로움을 책임적으로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본회퍼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질 수 있는지를 근거하는 중요한 전거로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주목하였다. 예수는 십자가의 처형 아래에서도 그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교회의 본질을 가리킨다면,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교회의 삶의 원리가 된다. 그리스도의 대리는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지를 현실적으로 선포하고 실천하는 교회의 원리이고, 세상과 구별되는 영역이 아닌 바로 세상 안에서, 구체적인 시공 속에 그 자리를 갖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선포해야 할 위임인 것이다.⁴⁷⁾

그의 교회론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존재와 세상에 교회로 존재하는

평화의 그리스도의 문제로 구체화 되었다. 본회퍼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현세성으로서의 교회의 탄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교회의 탄생은 교회가

세상의 삶 한 가운데 파고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그리스도의 공간을 그 세상에

안에서 획득하는 것을 뜻하였다. 보이는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현실 안에

세우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그리스도의

⁴⁷⁾ 오재식, "본회퍼의 현대적 의미", 기독교사상 137호, 81.

죽음과 부활에 대한 '현재적 선포'에 의해 형성되는 사건이었다.⁴⁸⁾

본회퍼는 1932년 강의 "교회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온 세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 세상에 증언할 위임을 받았다. 온 세상이 교회의 교구이다."⁴⁹⁾

이와 같이 본회퍼는 현실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본회퍼는 인식의 차원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직접적 인식(actus directus)이었다. 이는 지적 성찰의 노력이 없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한 내적 결합에서 가능한 것으로 '뒤따름'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반성적 인식(actus reflexus)으로 교회를 위한 신학적 인식이었다. 그는 신학적 인식에 대해 "신학은 교회의 기능으로 설교와 교리의 정립에 봉사해야 한다. 교리는 그 자체로 목적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설교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신학의 자리는 현실의 교회이며, 그 주제는 교회의 현실이고, 그 목적은 교회에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다."⁵⁰⁾라고 말하였다.

⁴⁸⁾ 오재식, "본회퍼의 현대적 의미", 기독교사상 137호, 90.

⁴⁹⁾ 강성영, *디트리히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103.

⁵⁰⁾ Dietrich Bonhoeffer, *행위와 존재(Akt und Zein)*, 정지련,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57.

본회퍼는 교회가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성경을 다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교회는 본회퍼의 삶과 사상 속에서 교리의 주제나 단지 지상의 제도적 형태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하나님의 피안성과 교회의 장소 상실의 연계성을 극복하고 세상의 한복판, 즉 "일상의 영역에서에서 교회의 공간을 회복해야 한다"⁵¹⁾ 고 강조했다.

교회는 세상의 한 부분이지만, 세상의 죄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세상과 연대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대한 대항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름으로 진실되게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회퍼는 교회의 참된 표지로서 '타자를 위한 교회'에 대해 집중하였다.⁵²⁾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해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회 역시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회퍼의 신학적 명제였다. 그는 교회를 오직 타자를

⁵¹⁾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25.

⁵²⁾ 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Nachfolge)*, 손규태, 이신건 옮김, 30.

위한 존재일 때만 교회인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본회퍼의 신학은 이러한 점에서 '교회의 재발견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회퍼의 교회론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교회가 타자를 위한 교회일 때에만 진정한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해 준다. 이는 교회에 대한 추상적 선언에 교회의 기능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사랑과 세상에 대한 섬김의 과제로서 교회의 기능을 이해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변혁하고, 세상을 향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본회퍼는 교회를 시대를 대면하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파악하였다. 즉 본회퍼는 교회의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교회의 과제를 문제 삼는다. 그것을 '교회의 현세성'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현세성에 대한 감각, 즉 지금 이 상황과 자리에 대한 집중, 그리고 영원에 대한 허황된 논리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를 통한 구원의 성취는 본회퍼가 얼마나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교회를 성찰하고 새롭게 해석했는지를 드러내 보여준다. 셋째, 본회퍼는 "그리스도는 공동체의 사권을 통하여, 사권 속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사권의 실천과 완성이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다. 모든 사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며 그러한 존재양식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우정, 사랑, 연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피어 오를 수 있다.”⁵³⁾고 강조하였다. 그의 사권에 대한 강조, 특히 고난 받는 종인 그리스도에 입각한 교회적 사권의 강조는 궁극적으로 섬김을 지향하게 됨을 본회퍼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본회퍼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타자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본회퍼는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대해 무엇을 선포할 것인지, 교회가 왜 세상 속에 존재하는지, 정치·종교·사회·생태·문화적 폭력 속에서 회생당하는 타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본회퍼가 참된 교회란 교회 안에 갇힌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타인을 향해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여주며, 타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본다면, 선교적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참된 교회로서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칼 바르트(Karl Barth)의 교회론

20세기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칼 바르트(1886-1968)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며, 신학 교육을 받은 뒤 목회 현장을 10년 경험하고 신학교 교수가 된

⁵³⁾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107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 경험은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하게 만들고, 교회 중심적인 신학을 하게 만들었다.⁵⁴⁾

칼 바르트는 교회공동체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기록되어 선포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유일성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조건 없는 헌신과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교회와 세상은 연결되어 비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의 성취와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칼 바르트의 대표작인 “교회 교의학”은 그 명칭으로만으로도 바르트가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 안에서의 신학을 추구한 인물임을 잘 보여준다. 칼 바르트는 “교회 교의학” 4권 화해론에서 교회론을 전개하였다.⁵⁵⁾

첫째, 사건으로서의 교회이다. 바르트는 교회를 가리켜 “사건”이라고

⁵⁴⁾ Jurgen Moltmann, *신학의 방법과 형식(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4.

⁵⁵⁾ “교회/교의학”의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권은 하나님의 말씀론, 2권은 신론, 3권은 창조론, 4권(미완성)은 화해론, 5권(미제작)은 구원론이다. 칼 바르트는 이러한 구조를 가짐으로써 “위로부터의 신학”을 개진한다. 이러한 바르트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 김균진 교수는, 존재의 유비를 주장하는 로마 교회와의 차이점을 보이는 점과 그리스도론적 집중을 말하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를 통해서만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는 점과 그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균진, *20세기 신학 사상*, p. 30. 또한 칼 바르트의 유비론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황덕형, “바르트 유비론의 신학적 철학적 배경과 의미”, 한국조직신학논총 제35집, 서울 한울출판사, 2013. 6, 385-422를 참고하라.

정의하였다. 외형 건물이나 인간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이 교회의 핵심정의이다.⁵⁶⁾ 바르트는 공동체가 사건이 될 때에야 비로소 그 공동체는 교회라고 이해하였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기관 그 자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모임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의미가 있고 역사적인 사건이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참 교회가 될 수 있다. 둘째, 가시적인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보이는 교회라는 껍질 안에 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르트는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구분 짓는 것을 반대하였다.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보이는 교회를 믿는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 보이는 교회는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사실상 곤경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공동체로 정의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하였다.⁵⁷⁾ 바울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미지는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실존의 지상적, 역사적 형식이라는 현실에 대한 진술이었다.⁵⁸⁾ 셋째, 신앙하는 교회이다. 교회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⁵⁶⁾ Karl Barth, *교회교의학 IV/2(Die kirchliche Dogmatik)*, 최종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884.

⁵⁷⁾ 김명룡, *칼 바르트의 교회론*, 491.

⁵⁸⁾ 김명룡, *칼 바르트의 교회론*, 492.

머리로 하는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한 주관적 의식을 가졌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모였다. 교회는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일깨워진 신앙이 교회의 핵심이다.⁵⁹⁾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다. 교회의 핵심은 믿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고백이 없는 자들은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유일한 입교 조건은 믿음이기 때문이다. 넷째,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교회는 세계를 위해 존재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⁶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파송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파송된 증인들이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에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교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다. 세상은 맹목적이며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신앙이라는 테두리

⁵⁹⁾ Karl Barth, *교회교의학 IV/2(Die kirchliche Dogmatik)*, 최종호 옮김, 851.

⁶⁰⁾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교회교의학 IV/3-2)*, 최종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303-304.

안에서만 우리는 세상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의미한다. 그것은 세상을 화해의 은혜 가운데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며 다른 시각은 모두 왜곡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되지만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과
동일시될 수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겼듯이(마 9:36)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며
연대해야 한다. 교회는 바리새파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분리된 태도를 가질 수
없다. 셋째로 교회는 세상을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곧 세상 안에서의
일이므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미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다. 비록 세상이 자신만을 향하며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 존재한다 해도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충족적인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이해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었고
재림에서 완성된다. 공동체는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언자적이고
증언자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가 목표가 될 수 없다. 예언자적이고

증언자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언자적이고 증언자적인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비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바르트는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책임을 지고 세상의 미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세상에 파송 되었다는 것과 교회가 세상의 일에 참여할 때 가치 있게 존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즉, 끊임없이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다. 바르트의 교회론은 세상이 종교나 교회를 개인 문제로 취급하려는 경향에 맞서 공동체로서의 교회, 공적 모임으로써 교회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교회가 단순히 세상에 배타적이거나 혹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세상을 위한 교회 개념도 선교적 교회로서의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헤리뜨 포르넬리스 베르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의 교회론

네덜란드의 조직신학자인 베르카우어는의 교회론은 실재적이다. 전통적인 교회론에서 말하는 교회의 위대함이나 신비한 것 보다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는 교회를 말하였다.⁶¹⁾

베르카우어의 교회론은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교회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재적이고 실천중심의 교회론을 말한다. 그는 개신교 자체의 이상적 교회론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성령 중심으로 실재적 교회론을 세웠다. 즉, 실재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회론을 제시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면서 종말에 성취될 만물의 회복을 교회가 경험적, 실천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성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베르카우어에 따르면 교회의 실존 안에는 하나의 원심력적인 동기, 곧 선교의 동기가 존재한다. 그는 “교회의 거룩성의 보호를 위해 세상과 벽을 쌓으면 이것은 교회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이 될 수 없다.”⁶²⁾고 보았다. 구별이라는 의미가 계속해서 오래될수록 교회는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세상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거하면서도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요 17:15) 성도들의 모습을

⁶¹⁾ 최윤배, 임창복 저,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6.

⁶²⁾ 최윤배, 임창복 저,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392.

직접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지켜만 보는 방관자가 아니다.

그는 “세상이 근심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죽음과 멸망으로 내버려진 상황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세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곳으로 증거해야 한다”⁶³⁾고 말하였다.

베르카우어는 교회를 세상 속에서 실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가르침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공동체로 보았다. 그리고 그 경험의 중심에는 세상을 향한 선교가 있다. 베르카우어에게 있어서 선교는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었고, 세상의 화해자로서 교회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면 교회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이상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안에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며, 구원의 방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4.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의 교회론

⁶³⁾ 최윤배, 임창복 저,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393.

독일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1926~)의 교회론은 항상 종말론적이며,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교회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교회이므로 교회를 메시아적 공동체로 정의하며 이러한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⁶⁴⁾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선취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론의 근거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종말론적인 기대이다. 이것이 몰트만의 교회론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교회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론 에서부터 출발하여 전개한다.”⁶⁵⁾ 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기초요 힘이고 희망이며 그리스도만이 지배하고 교회가 그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만 교회는 진리 속에 있고 자유 하게 되고 세상에 있어서 해방의 힘이 된다”⁶⁶⁾ 고 주장하였다. 몰트만은 이러한 근거를 가진 자신의 교회론을 그리스도론에 정초한

⁶⁴⁾ Jurgen Moltman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이신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355-356.

⁶⁵⁾ Ju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19.

⁶⁶⁾ Ju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20.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넘어 메시아적 하나님 나라에까지 미치는 종말을 향하여 가는 희망이라고 하였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주님의 메시아적 사명과 대속적 희생과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역사와 운명에 함께 결속되어 있다.⁶⁷⁾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하여 교회는 그 사명에 참여하며 장차 올 하나님 나라와 인간 해방의 메시아적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⁸⁾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가 도래하기까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성령의 탄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의 고난에 자신을 열어 기꺼이 함께 고난 당하신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그와 함께 영광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몰트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십자가 아래의 교회요,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 안에 있는 교회이며,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과 함께 함으로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에

⁶⁷⁾ Ju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119.

⁶⁸⁾ Ju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121.

참여하는 존재로서 모든 회개와 해방을 기뻐하며 회개하는 자들과 해방을 받은 자들과 더불어 기쁨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몰트만의 교회론은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교회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역사의 완성에 이르게 될 종말론적 미래 사이에서 살고 있으며 거기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는다.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부여 받을 수 있고, 그 역사와 함께 복음은 세계를 위한 복음으로 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

몰트만은 교회를 죽음과 삶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희망의 한 복판에서 함께 서 있는 존재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계를 위한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교회의 실존은 교회의 봉사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는 교회는 아무 것도 아니며 교회의 본질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를 실천할 때 보다 분명히 진다

그렇다면 몰트만이 이해한 세계에 봉사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봉사를 통하여 실존적 존재로서 보다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봉사의

⁶⁹⁾ Jü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103.

의미는 무엇인가?

몰트만은 이것을 선교라고 이해한다. 이것은 무분별한 연대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대로 세계를 위해 봉사하는 활동이다.

위에서 살펴본 몰트만의 교회론을 요약해 보면, 첫째, 총체적 해방으로서의 세상을 위한 교회론이다. 교회는 경제적 필요로부터 인간을 노예상태에서 해방하는 모든 봉사 즉 총체적인 해방을 감당하는 세상을 위한 교회이다.

둘째, 정치적 교회론이다. 몰트만은 교회의 정치화를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치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이 사회의 전반을 변혁해 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몰트만에게 있어서 정치와 신학의 규범과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자기를 낮추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통치방식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 아래 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론적으로는 정치적 종교들의 우상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비인간적인 질서들을 비판함으로써 정치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종교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위한 편이 됨으로써 정치, 종교의 희생물로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권이 있는 동산으로 인도하는 해방하는 교회로서 자신의 정치적 사명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성령의 현존 안에 있는 교회론이다. 몰트만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음을 강조하였다.⁷⁰⁾ 몰트만에 의하며 성령은 예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 사이에 종말론적 미래를 연결한다. 즉, 성령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새 창조의 영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창조되고 성령의 사역 안에 참여한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성과 사역을 결정한다. 교회는 의롭게 인정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도상의 존재이다.

결국 몰트만은 교회 자체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고 교회의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과 무관한 존재로 전락해 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메시아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⁷⁰⁾ Jorgen Moltmann,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151.

물트만의 교회론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머물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려고 하는 지금의 교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히 교회가 공적인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의 사역에 동참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교회론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선교적 교회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5. 글렌 와그너(E. Glenn Wagner)의 교회론

미국의 목회학 박사이며 갈보리교회의 목사인 글렌 와그너는 침체된 미국 교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인물이다. 그가 목회하는 갈보리 교회는 도시교회의 탁월한 모범이 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진취적인 교회를 평가되었다. 수적으로는 물론, 프로그램이나 대부분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요즘 교회의 문제는 "양적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⁷¹⁾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과 더불어 사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가 있다. 교회성장에 교회의 모든 사역의 초점으로 맞추는 교회,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부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는 교회, 잘

⁷¹⁾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4, 34.

짜여진 예배를 통하여 간단하게 교인들의 영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교회, 참된 예배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등등, 오늘의 교회들은 대부분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을 맺는 경우를 보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아니라 기능적인 접근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교회는 모일 때나 사역을 할 때, 항상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그는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곳”⁷²⁾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교회로 모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선택하여 다스리게 하셨으며,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교회는 그 삶을 통해 주변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하나님에게는 물론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야 한다.

⁷²⁾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0

그는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래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성도들끼리 깊은 관계를 맺는 곳이다. 성도들 간의 관계의 충만함이 흘러넘쳐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곳이다. 교회는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존재한다.”⁷³⁾고 말하였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곳이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였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반목의 관계에서 살고 있는 세상의 희망이다.”⁷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에 대한 용어적 정의를 “에클레시아에서(Ecclesia)에서 커크(kirk)까지”⁷⁵⁾라는 말로 정의한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이다. 오순절 이후 수백년 동안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렸다. 그러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많이 세웠다. 바로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쿠리아코스(군주다운 집)로 바뀌었다. 쿠리아코스라는 말은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변천을 거듭해 커크라는 말로 변했다가 결국 “처치”(church)가

⁷³⁾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1.

⁷⁴⁾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1.

⁷⁵⁾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4.

된다.⁷⁶⁾ 이러한 용어적인 면만을 바라보면, 교회는 단지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 단지 건물만을 의미하였다면 2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용어는 사라졌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용어는 지금도 교회를 대표하는 용어이다. 그 이유는 교회가 가지는 속성에 있다. 교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즉, 주님을 알고 그리스도에 의해 함께 모이게 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 놓여 있기에 건물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비밀을 전해주지 못한다면, 건물로 남아있게 되지만,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비밀을 보여줄 때,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가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상에서 비롯되었다."⁷⁷⁾고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과 새 언약 속에 있는 백성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교회가 폭풍우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의

⁷⁶⁾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5.

⁷⁷⁾ E. Glenn Wagner & Steve Halliday,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조계광 역, 47.

영적인 삶에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 빗대어 말하면, 단순히 가루를 재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개조가 필요하다. 강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난다면, 그 영향이 온 도시와 마을에 미치게 될 것이라라는 의미이다.

와그너의 교회론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가 변형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성장주도형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한마음을 갖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참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권고하라는 성경의 명령에 충실함으로 이 세상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을 위로하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팀 켈러의(Timothy Keller)의 교회론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뉴욕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인 팀 켈러는 지금 미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의 교회론의 특징은 리디머 장로교회의 대사회적인 교회 활동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리디머 장로교회는 지역적 특징과 조건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참된 교회로서 지역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여 교회의 사역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 정의 실현과 공화를 베푸는 사역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지역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그 문화 가운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는 지역에 나타나는 문화와 특징들을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위치한 다문화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데, 예술을 강조한다거나 인종의 다양성을 소중히 여긴다거나 심지어 모든 시민을 위한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그가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나타내 준다.⁷⁸⁾ 켈러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시절, 도시 목회와 관련한 과목을 가르쳤던 하비 콘(Harvie Conn)교수가 도시의 소외된 지역에서 사회구조적 불의에 맞서 노력했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참 많은 걸 배웠다고 고백하는데, 결국 이와 같은 배움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도시 교회에서의 목회 경험이 지금의 리더며 장로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켈러는 봉사 및 구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오늘날 사회적 문제의 근원은 이웃과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지만 정작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려는 동기는 상당히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그는 정의를 단순히 도덕적인 의무를 넘어 온전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면의 힘으로써

⁷⁸⁾ Timothy Keller, *The Reason for God(살아있는 신)*, 권기대 옮김, 서울: 베가박스, 2010. 82.

성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교회의 구제와 정의를 위한 활동이 세상의 구호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이다. 성경을 사역의 내면적 동기로서 삼게 될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가치로 인해 기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⁷⁹⁾고 말하였다. 이처럼 켈러는 가난하고 소외된 도시의 계층에 대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의 근원적 힘과 이유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그의 견해와 관점은 그가 지금껏 추구해 온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과 특징을 잘 나타내 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켈러는 뉴욕이라는 대도시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그 도시의 어두운 곳에서 가난하고 굶주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선교적 삶의 모습임을 주장한다. 특히 켈러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단지 죄책감을 자극하는 사회 의식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코드를 사용하여 그들

⁷⁹⁾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중훈 역, 서울: 두란노, 2012, 130.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는 감각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⁸⁰⁾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 정의를 행하는 사역에 대해 “직접적인 원조, 개인과 공동체의 개발, 그리고 인종간의 화해와 사회 개혁”이라는 세 단계를 주장하면서, 특히 ‘사회 개혁’이라는 영역은 단지 긴급하거나 절박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원조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환경과 구조를 악하게 변화시키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⁸¹⁾ 더욱이 직접적인 원조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교회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켈러의 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⁸²⁾ 그런 점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해, 독거노인이나 편부모 가정 들과 같이 원조가 급히 필요한 분을 위해, 그리고 더 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알려지지 않아 오히려 더 힘든 빈곤 가정 등을 위해 “실질적인 필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⁸³⁾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교회의 사명을 단지 말씀 선포와 복음 전파 그리고 건전한 양육 훈련으로만 삼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의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이자, 진정한 사랑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과

⁸⁰⁾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162.

⁸¹⁾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185.

⁸²⁾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194.

⁸³⁾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194.

동시에, 혹여나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나누며 정의를 실천하는 일을 복음 전파 사명과 비교해서 부수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오류이자 잘못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⁸⁴⁾ 이처럼 켈러와 리디머 장로교회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사역들 모두가 가지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임에 분명하지만, 이와 못지 않게 진정한 복음 안에서 당연히 지역의 소외되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 베푸는 교회의 사명 또한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구제와 봉사를 통해 원조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말고 궁극적으로 사회 환경과 구조 속에 있는 사회적 악을 복음 안에서 개혁함으로써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또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보여주고 있다.

⁸⁴⁾ Timothy Keller, *Generous Justice(정의란 무엇인가?)*, 최종훈 역, 196.

Ⅲ. 선교적 교회론

앞서 살펴본 일곱 명의 신학자들의 교회론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발견된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봉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고난에 동참하여 타자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론과 연결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서로 연결되는지 이번 장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A. 선교적 교회론의 배경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는 용어는 1990년대 북미의 신학자들의 모임인 GOCN(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에서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신학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북미 교회가 처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선교적 교회"라는 대안을 대럴 구더(Darrell L. Guder)가 책임을 맡아 출판한 *Missional Church: Vision for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The Gospel and Our Culture Series, 1998)라는 책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⁸⁵⁾

선교적 교회는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다. 대럴

구더는 그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존의 전통적인 서구교회들의 신학이나 체계는 모두 선교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모두 기독교 세계의 유산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비록 기독교 세계의 공식적인 체계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실용적인 기독교 세계'의 형태로 존재하여 유력한 전통, 사고방식, 그리고 사회적인 체계를 지속시킨다.⁸⁶⁾

기원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한 후, 로마는 곧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Christendom)가 되었다

그 결과 기독교인만이 가졌던 교유한 의식인 세례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예식이 되었다. 모든 시민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기독교는 정치, 사회, 종교,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1세기 초대교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사회에서 생활할 수

⁸⁵⁾ 이병욱 외 7인, *선교적교회의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5.

⁸⁶⁾ 김은수 외 15인,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43.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4세기에 로마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가 된 이래로 무려 1,500여년 간 서구의 모든 사람의 영역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거의 천년 동안 유럽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던 유럽의 교회는 15세기 제국주의 식민 정책과 맞물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로 나아가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크리스텐덤(Christendom)에서는 선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정책과 맞물린 선교는 17세기 이후 계몽주의의 등장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지 현장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서구 사회 속에서 생겨난 이성에 대한 낙관주의와 과학혁명으로 인한 세속화 때문이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모든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기독교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더욱 가속화 되어 서구 사회 주변부로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의 도전 앞에 교회는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되찾고자 한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였다.

선교적 교회론의 태동은 인도의 선교사이자 영국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킨에게서 시작되었다. 36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이후 65세에 고국으로

돌아온 뉴비긴은 급속한 변화 가운데 있는 영국 사회의 모습에 놀라게 되었다.

영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속화와 다원주의의 도전은 거대하고 충격이었다.

뉴비긴에게 보여진 영국 사회는 반 기독교적이었다.

뉴비긴은 이러한 영국을 포함한 서구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선교학적 논의를 시작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뉴비긴의 선교 신학에 영향을 받은 북미 신학자들은 1966년 GOCN(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을 만들었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학자로는 조지 헌스버그(Gorge R. Hunsburgh), 크레이그 밴 겔더(Craig Van Gelder), 데럴 구더(Darrell L. Guder), 로이스 바렛(Lois Barret), 이나그레이스 디이커리히(Inagrace T. Dietterich), 리차드 블리스(Richad H. Bliese), 릭 하우스(Rick House)등이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로 1998년에 최초로 '선교적 교회'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이후 '복음과 문화 시리즈'라고 불리는 일련의 저술들을 출간하였으며, 이 저술들을 통하여 선교적 교회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들이 복음과 문화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점이 문화적 환경에 있어서 변화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⁸⁷⁾ 이들은 200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서구의

⁸⁷⁾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03호, 서울 두란노, 2006. 5, 181.

기독교제국(Christendom)와 합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도전을 넘어 새로운 교회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⁸⁸⁾

이것은 기독교의 개인화를 극복하고 복음의 실천적 삶을 사회, 문화, 정치, 경제라는 공적 영역에서 구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B.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와 역사적 이해

1.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

선교적 교회란 단순히 '지역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고 있다'거나 혹은 '선교사역의 비중이 작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가 '선교 지향적' 혹은 '선교 중심적'인 교회를 말한다.⁸⁹⁾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선교적 사명으로 세상에 파송된 공동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데이비드 보쉬(David J. Bosch)는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⁸⁸⁾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03호, 183.

⁸⁹⁾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193.

선교적이다.”⁹⁰⁾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선교적일 때 신앙은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는 선교적일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와 교회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개념이며, 존재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이다. 복미의 교회들이 어떻게 복음, 문화 그리고 교회와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교회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운동차원에서의 교회를 일컫는 것이다.⁹¹⁾

선교신학자인 김성태는 그의 저서 『현대 선교학 총론』⁹²⁾에서 선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정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광의적인 입장에서 선교는 선교의 주체로서 삼위하나님의 주재권을 강조한다. 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복음 증거의 삶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때 선교의 의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된다. 협의적인 입장에서의 선교의 의미는 교회의 파송을 받아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친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그

⁹⁰⁾ David J. Bosch,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대 역, 193.

⁹¹⁾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193.

⁹²⁾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이레서원, 2008.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선교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로

사용된다.⁹³⁾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본질을 생활화 할 때에야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고, 교회의 선교를 간과하고서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적 과업을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이다. 선교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교적 과업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적 도구와 장소가 되는 것이다.

크레이그 벤 켈더는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회의 신학에서 출발하여 선교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선교를 교회의 임무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근대 선교운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운동에서 교회는 주로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며, 선교란 존재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몇몇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와 반대로 선교의 역사에서 교회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교회란 선교적인 사역들로부터 발전된 어떤 것으로 접근한다. 이런 입장은 옳은 영혼을 얻으며 교회가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관점은 제도적인 교회의 역사적인 존재의 이해에 대한 적당한 종합적 접근에 실패한다. 본질적으로

⁹³⁾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109-110.

선교적인 존재로서 교회를 이해하는데는 선교에 대한 통전적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창조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 그것의 존재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세상에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다.⁹⁴⁾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에 대한 본질적 사고보다 앞서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경계한다. 선교적이라는 의미는 교회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교회 그 자체를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선교를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여겼던 서구 기독교의 반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론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종만(엡 1:23)이라는 말씀에 따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로 도피해오는 구원의 방주가 아닌 세상 속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선교적 교회는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⁹⁴⁾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134.

신실하게 참여할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서 동참할 따름이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론의 논지는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과 연관성을 갖는다.

미국의 GOCN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GOCN에서 이해하는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교차문화상황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선교적교회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과 삶과는 적대적인 방식의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 ② 선교적 교회는 그것의 상황과 문화와 더불어 대화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선교적 교회의 회중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한다.
- ③ 선교적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성경적 관점으로부터 문화를 생각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성경은 선교적 교회의 신앙과 삶을 위해 주된 안내자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 할 것이다.
- ④ 선교적 교회는 그 자체의 변화를 통한 교회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복음은 우리 시대의 어떤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인 것을 떠나 분명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 ⑤ 선교적 교회는 그 자신이 발견한 주변부로의 위치를 받아들일 것이다. 여론 조사는 성직자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는 예전처럼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 ⑥ 선교적 교회는 그 자신이 속한 상황과 문화 안에서 증인 역할을 감당한다. 선교적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새로운 질서를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나타낸다.⁹⁵⁾

선교적 교회론의 정의는 '선교적'(missional)이라는 용어에서 출발하여야

⁹⁵⁾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194.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보냄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본질적 특성과 소명을 강조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적 교회는 단순히 파송하고 후원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와 목적과 삶의 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의 모습이다.⁹⁶⁾

선교적 교회의 핵심 개념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다스림, 보냄 받은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삶을 포함한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비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개념적인 소개와 함께 선교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본래 이 용어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전 이해를 재구성하는 개념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회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⁹⁷⁾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구속을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그리고 그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⁹⁸⁾고 정의하였다. 그는 선교라는 말을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선교는 정확한

⁹⁶⁾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03호, 182

⁹⁷⁾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03호, 184

⁹⁸⁾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 203호, 185

목표와 계획된 행동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장기적 목적 혹은 목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일반적으로 선교사(missionary) 혹은 선교적(missionary)이라는 말은 자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하였다. 그것은 선교라는 말 자체보다 '보냄 받았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통 교회나 선교단체에 의해 선교사역을 하도록 보냄 받는 사람들로 이해되었다. missionary라는 단어는 또한 형용사로도 쓰인다. '선교적 명령', '선교적 열정을 지닌 사람'등으로 사용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말은 선교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서구교회가 19세기와 20세기에 활발한 선교 활동을 벌인 결과 나타난 부작용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 하면 먼 나라에 가서 '원주민' 사이에 있는 서양 백인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사실은 선교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현재 타문화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다수가 서구인이 아니라 비서구 사회의 성장하는 토착교회 출신들이라는 사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선교사(missionary)라는 용어보다는 '선교 파트너'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최근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선교적(missional)이라는 말은 선교와 관련된 선교의 특성, 속성을 가진 어떤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선교적이라는 말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의의와
오늘의 세상과 기독교 선교와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해석이다. 여기에는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실제적 성찰과 연구를 포함한다."⁹⁹⁾고 말하였다.

그러나 선교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하나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회성장이 목적이
아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지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선교하는 교회(doing church)의 역사적 이해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알고 있고, 대다수의 교회가 선호하는 선교하는
교회(doing church)의 선교의 개념과 선교적 교회의 선교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서 공인되기 전까지 초대교회 교인들은
선교공동체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교회는 조직적 체계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⁹⁹⁾ Christopher Wright,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 정옥배, 한화룡 역, 32.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졌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는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존재 이유였다. 선교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는 교회의 성장이나 확장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그 목표를 두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복음 전도와 사회봉사를 선교의 필수적 과제로 인식하면서 주변 사회 안으로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확대되어 갔다.¹⁰⁰⁾

그러나 기원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 이교도 국가였던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복음전파를 통한 선교의 의미도 약화되었다. 더 이상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도 없어졌고, 사회생활의 제약도 없어졌으며, 로마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세례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선교는 공교회의 개혁을 시도했던 수도원을 통해서 수행되게 되었다. 당시 수도사들은 교회 밖의 야만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는데, 이러한 수도사들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은 유럽 사회를

¹⁰⁰⁾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49.

복음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이다. 수도사들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상식의 선교를 전개하였던 것이다.¹⁰¹⁾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교회와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중세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응답이 직제에 의해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적되었다면,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 평신도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교회의 구조에서도 성직자와 평신도의 분리가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회복하기에 이르렀다.¹⁰²⁾

그러나 선교에 대하여는 교회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정통주의 신학과 국가교회 체제의 수립으로 말미암아 선교는 경직되었다.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사변적인 신학논쟁으로 신앙의 운동성을 약화시켰으며 국가교회의 형태는 신앙의 형식주의를 발생시켰다. 이때 교회 내부로부터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개혁하려는 '경건주의자'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개신교의 본격적 선교활동은 경건주의 운동에서 그 출발점을

¹⁰¹⁾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51.

¹⁰²⁾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52.

찾을 수 있다. 경건주의자들은 교회의 개혁에만 목표를 두지 않고 교회 밖을 향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할레의 프랑케를 들 수 있는데, 그를 통해 할레 대학에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 기구인 '덴마크할레선교회'(Danish-Halle Mission)가 시작되었다. 선교사들과 대부분의 지원을 할레로부터 주어졌고 초기의 기동력은 덴마크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그 이름이 덴마크할레 선교회였다.¹⁰³⁾

근대의 개신교 선교는 19세기에 시작되었다.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19세기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를 비롯한 개신교 선교는 선교를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 하고 그를 후원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doing church)의 선교개념이었다. 이 경우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파송된 선교사 개인 뿐이며 나머지는 선교 후원자가 된다. 선교하는 교회의 선교는 선교사 중심으로 이해되었다. 당시 서구 교회는 기독교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오직 비서구 지역만을 선교현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선교를 위해서 먼 나라로 가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선교를 이끌던 지리적 중심의 선교이해는 선교적 교회론을 주장한 선교학자들에 의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¹⁰³⁾ Herbert J. Kane, *세계선교역사(A Concise History of the Christian World Mission)*, 신석주, 이영주 공역, 서울 문서선교회, 2013, 103.

선교를 먼 나라로 가서 하는 특별한 활동으로만 생각할 때 선교에 대한 이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써 살아가야 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선교로 부름 받았고 세상에 파송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삶과 선교에 연관성에 대한 무지는 결국 선교와 실천에 불리를 가져오고,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삶이 아닌, 특정한 시간에 먼 나라에 가서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만이 선교라고 인식하게 된다. 당시 교회는 선교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밖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 많은 선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에는 선교의 열기가 각 지역에 더해지면서 각 교회의 선교부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소위 교파주의적 선교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교파주의 선교는 교파 간 갈등을 빚었고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교회 간의 충돌과 분열은 선교의 큰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선교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하여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선교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선교대회를 시점으로 교회 간 일치와 연합의 장인 에큐메니칼 운동이 태동하게 된 것이었다.¹⁰⁴⁾

196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제3차 세계교회협의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국제선교협의회(IMC)가 합류하면서 교회와 선교단체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합운동은 지금까지 선교의 주된 활동을 교회 외부에서 수행해 오던 것을 교회 안으로 정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과제로서 선교를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일 뿐 신학적 차이로 세계교회협의회를 따르는 에큐메니칼 입장과 비판적 대응을 보인 복음주의로 나뉘게 되었다.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는 비록 선교와 신학 면에서 갈등하였지만, 1974년 로잔 대회를 계기로 다시 일치를 모색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이해와 더불어 서로의 다른 관점들이 선교에 장애물이 되지 않고, 선교의 다양한 이해로써 포용되고 새로운 선교의 이해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이후 나타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정의에서 출발하였다. 선교하는 교회에서의 선교는 주로 먼 나라에서 하는 활동으로

¹⁰⁴⁾ 한국일,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52.

이해하였다면, 그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교회가 선교를 위해 세워졌다는 이해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와 '선교하는 교회(doing church)' 사이의 차이점과 올바른 관계설정이 선교적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이다.¹⁰⁵⁾

과거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서 선교의 대위임령(마 28:16-20)을 강조하였다면, 선교적 교회론은 "세상의 빛과 소금"(마 5:13-16)이 되라는 본문을 성경의 근거로 둔다. 전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단어에 주목하였다면 후자의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본문이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에큐메니칼 선교문서는 선교의 두 차원을 '선포로서의 선교'와 '현존으로서의 선교'로 묘사하였다.¹⁰⁶⁾ 또한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 자체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해 파송 받은 존재라는

¹⁰⁵⁾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선교신학 제36집, 서울 한신대학교신학연구소, 2014. 7, 366.

¹⁰⁶⁾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선교신학 제36집, 366-367.

것을 인식한다면 그가 속한 지역과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선교적 교회론의 주장은 결코 선교하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해외선교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선교와 삶이 유리된 채 살아온 선교 이해를 통합하고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근본정신이다.

C. 선교적 교회론의 신학적 이해

1.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 안에 선교적 활동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원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한 뒤, 서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 중심의 선교를 추진하였다. 16세기 가톨릭 교회가 선교를 주도해 나갈 때나 19세기 개신교 교회가 선교를 주도해 나갈 때 모두 서구 교회는 제국주의적인 형태와 방식으로 비서구 세계에 자신의 교회와 같은 혹은 유사한 교회를 이식하는 것으로 선교를

이해하였으며 식민주의와 더불어 선교를 실시해왔다.¹⁰⁷⁾ 이런 교회 중심의

제국주의적 선교 형태에 대하여 비판적 소리를 낸 선교학자들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의 칼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이었다. 하르텐슈타인은 하나님 중심의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받아 교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선교 개념을 발전시켰다.¹⁰⁸⁾

하르텐슈타인에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선교는 구원사적이고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창조로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구속의 역사이며 동시에 교회들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가 그의 뜻과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며, 동시에 선교란 오전한 복음은 온 민족에게 그들 전체의 삶의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¹⁰⁹⁾

선교의 목적은 교회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가 필요하며,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일

뿐이며 그분의 대리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은 IMC빌링겐 회의(1952년)에서 더 발전하였다. 이

¹⁰⁷⁾ 김은수 외 15인,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205.

¹⁰⁸⁾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36-137.

¹⁰⁹⁾ 김은수, *현대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41.

회의에서부터 선교를 하나님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운동이며, 교회는 선교를 위한 도구이다.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 하나님이 파송 하기 때문이다. 즉 빌링엔 회의를 통해서 교회중심의 선교에서 하나님 중심의 선교라는 개념을 선교신학과 교회의 중심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의 발전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첫째, 네덜란드의 신학자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는 세계교회협의회 전도부 초대 간사 및 세계교회협의회와 국제선교협의회 협력위원회 간사(1949-1952년)로 일했다. 그는 교회 중심의 선교관은 선교를 곧 '교회화'로 생각하게 되면서 교회형성과 교파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며, 전도를 행할 때에도 교회의 영향력을 다시금 획득하려는 사실을 성서적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회 중심의 선교를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나아가야 하며, 그러한 선교의 목표는 샬롬(Shalom)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의 샬롬은

단순한 영혼 구원 이상의 것으로 평화, 정직, 공동체, 조화, 정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회는 이 살롬을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고 보았다.¹¹⁰⁾

둘째,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발전시킨 인물은 독일 신학자인 게오르크 비체돔(Georg F. Vicedom)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선교를 구속사적 의미로 해석하였다. 즉 비체돔은 하나님의 창조와 사역에 통합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였다. 그는 살롬의 개념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는 것으로서의 선교의 중요한 주제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교회의 선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공동체이며 구원의 역사를 현재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선교의 목표를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으는 일"¹¹¹⁾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을 품어야 하고, 교회의

¹¹⁰⁾ 안승오, 박보경 공저, *현대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271.

¹¹¹⁾ 안승오 외 1인, *현대 선교학 개론*, 272.

유일한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공고히 하고 보급한 세계교회 협의회이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받아들여 폭넓은 선교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림의 하나님과 동역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를

위하여 함께 사역하고 동참하는 것”¹¹²⁾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전통적인 명제였던 하나님과 교회와 세계의 순서가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계는 세계이고 교회는 단지 세계의 한 부분으로 정의 되었다.

2. 통전적 선교

교회의 본질과 관련된 구원과 선교를 두고 신학적 입장에 따라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뉜다. 즉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다. 그러나 선교는 원래부터

통전적인 사역이다. 구원이 부분적인 구원일 수 없는 것처럼, 부분적인 선교가

있다면 이미 그것은 선교가 아니다.

어원적으로 통전적이란 말은 전체적(whole)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그것은

¹¹²⁾ 안승오 외 1인, *현대 선교학 개론*, 273.

개체성을 무시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개체를 인정하는 통합이다. 각기 다른 부분적인 사역을 무시하지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선교는 내용과 목적과 대상과 방법이 모두 통전적이다.

오랫동안 논의를 거듭하던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문제도 1974년 로잔에서 열린 복음화 국제대회 이후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복음에 대한 개념이 이전보다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사회참여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1977년의 시카고 대회는 복음 전도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전 인간에게 행하는 전인적인 구원(Holistic Salvation)임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새로운 관심은 복음적 위임 (Evangelistic Mandate)과 문화적 위임 (Cultural Mandate)이라는 양분된 입장이 분리가 아닌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해되었고, 이제는 통전적이라는 것이 이분법적인 사고나 양분된 선교 입장을 하나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다양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원리나 주장들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하게 되었다.¹¹³⁾

게르하르트 로핑크(Gerhart Lohfink)는 그의 교회론에서 교회의 사명을 함께 함(togetherness), 말씀의 선포와 교육(education), 그리고 선교와 봉사(giving)로

¹¹³⁾ 손윤탁, *성경적 선교신학과 통전적 선교관*, *선교와 신학* 7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1. 5. 15.

나누었다. 호켄다이크 또한 1952년 빌링엔 대회에서 교회의 사명을 복음선포, 가르침, 나눔과 섬김으로서의 봉사로 나누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사역 - 가르침, 복음전파, 치료 -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회의 궁극사명은 복음전파와 사회참여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복음전파와 사회참여는 결코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예수의 사역을 선교의 모델로 삼는 어느 진영에서도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와 성장만을 강조하며 봉사와 나눔을 약화시키게 되거나, 봉사와 나눔만을 강조하며 전도와 성장을 외면하면 선교는 그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세가지 원칙을 정하였다.¹¹⁴⁾

첫째, 선교는 전 피조 세계를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된 개인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선교의 목적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¹¹⁴⁾ 세계교회협의회, *통전적 선교를 위한 신학과 실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5.

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내는 곳으로, 이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실천은 다양한 삶의
경계들을 뛰어넘어 수행되어야 하며 교회의 선교는 전 피조 세계와 모든 인간의
삶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인간의 영-육-혼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만을 충족시키거나 물질적 요구만을 충족시켜서는 타인들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 통전적 선교란 하나님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인간 사이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개인에만 몰두하여 개인의 세상에서의 관계와 위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구원에만 몰입하는 것은 선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마 22:40). 그러므로 통전적 선교는 하나님과 이웃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선교는 '그리스도-사건(Christ-Event)'으로 출발하는데 그리스도
사건에는 삶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상을 향하셨던 그리스도의 통전적 선교를 지향한다.

그리스도가 전 피조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의 핵심이기에, 그

목적을 지향하는 선교는 당연히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포함한, 다른 어떤 접근도 포용하는 통전적 선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선교신학자인 김영동은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통전적인 하나님의 선교는 선교의 목표로서 개인영혼 구원과 사회봉사를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인 구원을 통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주장한다. 개인 구원이란 말이 더 이상 관심을 끌 수 없는 이유가 인간을 이분법으로 보고, 오늘의 세계에서 중요한 가난, 기근, 억압, 착취, 전쟁, 조작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는 영혼만 아니라 전인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구원, 인간을 그 출만한 실제 가운데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려는 구원을 강조하는 통전적 구원을 선호하게 되었다.¹¹⁵⁾

결국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진영들은 대화를 통하여 통전적 선교신학을 발전시켜왔다. 통전적 선교는 복음전도와 사회봉사를 선교의 개념에 통합하여 교회로 하여금 바른 선교를 실천하게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보수적 성향과 개인주의, 교회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분열로 인해 개인구원과 사회봉사에 대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복음주의 교회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활동은 교회성장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세상에서

¹¹⁵⁾ 김영동, *선교적 교회론 연구*, 세계선교 제21호,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3, 30.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선교적 과제에는 부족함을 드러낸다.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할 때 선교의 폭은 넓어지고 그 지경은 확대된다. 개교회를 위한 복음전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던 통합적이고 통전적인 선교의 사명을 따르게 될 때 한국교회는 외딴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되고, 잃어버린 공신력과 공공성도 회복되는 것이다.

D. 선교신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

본 장에서는 선교 신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유럽에서 활동하였던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크레이그 밴 겔더(Crag Van Gelder),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와 아울러 북미 선교적 교회론의 틀을 다진 대럴 구더(Darrell L. Guder)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들 다섯 명의 선교신학자들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렇지만 모두 "크리스텐돔에서 형성된 교회론을

극복할 것"¹¹⁶⁾을 주장하였고, 선교적 교회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1.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의 선교적 교회론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는 1912년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선교의 열정이 깊었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 네덜란드에서 신학을 하고 선교사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년간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다가 학자로서 한 평생을 살았다.¹¹⁷⁾

먼저, 호켄다이크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이나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Christendom)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거부하였고, "선교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한다"¹¹⁸⁾고 주장하였다. 교회를 선교의 출발점이나 종착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 이해하였다.

그의 선교적 교회론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¹¹⁶⁾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제24집, 2009. 8, 244.

¹¹⁷⁾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241.

¹¹⁸⁾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85.

첫째, 그는 선교의 목적은 살롬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호켄다이크에게 선교는 종말론적인 사건이었다. 살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완성하실 것이었다. 이 두 사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해야 한다. 둘째, 호켄다이크는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¹¹⁹⁾이라고 말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 말은 세상이 교회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호켄다이크는 “하나님 - 교회 - 세상 대신 하나님 - 세상 - 교회라는 패러다임”¹²⁰⁾을 주장하였다. 호켄다이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 어떻게 선교를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셋째,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세상과 인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역사와 상황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와 목적은 세속화된 세상에서 참된 인간화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넷째, 복잡한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면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일터와 공공 생활 속에서

¹¹⁹⁾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87.

¹²⁰⁾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244.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켄다이크는 선교를 가장 중요한 교회론으로 주장하였다. 호켄다이크는 "교회는 이 세상에 살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¹²¹⁾ 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빌링겐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규정된 것과 매우 비슷하다.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주체가 아니며 그리스도가 선교를 주도할 때 교회는 도구로써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 호켄다이크는 교회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정의하였다.

교회는 분명히 출발점도 종착점도 아니다. 영구적인 집이 절대로 될 수 없는 한시적인 거주지이다.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 충분히 정의될 수 있다. 교회는 오로지 선교의 범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¹²²⁾

두 번의 세계 대전을 통해 교회가 국가와의 관계 속에 얼마나 인류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은 호켄다이크의 주장은 지극히 합당하다. 그는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주체가

¹²¹⁾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룸-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260.

¹²²⁾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룸-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262.

아니며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도구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켰다.¹²³⁾

아울러서 호켄다이크는 교회와 선교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선교적 기능으로서 존재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그 근본 존재 이유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단순히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교회 자체가 선교가 되며,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살아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된다.¹²⁴⁾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조직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평가 받게 된다. 교회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신실하게 동참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다.

호켄다이크의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이다. 그것에 비추어서 기존의 교회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인 선교를 등한시하며 선교보다는 다른 일에 주력하거나 교회의 존립이나 교단의 전통에 얽매이는 행동에 대해서 호켄다이크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¹²³⁾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014, 250-251.

¹²⁴⁾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53.

그의 선교를 우선시하는 교회론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이지는 않았으나 선교적으로는 적절한 것이었다. 호켄다이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하였다. “오직 선교 안에서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절대로 교회가 선교보다 클 수 없다”¹²⁵⁾ 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교회는 선교를 통해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며 선교를 할 때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호켄다이크의 교회론은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는 선교적인 교회를 주장했던 많은 학자와 동일하게 선교가 교회보다 앞서는 것이며 교회는 선교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호켄다이크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¹²⁶⁾ 이라고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자기 비움의 삶이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자기 비움의 삶을 실천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¹²⁵⁾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60.

¹²⁶⁾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63.

필요하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세상 속 매일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정리하면 호켄다이크는 세상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기 원했다. 진정한 선교를 위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야 한다. 크리스텐돔 시대에 가졌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도구로서 동참하여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 때만 존립이 가능하다. 그의 선교신학은 일반 그리스도인과 학자들로 하여금 선교와 교회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당시 세상의 급속한 세상의 변화에 대해 관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교회상에 대해서 적절한 제안을 하였다. 호켄다이크는 무엇보다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었다. 교회의 모습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는 변화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며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¹²⁷⁾

¹²⁷⁾ 정승현,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64.

2.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의 선교적 교회론

레슬리 뉴비긴은 교회의 위기를 직면하여 복음을 가장 탁월하게 변증한 선교신학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학문적 영향은 그의 고국인 영국 뿐 아니라 제3세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는 선교를 교회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라고 보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성격이 선교라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평생을 교회의 연합을 위해 노력했다.¹²⁸⁾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은 인도에서의 선교를 통해 형성되었고, IMC와 WCC에서의 활동을 통해 발전되었다. 뉴비긴은 교회와 선교의 불가결한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선교이다.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이다. 또한 복음의 본질은 교회를 좀 더 참된 교회로 만들고 세상에 대해 좀 더 참된 선교를 하게 한다는 핵심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기독교 연합운동과 세계복음화의 연계성은 가장 심오한 특징이다. 이 두 요소들은 복음 그 자체의 핵심으로 회귀하는 두 가지 외적 표지이다.¹²⁹⁾

뉴비긴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두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을

¹²⁸⁾ Geoffrey Wainwright, *Lesslie Newbigin A theological Lif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50.

¹²⁹⁾ 김은수 외 15명,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79.

목도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근대의 서구문화를 향해 어떻게 교회가 선교할 것인가? 에 대하여 깊은 선교적 성찰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인 선교의 회복을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미리 맛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부름 받아 세상에 파송 받은 교회가 복음을 삶과 언행으로 전하며, 복음의 공적진리를 회복해 나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론"¹³⁰⁾이라 말할 수 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어 그분의 재림 때 완성될 그 구원과 관계가 있다. 현재 지상에서 맛보기만 갖고 있는 그것을 장차 완전히 소유할 날을 갈망하는 전투적 교회와 그것이 완전히 성취되어 어린양과 혼인 잔치를 벌일 그 날 사이에 미완성된 선교사역이 놓여있는 것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0)라고 기도하는 교회의 간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은 "너희는 가라..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19-20)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선교 명령이다. 교회와 선교 그리고 교회연합은 세상과 화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에 신학적 근거를 두고 있다.¹³¹⁾

¹³⁰⁾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419.

¹³¹⁾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420.

뉴비긴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며 열방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 분 하나님 아래 가시적인 연합체를 이루려고 부름 받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뉴비긴의 교회론은 선교적이고, 에큐메니컬하며, 대항 문화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직자는 선교 사역이 적당하게 수행해도 교회가 쓰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약 성경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와 선교회의 이분화와 선교 사역의 확장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향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뉴비긴은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목적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탐구와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에 대한 재 탐구의 시대적 요인을 세 가지에 두고 있다. 곧 기독교 세계의 붕괴, 옛 기독교 세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선교경험,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의 발흥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불러오게 되었음을 밝힌다. 그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순례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면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선교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때 가능한 것"¹³²⁾이라 말하였다.

선교적인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에 대한 뉴비긴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창조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복음의 담지자"¹³³⁾라고 한다. 즉 교회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 표지와 도구이자 맛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자체나 교회의 구성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병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이해를 갖지 못할 때에 교회는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공동체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¹³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들어와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 병자들과 함께하시는 성육신적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였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취된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복음전파의 문은 점점 닫혀져 가며 복음의 담지자로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점점 더

¹³²⁾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서울IVP, 2010, 13-29.

¹³³⁾ Lesslie Newbigin, *헬라인에는 미려한 것이요*(Folishness to the Greeks), 홍병룡 역, 서울IVP, 2005, 159

¹³⁴⁾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58.

고립되어 갈 것이다.

둘째, 선교의 대상과 관심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는 선교를 믿음과 행함이 함께 수반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고 있으며, 선포와 인내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수행되어질 때 선교라 칭할 수 있다고 보았다.¹³⁵⁾ 따라서 선교의 근본적 목표는 교회의 교인수의 증가에 있지 않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수행함에 있다.¹³⁶⁾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고 증언해야 할 공동체로서 단순한 보고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구속의 은혜를 나르는 수레가 되어야 한다.¹³⁷⁾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온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하여 선택되었고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인 것이다.¹³⁸⁾ 그는 “교회가 선포와 증언, 현존적 삶을 통한 예수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공동체로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신 아래에

¹³⁵⁾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59.

¹³⁶⁾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113.

¹³⁷⁾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153.

¹³⁸⁾ ¹²⁸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60.

있을 때 세상으로 파송 받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다.”¹³⁹⁾라고 말하였다.

셋째, “교회를 종말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잠시 세상에 경유하는 공동체”

¹⁴⁰⁾라 주장한다. 그는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임을 언급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종말론적

기대감과 함께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 부름 받은 교회의

위치를 의미한다.¹⁴¹⁾ 즉 세상에서 가시적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세상에 완전함을

가져다 주려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명자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교회가 종말론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일차적 의무는 자기교인을 돌보는 일이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은 이차적으로 밀리게 된다. 교인 개개인을 교회가 집행하는 은혜의

방편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로 보는 목회 개념이 자리 잡게 된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 전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책임을 갖고 있고, 교회는

각 지체가 각기 다른 역할을 지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하는 가르침이다.¹⁴²⁾

근본적인 오류는 온전한 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¹³⁹⁾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36.

¹⁴⁰⁾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37.

¹⁴¹⁾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161.

¹⁴²⁾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161.

참여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향한 그분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며, 진정한 목회 사업, 진정한 신앙 훈련, 은혜의 방편의 사용은 선교사역을 위해서 베풀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 강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하며, 온 세상을 위해 고뇌했던 그분과 마음을 공유하는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을 뜻한다.

교회는 세상에 경유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종말론적인 비전과 소망을 세상에 심겨다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 그는 이를 위해 하나님 창조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세상은 교회를 통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종점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임을 말한다.¹⁴³⁾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교회는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가시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 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체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공동체로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겸손히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다.

뉴비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선취해야 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근거와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두고 있다. 그는 선교의 주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들어, 그리스도의

¹⁴³⁾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61.

순종처럼 교회 역시 모든 주권과 역사의 주인 행세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을 주장한다.¹⁴⁴⁾ 그는 삼위일체의 모델 아래 교회의 선교를 해석한다. 곧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자비로서의 선교적 동기와 계획하심, 성육신을 통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현존과 실현, 세상에 하나님의 선교를 가능케 하는 선교적 동력으로서의 성령을 말하며 선교의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다.¹⁴⁵⁾

이런 선교의 삼위일체적인 관점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과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그는 성부와 성자의 선교가 교회의 삶을 통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나는 하나님의 왕권이 교회 안에 현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 안주하지 않는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의 삶 속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능력을 발휘함으로 인한 교회의 자기선전이 아니다. 그와 같은 서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교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재가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능동적인 선교의 동력은 교회를 앞서서 다스리고 인도하며 전진하는 힘, 즉 하나님의 영의 자유로운 주권적이고 살아 있는 능력이다. 선교는 단순히 교회가 행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선교는 자신의 증인이 되어 세상과 교회 모두를 변화시키고 언제나 자신의 선교 여행에 교회를 앞서 나아가는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그 무엇이다. 교회가 선교를 기반으로 하여 시작된다는 것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령의

¹⁴⁴⁾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27.

¹⁴⁵⁾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28.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였다.¹⁴⁶⁾

이러한 선교의 동력인 성령의 선교적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행 10:1-11:8)을 예로 들어서 성령의 주권적인 활동을 강조한다. 그는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의 사건을 회심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고, 베드로와 교회의 회심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 즉 고넬료와 그의 집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이들이 경험하였던 성령 충만의 동일한 경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베드로의 개인적 사고와 가치관을 넘어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친교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게 됨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선교를 잘 드러낸 사건으로 본다. 즉 성령은 교회의 모든 선교에 앞서가는 증인인 것이다.¹⁴⁷⁾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의 시작이 스스로의 활동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선교를 주관하며 다스리는 자세가 아니라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성령의 능력으로 적극적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¹⁴⁶⁾ Les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The Open Secret)*,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77-80.

¹⁴⁷⁾ Lesslie Newbigin, *선교신학개요(The Open Secret)*,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80-82.

뉴비긴은 선교를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선포와 아들의 삶을 나눔과 성령의 증거를 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⁴⁸⁾ 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요 20:20-21)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왕국의 선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증언이라는 삼위일체적인 관점을 피력하였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는 뉴비긴의 세 가지 접근법은 삼위일체적 존재에 근거한다. 교회가 그 본질인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고 복음의 통전성을 왜곡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문화를 변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

뉴비긴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세상에 파송 받은 공동체이며,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주장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동적으로 감당해 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남는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선교적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할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 위해 뉴비긴은 복음의

¹⁴⁸⁾ Lesslie Newbigin, *The Household of God Lectures on the Nature of the church*, 120.

담지자로서의 교회가 선포하며 삶으로 증언해야 할 복음에 대한 선교적 정의를 내린다. 진리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며 특별히 ‘공공의 진리’(public truth)로서 복음을 새롭게 언급한다. 곧 복음은 모두를 위한 진리라는 것이다. 복음이 개인구원으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하여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의 선포를 주장하며 ‘공적 신학’(a public theology)을 강조하였다.¹⁴⁹⁾ 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의 선포는 개인과 가족적인 삶의 선포로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인간 사회가 인지해야 할 진리로서의 복음의 선포를 의미한다.¹⁵⁰⁾

그렇다면,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의 선포를 실현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첫째, 선교의 근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두면서 말씀과 행위뿐만 아니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선교적 활동으로서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를 말한다.¹⁵¹⁾ 교회가 사회적 약자, 굶주린 자, 병자,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사랑의 선교를 할 때 복음을 충실하게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¹⁴⁹⁾ Lesslie Newbigin,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The Gospel as Public Truth)*, 김기현 역, 서울 SFC출판부, 2008. 7.

¹⁵⁰⁾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191.

¹⁵¹⁾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What is the church)*, 홍병룡 역, 197.

주장한다.¹⁵²⁾ 즉 교회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립구조를 피하고,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교인들이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¹⁵³⁾

둘째, 지역교회의 회중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말한다. 공적 진리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실재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회 스스로가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단위로 지역회중을 소개하며, 세상을 위한 기록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새로운 사회의 질서가 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¹⁵⁴⁾

뉴비긴에 의하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회중들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소명에 충실한 교회 공동체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직의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의 율타리 안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세상 속에서 공적인 삶을 위함에 있다”¹⁵⁵⁾고

¹⁵²⁾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58.

¹⁵³⁾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259-263.

¹⁵⁴⁾ Lesslie Newbigin,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The Gospel as Public Truth)*, 김기현 역, 73.

¹⁵⁵⁾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423-426.

말하였다. 이러한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이웃을 보살피는 선교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즉 세상 속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교회는 지역 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를 의미한다.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는 복음의 선포와 선한 행함의 사회적 활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회중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뉴비긴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지원하고 감당해야 할 책임을 소개하며 두 가지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첫째, 목회사역에 있어 양육과 훈련의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양육과 훈련이 교인들의 영적성장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신앙에 비추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사역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참여와 신앙적 책임을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목회사역이 되어야 한다.¹⁵⁶⁾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에 대한 확밀적 사고에 관한 전환이 필요하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바울의 몸에 대한 강론을 예로 들며 몸이 특정 부분으로서

¹⁵⁶⁾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426.

이루어질 수 없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듯이 교회가 지체들의 은사도 다양함을 인정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 교회의 안과 밖으로 균형 잡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참여에 대한 목회적 방향이 함께 할 때 교회의 지체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¹⁵⁷⁾

요약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교회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복음의 담지자로 부름 받은 공동체로 본다. 또한 교회를 종말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잠시 세상에 경유하는 공동체로 인식하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진리로서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삶과 사회적 참여를 통하여 살아가는 선교적인 총체적 삶을 주장한다.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역동성과 생명력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증언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있는 교회의 목회사역의 비전이 교회 공동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회중들이 제사장이 되어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¹⁵⁷⁾ Lesslie Newbig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427.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목회자 중심의 사역과 구조가 아닌 평신도와 함께 하는 사역과 교회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뉴비긴의 교회론은 선교와 일치, 사고와 행동, 성취와 기대로 표현된다.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순례하는 백성이다. 교회의 본질은 결코 정적인 용어가 아니라 동적인 용어로 즉,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정의된다. 교회가 하나되기를 그치거나 선교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교회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공적진리로서의 복음을 선포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는 적극적인 참여를 이루어가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지역사회와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뉴비긴의 선교적 교회론이 하나님의 선교로서 말씀과 실천, 개인구원과 사회 봉사가 통합된 통전적 교회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3. 크레이그 밴 겔더(Crag Van Gelder)의 선교적 교회론

크레이그 밴 겔더는 선교적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초기부터 관여했고,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학자로, 북미의 교회들은 북미와 캐나다의 역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보았다. 밴 겔더는 특히 20세기에 현대적 과제에 대한 변형들이 시작되었고, 또 그것들에 대해 지성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들이 있었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복미의 교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밴 겔더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지역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탐구하였다.¹⁵⁸⁾ 밴 겔더는 선교적 교회론을 언급함에 있어서 성서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상황에 따라 해석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하기 위한 성령의 활동과 사역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가져 한다."¹⁵⁹⁾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의 해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교회를 이해하는 핵심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다.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대한 통찰력은 문화적 환경에 판독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성경적 본질이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¹⁵⁸⁾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서울 CLC, 2015, 65.

¹⁵⁹⁾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67.

벤 젤더의 선교적 교회론은 이러한 균형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해되며, 내재적으로 선교적 교회임을 주장하였다. 벤젤더는 교회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어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는 관점과 '조직 구조적 관점'보다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교회는 그 생활과 사역을 위해서 우연히 어떤 별개의 위임을 가지는 평범한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통해 변화되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것이며,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는 삶의 양식들에 관한 것이므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과 조직을 정의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본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는 교회의 독특한 본질은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행하신 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⁶⁰⁾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의 실재를 증명하고 거기에 참여해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게 한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21-22장은 하나님의 미래 의지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네

¹⁶⁰⁾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서울 배다니출판사, 2003, 43-44.

개의 장은 성경의 다른 나머지 부분,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의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화해의 선교를 행하고 계신다.¹⁶¹⁾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한다(고후5:18-19).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완성을 고대하면서 모든 것과 화해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이자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의미하는데, 이런 관계회복이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며 그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양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다.¹⁶²⁾ 이러한 재창조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계시는지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창조 계획과 관련시킨다. 교회는 모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전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¹⁶³⁾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선교적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선교의 본질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을 통해 교회의 사역이 규정되고,

¹⁶¹⁾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203.

¹⁶²⁾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204.

¹⁶³⁾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139.

교회의 사역이 교회의 조직을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 밴겔더는 선교를 교회의 기능이 아닌 본성에 관련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선교적 교회에서 회중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삶에 충실해야 한다.

밴 겔더는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업처럼 세상에 존재한다.”¹⁶⁴⁾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부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성령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한 교회는 하나의 사회적 조직이면서 동시에 영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교회의 본질에는 이원적 특성이 있는데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현존이시기에 교회는 하나의 독특한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인간이 만든 구조 속에서 형성된 행위에 의해 움직여지기에 일정한 사회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사역 안에서 성령에 의해 능력을 얻는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특성이다.¹⁶⁵⁾

밴 겔더는 선교는 교회의 본질 안에 내재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선교사라는 믿음과 함께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선교 성격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표현되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셨고 인간을

¹⁶⁴⁾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150.

¹⁶⁵⁾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44-45.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선교적 성격은 다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표현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의해 잃어버린 모든 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다. 하나님의 선교적 성격은 또한 종말의 활동을 통해 표현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새로운 완전과 완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다.¹⁶⁶⁾

이러한 점에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이다. 즉 교회의 선교적사명은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 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성자의 구원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선교는 교회의 기능 중 하나에서 교회의 핵심적 본질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따라서 교회와 선교는 서로 다른 두 실체가 아니다.¹⁶⁷⁾ 즉 교회와 선교는 공통의 개념 속에서 합병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교회론과 선교학은 별도의 신학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 보충적이어야 한다. 밴 겔더는 이것이 곧 '선교학적 교회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⁶⁸⁾

¹⁶⁶⁾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52-53.

¹⁶⁷⁾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53.

¹⁶⁸⁾ 문성철, *크레이그 밴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09, 4.

선교는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선교적 성격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표현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세상으로 파송하셨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 하나님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땅 끝의 모든 족속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¹⁶⁹⁾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 교회이다.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의 구원 사역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라는 위치에서 교회의 핵심적 본질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교회와 선교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개념은 하나로 합쳐질 필요가 있다. 교회와 선교가 각각 분리된 신학의 분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은 상호관계 속에 있으며,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¹⁷⁰⁾ 교회를 본질상 선교적인 것으로

¹⁶⁹⁾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54.

¹⁷⁰⁾ Craig Van Gelder, *선교하는 교회 만들기(The Essence Of The Church)*, 최동규 역, 55.

이해하는 것은 선교에 관한 보다 통전적인 사고방식을 제공한다.¹⁷¹⁾ 성령에 의해 창조된 교회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데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충만한 능력이 이미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벤 겔더의 선교적인 교회론의 핵심은 삼위하나님은 창조, 재창조, 종말을 통한 마지막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역동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 즉 성자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교적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규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에 근거하고 있다.”¹⁷²⁾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전략에 의해 교회가 교회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선교가 주가 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과도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 선교적 과업은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¹⁷¹⁾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69.

¹⁷²⁾ 문성철, *크레이그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5.

이에 따라서 교회의 본성 사역조직이 결정된다. 즉 선교사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선교사적인 교회가 되어야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¹⁷³⁾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거룩하면서도 인간적이고, 영적이면서도 사회적이고, 우주적이면서도 지역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상황적이고, 하나이면서도 여럿이고,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다양한 것으로 이해하게 만든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충실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사도적으로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즉 교회는 세상 속으로 보냄 받았는데 그 본질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으며,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핵심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창조된 것이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존재는 선교적 조건 속에서 이뤄진다. 즉 교회가 본성적으로 선교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부르시고 창조하시고 보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가 인간역사에 개입했음을 알리는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¹⁷⁴⁾

벤 겔더는 선교를 교회성장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보는 지금까지의 이해에 반대하며, 선교가 교회의 본질임을 제시한다. 동시에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강조한다.

¹⁷³⁾ 문성철, *크레이그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6.

¹⁷⁴⁾ 문성철, *크레이그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 7.

이러한 밴 겔더의 관점에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가 선교의 본질이라면, 선교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 나라이다. 밴 겔더는 복음이 갖는 영적이면서 개인적인 차원을 유지하면서도 복음의 본질인 공공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이해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이것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고, 지금 이 곳이 아니라 사후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밴 겔더가 볼 때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선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실현해 가고,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선교의 가장 적절한 예이다.¹⁷⁵⁾ 이런 맥락에서 그는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밴 겔더는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1.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상황성을 추구하기에 상황을 읽는 법을 배운다. 교회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선교에 신실하게 헌신하고 효과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2.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기대한다. 교회들이 선교하는 가운데 복음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관련됨에 따라 교회들은 복음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안목을 기대한다.

¹⁷⁵⁾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서울 CLC, 2015, 116.

3.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상호 관계를 기대한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께서 유대인 베드로의 이해와 고넬료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장을 연 부분이 좋은 예다.

4.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자신들이 상황적이기에, 따라서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5.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언제나 상황적이고, 따라서 실천적이라고 이해한다.

6.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신학함이 항상 상황적이고, 따라서 관점적이라고 이해한다. 관점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이해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처한 특정한 사람들의 이해라는 것이다.

7. 성령에 이끌리는 선교적 교회들은 조직이 항상 상황적이고, 따라서 일시적임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 하나의 표준화된 교회의 정치 형태란 없다. 같은 교파 안에서도 조직은 지역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갖는다.¹⁷⁶⁾

그는 교회는 성경적이며 사도적이며 역사적이며 상황적이며 종말론적이며

실천적이며 발전적이라고 이해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접하게 되면, 성령이 교회를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뱀 겔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형성과

개혁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¹⁷⁷⁾고 말하였다.

교회가 새롭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선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상황에

적합한 선교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¹⁷⁶⁾ 김은수 외 15명,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10.

¹⁷⁷⁾ Craig Van Gelder,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151.

선교적이어야 한다. 상황은 때로는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듯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빠른 물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기에 교회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언제나 선교적이어야 한다.

반면에 정체성을 지킨다는 면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고백적이어야 한다. 상황에 무관하게 고백적인 측면만을 추구하면 교회는 화석화 되기 쉽고,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만을 좇다가는 교회는 상황만 대처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쉽다.

벤 겔더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는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개혁되는 과정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은 타문화 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지역 교회 목회에 적용한 국내 선교학의 방향을 제시한 이론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선교적 환경이 점점 더 타문화 사역의 환경과 비슷해지는 상황에서 타문화 사역의 원리와 방법론이 더 많이 도입되고 적용 되어져야 한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면에서 선교적 교회론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선교학의 원리가 이제는 국내와 해외로 나누지 않고 통합되어 국내외 사역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다만, 서구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을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용하고, 건전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문화 상황,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한 진지하고도 밀도 높은 분석부터 해야 할 것이다.

벤 겔더가 북미 상황에서 접근한 방식을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지형에 대한 연구로부터 그러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은 타 문화선교의 원리와 방법을 지역교회 목회에 적용을 통한 한국 내 선교학의 방향을 제시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선교적 교회론은 21세기 북미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선교적 이론이다.

그의 선교적 교회론은 성경신학적,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이 잘 조화되어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벤 겔더의 선교적 교회론을 한국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욱 성경적이면서도 문화적으로 민감한 능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서 세계 곳곳의 교회들도 이러한 선교학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지역 복음화를 시도할 때 더욱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A. Snyder)의 선교적 교회론

하워드 스나이더의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전학적으로 선교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로 인해 현존하게 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이 모든 교회론의 출발점이다.”¹⁷⁸⁾ 라는 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어 스나이더는 “가장 깊은 차원에서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비록 때때로 선교가 실제로 억눌린 때가 있었지만, 선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DNA 안에 있다.”¹⁷⁹⁾ 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선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적 DNA를 반영하기에 교회의 DNA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¹⁸⁰⁾ 라고 강조하였다. 스나이더의 교회론의 근거는 삼위일체론적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의에 동의하는 다른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가들과 일맥상통한다.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과 백성을 보내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 선교 행위가 선교적 교회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

¹⁷⁸⁾ Howard A. Snyder,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68.

¹⁷⁹⁾ Howard A. Snyder,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68.

¹⁸⁰⁾ Howard A. Snyder,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78.

교회를 위한 실천적인 적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그는 구체적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교회의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의 선교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예배와 선교를 그리스도의 몸의 중추 신경계라고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삶과 존재가 이러한 중심적인 열정과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개념과 행위 둘 다에서, 교회 생활은 유기체적이고 선교적인 은유들에 근거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살아있는 사회적·은사적 유기체다. 교회는 살아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중심 이미지들은 몸, 신부, 가족, 포도나무와 가지들과 같이 모두 유기체적이고 생태적이다. ... 교회를 유기체적으로 생각하면,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3. 활력 있는 교회들은 예배와 친교와 증거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한다. 이 세가지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그것들은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한다. ... 우리가 본 매우 활력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는 모두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4. 리더십의 중심 과제는 사도적 공동체, 즉 사역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기독교 리더십은 은사적이며(영적 은사들에 근거하여; 엡 4:7-16),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마음'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각 교인이 그 몸 안에서 생기 있는 위치를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온 몸이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한다(엡 4:11-16).
5. 활력 있는 교회들은 대항 문화적인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한다. '선교적 소수'로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대항 문화를 이룬다. ... 건강한 교회들은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사이의 활력적인 균형을 유지한다. 이러한 교회들은 독특한 사회적 정체성과 변혁적인 사회참여 사이의 창조적인 긴장을 유지한다.¹⁸¹⁾

스나이더는 질문하였다. "선교에 맞는 기능을 가진 회중의 형태는

¹⁸¹⁾ Howard A. Snyder,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132-137.

무엇이어야 하는가?"¹⁸²⁾ 이 질문은 선교적 교회로 전환 또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다. 위에 제시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원리들을 각 지역교회에 적합하게 적용한다면, 선교적 교회를 성장하는데 충분한 영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대럴 구더(Darrell L. Guder)의 선교적 교회론

대럴 구더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며,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즉 구더가 말하는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적인 두 단어는 '선교'와 '회심'이다. 구더는 확산주의 방식에 따른 선교는 진정한 선교가 아님을 강조한다. 먼저 그는 특히 '기독교 제국'의 강압에 의한 확산 방식의 선교를 비판하였다. 과거, 서로마 제국 황제인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the Great)는 유럽의 점령과정에 있어서 변방에 있는 부족들을 점령한 다음에 강제로 세례를 베풀었다. 억지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이다.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 이후 중세 천년 동안,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선교를 다루지 않았다. 이 기간에 실행된 기독교 선교는 기독교 제국의 문화를 외적으로 팽창시키는 '확산'에 불과했다. "비록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러한 선교는 대부분

¹⁸²⁾ Howard A. Snyder,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140.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¹⁸³⁾고 말하였다. 두 번째로, 19세기에 등장한 단어인 복음전도에 관하여 구더는 선교’의 의미 확장임과 동시에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선교 즉, 복음전도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명령을 따라 세상에 파송된 존재로 보며,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보았다. “교회는 사람과 나라를 회개시키고, 죄의 용서를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복음 전도의 사명은 더욱 새롭고 긴급한 것이다.”¹⁸⁴⁾라고 정의하였다.

구더에 의하면 서구 교회들의 계속적인 임무는 기독교적으로 바뀐 세계 안에서 교회의 사명으로써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확산시킴으로 기독교 세계의 경계를 확장하며,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리와 통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그 시대의 교회들로 하여금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진다. 하나는 비서구 문화 속에서 팽창 위주의 선교에 주력하는 양상이고, 또 하나는 세속주의로 야기된 기성교회들의 새로운 도전이다.

¹⁸³⁾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서울 미션틀, 2005, 38.

¹⁸⁴⁾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41.

이러한 도전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의 관계성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었으며, 교회들 안에 반작용을 불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복음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전도하러 나가고록 증용하게 되었다.

구더는 선교와 복음 전도를 다른 용어로 구별하지 않았으며, 선교는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기초와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이미 복음화 된 곳에서는 기독교의 명령을 준수하고, 개인적인 노력의 교회의 복음전파를 통하여, '확장'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확산이며 선교적 교회의 소명이라고 보았다.

구더는 '회심'이란 단어에 대하여 말하기에 앞서 '통제'란 단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제란 곧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죄의 본성은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로 다윗의 범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원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¹⁸⁵⁾

그는 문화와 번역에 대해서 언급한다. 복음이 선교지에 들어가면 선교지

¹⁸⁵⁾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45.

에서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문화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교회의 축소주의가 문화 제국주의와 결합하면서, 선교를 시행하는 서구와 북미의 교회가 자신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의 최고 결정체로 오판하게 되어 선교지에 자신들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했다.¹⁸⁶⁾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선교사가 복음을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는 성경적 선교의 개념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교회는 스스로를 복음화 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즉 교회들은 이러한 축소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회심을 해야함을 강조해야 하는데 강조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들 사이에 의견 차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상극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열심당원과 세리를 언급한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제자가 되고 형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육신적으로 증거하는 것의 의미는 항상 우리가 교회 내에서든 밖에서든 서로 밀고 당기는 전쟁을 치르는 당파들이 쳐놓은 전선 사이를 오간다는 뜻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선을 굿고 편을 가르는 동안, 선교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벽들을 허물고 우리와 전혀 다르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친구나 형제자매가 될 수

¹⁸⁶⁾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38.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¹⁸⁷⁾ 라고 말했다. 교회 내에서의 의견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본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회심이 중요하고, 교회는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회심이 필요하다. 회심 선교를 본질적 사명으로 갖는 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세상을 복음화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를 복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복음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회심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에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엡 4:1). 이것은 곧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선교적인 삶의 양식을 실천하라’ 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곧 교회가 해야 할 고도의 윤리적 실천이다.¹⁸⁸⁾

구더는 교회가 스스로를 복음화 하는 데 실패해 온 원인을 추적하면서 교회가 회심해야 할 몇 가지를 더 지적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잘못이 바로 ‘축소주의’이다. 먼저 축소주의는 ‘통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여기에서 통제란 곧 교회의 하나님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그것은 원죄의 본질인데, 지난

¹⁸⁷⁾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248.

¹⁸⁸⁾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180-182.

교회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문화 제국주의와 합하면서, 서구와 북미의 교회가 자신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의 최고 결정체로 오판하고, 타 지역에 선교할 때 자신의 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 선교사가 복음을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번역'해야 한다는 성경적 선교의 기본 개념을 망각하고 훼손한 것이다.¹⁸⁹⁾

교회의 축소주의는 곧 선교의 축소주의로 이어지게 된다. 교회사에 있어서 복음은 개인 구원으로 한정되어져 왔고,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선교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구원에만 한하여 선교가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다. 교회가 지난 교회사에서 복음의 내용을 개인 구원으로 한정하고, 온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간과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의 축소는 '선교의 축소'로 나타났다. 곧 복음을 오직 내세적이고 천상적이며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오해하게 되면서, 선교 역시 결신자를 확보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차원으로 소됨으로써,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이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이처럼 교회가 축소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복음과 선교를 축소시키면서, 교회는 예수님을 구세주(Savior)로는 인정하지만

¹⁸⁹⁾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180-183.

실제의 삶에서 주(Lord)로는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삶의 자리에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는 그 본질적 사명인 선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도의 윤리를 망각하고 스스로를 복음화 하는 데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회심해야 할 내용이다.

그런데 구더가 '지속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체의 복음화와 이를 위한 축소주의의 극복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임을 의미한다.¹⁹⁰⁾

구더는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에 대한 선교적 이해로부터 유추해낸다. 그는 요한복음 20:21에 근거하여 세상을 향한,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활동을 '보내심'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선교사 하나님(Missionary God)'으로 이해한다.¹⁹¹⁾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와 같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내시는 선교, 즉 하나님이 선교는 교회를 하나님의

¹⁹⁰⁾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184.

¹⁹¹⁾ Darrell L. Guder, ed.,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30.

선교의 도구로 이해하게 한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이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선교를 실행하신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을 받는다. 선교는 그 원래 의미처럼 본질적으로 파송인 것이다. 구더는 지난 세월 복음주의의 선교론과 교회론이 하나님의 선교를 간과한 것에 대해 반성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처럼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해서, 선교가 교회에 대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것이다.¹⁹²⁾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갖는 사역으로써 복음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로 설명한다.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방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으며 교회는 증인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활동, 목적, 약속 그리고 신실함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한다. 구더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행하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주제로 나아가야 한다."¹⁹³⁾고 주장하였다. 그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으며 교회는 증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활동 목적과 약속과 그리고 신실함에

¹⁹²⁾ Darrell L. Guder, ed.,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정승현 역, 31.

¹⁹³⁾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54.

대하여 심사 숙고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더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이루는 교회라고 말하였다. 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기 스스로도 계속적으로 회심의 변화를 가져야 하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더의 선교적 교회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음의 증인으로서 회중 중심의 교회론이다. 구더는 회중을 선교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이 선교공동체는 단순히 조직적인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증인으로 부름 받은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복음의 증인인 회중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올바르게 수행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계속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가 계속적으로 회심을 경험한 회중 중심의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신도 스스로

내적으로 복음화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변화될 것이다. 둘째, 구더는 성육신적 교회론을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며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를 만드시고 파송하시기에 교회는 성육신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구더에 의하면 선교에 대한 성육신적 이해는 지역이든, 국가적이든, 국제적이든 간에 우리가 선교 제도로써 기능하는 방법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북미 교파의 기성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구조 속에 있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역단체나 선교 단체 조직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과 선교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근본적인 명령에 직면하게 된다.¹⁹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육신적 공동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구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그 공동체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 파송의 본질이 바로 성육신적 파송이라는 것이다. 성육신적 파송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다. 따라서 구더는 선교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든 흩어지든 간에 계속적인 회심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¹⁹⁴⁾ Darrell L. Guder,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318.

되려고 한다면 교회공동체는 성육신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¹⁹⁵⁾ 고 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이 세상에, 지역사회에 드러내는 표적, 전조, 대리자, 도구다. 선교적 교회는 공동체, 하나님의 종,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통전적 교회론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특정한 한 곳에 머물거나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차원에서 구더는 복음의 통전적 교회론을 주장하였다. 구더는 복음의 통전적 의미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시키고 있다. 선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맞추어야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의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회 스스로 계속적인 회심을 경험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구더는 교회가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 안에 계속적인 회심이 이루어지는 성육신적인 공동체의 삶의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구더의 선교적 교회론은 갈수록 개인화 되고 개교회의 특성이 강한 한국교회에 교회가 진정 무엇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선교적 교회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 성도들의 계속적인 회심을 중요하게

¹⁹⁵⁾ Darrell L. Guder, ed., *선교적 교회 북미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정승현 역, 145.

생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 GOCN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의 선교적 교회론

GOCN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크레이그 밴 겔더(Crag Van Gelder), 대럴 구더(Darrell L. Guder), 앨런 록스버러(Alan J. Roxburgh), 조지 헌스버거(George R. Hunsberger)등이 있다.

위의 학자들은 앞서 말한 대로 크리스텐덤에서 형성된 전통적인 교회론이 선교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교회가 여전히 크리스텐덤의 사고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서구 사회와 대화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해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⁹⁶⁾

캐나다 알렐론 미셔널 리더십 네트워크 대표인 앨런 록스버러(Alan J. Roxburgh)와 국제 터치 사역 본부의 연구 개발 팀장인 스코트 보렌(M. Scott Borren)은 그의 책에서 세가지 주제를 통하여 선교적 삶으로 들어가도록 도울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첫째는 상황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다. 복음전도와 선교의 근거지였던

¹⁹⁶⁾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GOCN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미션아카데미, 2011, 37

서구사회에 교회가 몰락하고,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라는 것이다. 복음, 상황, 그리고 교회를 봤을 때, 선교적 교회는 먼저 복음과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교회로 이동한다. 선교적이 된다는 것은 설교를 잘하는 교회를 의미하거나 그러한 교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¹⁹⁷⁾

마이클 프로스트(Michael Frost)와 앨런 허쉬(Alan Hirsh)는 GOCN의 선교적 교회론 위에 “선교적 교회는 교회론의 측면에서 사람들을 끌어 모으려 하지 않고 성육신적이고, 영성의 측면에서 이원론적이 아니라 메시아적이고, 리더십 형태의 측면에서 계급적이기 보다는 사도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고 말하면서 세 가지의 포괄적 원리를 제시하였다.¹⁹⁸⁾

GOCN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함에 있다.

¹⁹⁷⁾ Alan J. Roxburgh & M. Scott Borren, *선교적 교회입문(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이후천, 황병배, 이은주 공역, 고양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4, 94-95

¹⁹⁸⁾ Alan J. Roxburgh & M. Scott Borren, *선교적 교회입문 (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이후천, 황병배, 이은주 공역, 117.

첫째, 선교적 교회론은 성경적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증언이며 그분의 선교에 도구와 증인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사람을 양성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론은 현장적이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응답하며 조직되어간다. 셋째, 선교적 교회론은 역사적이다. 역사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발견해 나간다. 넷째, 선교적 교회론은 종말론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간다.¹⁹⁹⁾

E. 선교적 교회의 특성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선교신학자인 최동규는 선교적 교회의 12가지 지표를 소개하고 있다.

- ①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 ②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배움에 참여하는

¹⁹⁹⁾ Darrell L. Guder, *선교적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정승현 역, 38-39.

공동체이다.

- ③ 성경은 선교적 교회의 삶에서 규범적인 역할을 한다.
- ④ 선교적 교회는 주님의 삶, 죽음,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을 세상과 다른 집단으로 생각한다.
- 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선교적 소명을 식별하려고 노력한다.
- ⑥ 선교적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 행동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 ⑦ 그것은 화해를 실천하는 방식에 의해 드러난다.
- ⑧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 ⑨ 선교적 교회는 환대를 실천한다.
- ⑩ 선교적 교회의 예배는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경축하는 핵심적 행위이다.
- ⑪ 선교적 교회는 생생한 공적 증거를 행한다.
- ⑫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불완전한 표현임을 인정한다.²⁰⁰⁾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선교적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점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에 대한 확신뿐만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이다.

선교신학자인 정승현은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세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 교회의 본질을 추구한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²⁰⁰⁾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180.

모색하기 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한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를 많이 하기 위해서나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학자 앨런 룩스버그와 스콧 보렌이 있다. 이 두 학자는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모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선교적 교회는 타문화 선교사역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아니다.
- ② 선교적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 ③ 선교적 교회는 교회성장과 교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 ④ 선교적 교회는 복음 전도에 효율적인 교회가 아니다.
- 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제시하는 선교와 비전 선언문이 아니다.
- ⑥ 선교적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비효율적인 교회 형태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다.
- ⑦ 선교적 교회는 고대 교회로 돌아가려는 운동이 아니다.
- ⑧ 선교적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²⁰¹⁾

즉, "선교는 어떠한 행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널리 퍼지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부른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위해 부름 받은 새로운

²⁰¹⁾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183.

이스라엘이다.”²³¹⁾ 라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의 선교적 교회론을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

첫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통전적인 선교를 추구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는 교회는 개인구원과 복음전도라는 좁은 선교의 지평을 넘어 하나님의 선교를 선교의 신학적 기초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선교활동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의 참여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 받은 공동체이다.

선교신학자인 한국일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창조세계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선교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언급하였다.²⁰²⁾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과 생명을 위해 부름을 받아 세상 가운데 파송된 존재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뿐만 아니라

²³¹⁾ Alan J. Roxbidge & Scott M. Boren, *Introduction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2009, 31.

²⁰²⁾ 김은수 외 15명,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361.

세상에도 있음을 깨달아, 개인의 회심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며, 그 삶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자리에서 교회의 공적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구성원의 계속적인 선교적 회심이 뒤따라야 하며, 그 삶을 세상과 함께 나누어 가야 한다.

둘째,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의 선교를 통한 통전적인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구원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²⁰³⁾ 선교적 교회에서 보면, 세상은 늘 분리시키거나 탈출해야 할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파송받은 선교현장이다. 개인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요 3:16)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뉴비긴은 개인의 영혼구원이 개신교 선교사상을 지배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신약성경의 중심을 차지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선교논리의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²⁰³⁾ Lesslie Newbigin,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237.

개인중심적인 구원론을 극복하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구원이 되기 위해 개인과 교회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단초를 제시한다.²⁰⁴⁾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사건을 개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자 최종적인 목표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온전케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⁵⁾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구원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행하신 전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사건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구원의 성경적 의미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을 위해서가 개인의 구원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사건과 만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인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으로 전환하면 구원받은 개인의 그 관심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으로부터 개인의 세계에 몰입해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에 마음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의 관심사가 개인의 관심사가 된다. 이것이

²⁰⁴⁾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62.

²⁰⁵⁾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31.

신앙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세계관이다.²⁰⁶⁾ 이것을 통해 편협하고 왜곡된 개인주의적
구원론은 극복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선교적 사명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셋째, 선교적 교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파송되었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크리스텐덤의 유산인 성직자 중심의 교회 안의 계층구조는 오늘의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진 다양한 은사에 따라 교회 안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은 동역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계층구조를 폐지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²⁰⁷⁾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직분의 이유와 목적은 성도를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동급으로 나타난다. 봉사의 일은 어떤 특정 직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의 일을

²⁰⁶⁾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63.

²⁰⁷⁾ Darrell L. Guder,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San Francisco
Wiley, 2006, 185.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의미는 교회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즉 교회를 위해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히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이 목회자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교회 안에 성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지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목회자는 성도를 단지 교인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안에 파송 하는 선교적 목회리더십을 가져야 한다.²⁰⁸⁾ 또한 선교의 본질에 있어 성도의 역할을 중요하다. 성도들은 흩어지는 교회로써 세상에 파송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성경에 기록된 교회를 향한 모든 약속과 말씀, 명령은 일차적으로 모든 성도를 향한 내용이다. 교회의 직분은 모든 성도들에게

²⁰⁸⁾ Darrell L. Guder,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183-220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제도이다.²⁰⁹⁾ 전통적으로 교회는 목사와 평신도를 구분하고 평신도를 목회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이해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교회는 성도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목회자는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기 위해 세워진 직책이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봉사의 일을 위해 기능적으로 세워진 것이며 평신도와 목회자는 각각 주어진 은사와 사명에 따라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 교회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 통일성을 위해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별 없이 각자의 은사대로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성도가 교회를 위해 존재해 왔다면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넷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성장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지역의 상황화에 관심을 갖는 교회이다. 교회의 본질은 성장이 아니라 선교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에 목적을 두는 교회이다. 이것은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활동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선교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성장론과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집단에서 선교적 교회론을

²⁰⁹⁾ John Robert Walmsley Stott. *살아있는 교회(The living church convictions of a lifelong pastor)*,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83-88.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대안 모델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GOCN과 비교할 때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주로 교회성장의 맥락에서 전개하는 접근방식이며 에드 스테처와

같은 교회 개척 연구자에게서 발견된다. 스테처는 교회성장론을 선교적

교회론이 배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교회 성장론은 잃은 자를 주목하고,

건강한 교회론은 교회의 통전적인 구조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스테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은 표를 통해 보여준다.

<표-1> 교회성장과 교회건강과 선교적 교회의 비교분석²¹⁰⁾

교회성장 (church growth)	교회건강 (church health)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초청자로서의 교인	목회자로서의 교인	선교사로서의 교인
회심 / 세례	제자도	선교적 삶
전략적 계획	성장 프로그램	사람을 세움
스텝진 주도	팀 리더십	개인적 선교
계획 중심적	공동체 중심적	공동체 변화
집회	훈련	해방
증가	내적 그룹 배가	교회 개척 배가
단일성	다양성	조화
인간 중심적	교회 중심적	신 중심적
선교대명령(마 28:19-21)	대계명(마 22:27, 39)	하나님의 선교 (Mission Dei)

²¹⁰⁾ Stetzer, E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Nashville, TN roadman& Holman, 2006, 50.

위의 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 성장과 교회건강을 추구하는 교회론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패러다임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과정(processes)으로, 인구통계에서 분별(discernment)로, 모델에서 선교사역으로, 주의를 끄는 데서 성육신적으로, 단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전문적인 데서 열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서 파송하는 것으로, 결단에서 제자들로, 첨가하는 데서 기하급수적으로, 기념비적인 업적에서 운동(movement)으로 이동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한다.²¹¹⁾ 왜냐하면 교회성장론이 1960년대초 선교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잃은 자에 대한 사역에 몰두함으로 인해 선교보다는 지나치게 프로그램이나 방법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준 대로 하면 교회성장장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하였지만 그 결과가 미비하게 나타나게 되자 교회성장론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 릭 워렌(Rick Warren)이나 빌 하이벨스(Bill Hybels), 스티브 쇼그렌(Steve Sjogren) 목사 등과 같이 작은 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시킨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바로 이들이 컨퍼런스를 열어서 교회성장장이 아니라 핵심적인 가치와 잃은 자에 대한 열정이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²¹¹⁾ Stetzer, Ed &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50-71.

주장하기 시작했다.²¹²⁾

그러나 어떤 교회들을 성장시킨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에 적합한 하나님의 독특한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²¹³⁾ 바로 이것이 선교적 교회론의 핵심이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선호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화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스테처는 “교회 성장론과 건강한 교회론이 각기 그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새로 변화된 상황에서 선교적 코드를 읽어내기에는 부족하다.”²¹⁴⁾ 고 말하였다. 그는 “교회성장론이나 건강한 교회론이 쌓아 놓은 국내 선교의 성과를 포함하면서 지역의 문화를 읽어내고 지구적인 차원에서 땅끝까지 선교를 수행해야 한다는 선교적 교회의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었다”²¹⁵⁾고 말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준다.

²¹²⁾ Stetzer, E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46.

²¹³⁾ Stetzer, E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48..

²¹⁴⁾ Stetzer, E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50.

²¹⁵⁾ Stetzer, Ed& David Putman.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48.

선교적 교회는 교회 자신의 논리에 갇혀 고립되는 교회가 아닌 복음에 근거하여 상황 우선적인 교회이다. 즉, 선교적 상황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이다. 복음에 문화의 옷을 입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옷을 골라내는 것이 선교적 상황화라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 교회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것은 지금 교회가 그 지역에서 처해있는 상황과 지역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정황을 읽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통해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성육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좀 더 증시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성장보다는 지역의 상황화에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이다.

다섯째, 선교적 교회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 더 이상 자신을 교회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지역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여겼지, 섬김의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이 없이는 교회도 없는 것이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역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렇다면 교회는 지역사회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물트만은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와 교회가 섬겨야 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함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십자가 아래의 교회요, 십자가 그늘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연대 안에 있는 교회이며, 십자가 아래에서 고난과 함께 함으로 해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모든 회개와 해방을 기뻐하며 회개하는 자들과 해방을 받은 자들과 더불어 기쁨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¹⁶⁾ 교회가 세상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아닌 고난 받는 이들이 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교회를 세상은 원한다. 예수그리스도가 모든 차별과 편견의 장벽을 허무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세리와 죄인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²¹⁶⁾ Jurgens Moltmann, *신학의 방법과 형식(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y)*,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55.

나라를 보여주셨듯이 교회의 삶 자체가 지역사회 속에서 섬김의 자리, 섬김의 삶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과 소통하지 못할 때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을 이루고 공감을 얻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을 지역이 수용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적인 일만 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활동이나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해 나가야 한다. 물론 목적이나 그 시작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성과 요구에 대해 관심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한국일은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의미 있는 관련을 맺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고 교회 밖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역교회의 선교적 교회 원리를 여덟 가지로 제시한다.

1. 신학적 기초: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근거하여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적 신학의 통합과 균형을 이룬다.
2. 지역사회와의 관계: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인식하고 관계를 맺는다.
3. 필요성의 원칙: 지역교회는 지역사회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접촉 점으로 삼아 지역사회 안에 선교적 교회를 실현하게 된다.

4. 지역사회의 목표: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5. 선교적 교회의 동력: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6. 선교적 교회구조: 교회조직을 교회 안에 일을 행하는 내부적 구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선교적 구조로 전환한다.
7. 평신도 신학: 성도가 지역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파송 한다.
8. 목회자 리더십: 목회자의 선교적 목회 리더십²¹⁷⁾

이상의 여덟 가지 선교적 교회의 실천원리는 지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사항으로 이 원리 위에 세워져야 방향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

F. 한국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

앞에서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다른 곳이 아닌 한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²¹⁷⁾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141-150.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선교적 교회론의 출현은 잘 알려진 바대로 1980년대 후반 북미에 일단의 교회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GOCN을 구성하면서부터였다. 이들은 교회와 복음 그리고 문화라는 세 방향의 영역을 상호소통 시키려는 하나의 운동이 되어 그동안 수십의 서적과 축진 웹사이트와 관련기관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학에 기초하여 전형적인 복음주의적 신학적 경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황화에 대한 강조점이 훨씬 이전의 복음주의 경향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동시에 교회중심적인 전통적인 복음주의 진영의 선교이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존재하는 통전적 선교를 지향한다.

그러나 서구 교회와 한국교회는 그 형성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 및 특징에서 서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서구교회의 역사와 전통, 현실을 배경으로 태동된 선교적 교회론은 한국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물론 선교와 교회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역사적 발전과 그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그 개념의 불확정성과 이에 대한 성과를 현재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운동처럼 서구 교회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서 이제 막 출현한 새로운 운동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복미의 상황에서 이것이 과연 한국적 상황에서는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아직 검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더 나아가 그 이론적 근거를 실제 목회현장에 적용하려는 운동인지, 혹은 기존의 선교적 의도를 가진 지역교회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선교적 교회라 칭할 수 있는 것인지도 밝혀주어야 한다.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의 이론적인 강점에도 불구하고 교회 혹은 하나님

이 백성의 '선교적' 삶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은 삶의 일부분만 아니라 삶 전체가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단순히 전도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선교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컨텍스트 속에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doing church' 가 아닌 'being church'의 의미이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와 이웃과의 대화와 참여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 먼저 말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전도는 이미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전도유형-현존, 선포, 설득-가운데 현존의 전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선포와 설득의 방식은 전혀 무용한 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점에서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의 전략은 현실성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말로 전하는 복음이 빠진 증거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단순히 이웃에게 윤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경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의 비판을 통한 수용은 현 단계 선교의 위기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 현실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선교신학자인 임희모는 한국교회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를 회복하고 특히 지역사회선교와 선교하는 교회의 본질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선교하는 본질로 존재하지만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목양과 목회와 목민을 해야 하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회와 선교, 선교와 목회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는 지역사회 속에 존재한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적 선교적 교회론을 통해서 실천하는 임희모 교수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생명 봉사적 통전선교를 강조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중심화두는 지구화로 인한 빈익빈부익부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대한 대안적 논의, 다문화 상황과 열린 사회의 추구 등이다. 지구화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중심화두 역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라고 할 때 한국사회의 한 부분인 한국교회의 양극화 문제와 그 극복을 논의의 중심으로부터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생태적, 지구 사회적, 다문화적, 교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생명 봉사적 통전적 선교로 이해하면서 이를 전략화 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한국적 선교적 교회론을 제안하였다.²¹⁸⁾

선교적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와 사회를 구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창조하시는 지역사회로 파송 받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하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환경과 생태계 등의 고통을 느끼시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일으키신다. 선교하는 교회는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현장에 복음을 드러냄으로서 참여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 구조가 친교와 소통, 상호의존과 동등성, 민주적 협동과 참여, 섬김과 겸손을 사랑 안에서 실현한다."²¹⁹⁾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과 유기적으로 관계하시며, 근본사랑을 통하여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정의와 평화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화해와 치유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²¹⁸⁾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서울 케노시스, 2011, 46

²¹⁹⁾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47.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자기증심성과 양극화된 분열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공평의 질서로 이끄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선교적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선교에 참여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와 협동과 섬김 속에서 한국의 대형교회와 작은 미 자립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변하고 회심하여 서로 공존하고 상생함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다. 지역교회는 지역사회를 떠나서는 존재와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교회는 그 자체 존립을 위한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응답하여 선교적 교회가 됨으로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대면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선교적 과제는 일정한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도시와 농촌의 총체적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세움이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의 선교가 포함된다. 이것은 크게 말하면 우선적으로 생명살림의 민족복음화로 나타난다. 또한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집단과 계층에 대한 사회선교를 포괄한다. 특히 노령사회 혹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든 지역에서는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적 선교가 요구된다. 또한 한반도에서 민족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선교적 과제 즉 화해와 치유의 통일선교 역시 지역선교 차원에서 교회가 통전적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넓게는 지구공동체에서 그리고 좁게는 지역사회에서 환경 위기와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문명을 구하고 지역과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임희모는 하나님의 선교를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²²⁰⁾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성령론적 선교이기도 하다. 성령은 창조자이시며 생명의 영으로서 생명의 시여자이다. 또한 성령은 보혜사로서 지혜의 근원이다. 이러한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서 활동을 한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생명이 죽어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여 하 나님 나라를 만든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 주제는 생명의 구원과 치유이다.이는 생명의 필요로움을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실현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영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리적 경계와 삶의 질의 경계를 넘어서 선포하고, 섬기고, 양육한다.성령은 교회의 선교에 앞서 활동하고 교회는 성령에 순종하는 한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교는 성령론적 사고를 통하여 실현된다. 하나님과 인간 (선교사)은 성령론적 사고 가운데서 민주적 질서를 갖는다. 인간과 성령은 참여와 나눔을 갖는다. 인간의 참여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억지를 부리지 않는다. 인간의 오만이 인간을 지배하는 한 하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 밖에서 기다린다. 성령의 참여와 나눔과 섬김을 아는 인간은 성령론적 사고를 통하여 인간과 자연계와 모든 피조세계와 더불어 참여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참여와 나눔과 섬김의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선교적 삶인 것이다.²²¹⁾

²²⁰⁾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48.

²²¹⁾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51.

전통적인 교회선교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원을 영혼 구원과 육체 (인간화) 구원을 따로 강조하였지만 성령론적 통전선교는 이러한 두 구원관을 통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환경의 구원을 감행한다. 하나님의 선교를 밑바탕으로 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수행 하는 복음주의 선교의 갈등 관계를 성령 안에서 통전하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으로 복음전도와 더불어 사회봉사를 통전함으로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는 인간이 사는 삶의 곳곳에서 비인간적 사회 구조를 바꾸어 인간적 삶의 구조로 만든다. 성령론적 통전선교에서 전 세계가 복음화의 장이고, 기독교 세계와 비기독교 세계가 구별되지 않는다.²²²⁾

오늘날 지역사회는 다원적 가치와 다양한 구성원들이 거주한다. 성령론적 통전선교는 이러한 다원사회에서 다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도, 개척교회 세우기, 학원선교, 산업선교, 직장선교, 교도소선교, 장애인 선교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총체적 선교를 이룬다. 또한 성령론적 선교는 다양한 선교적 방법 즉 말씀선포, 교육, 목회, 사회적 메언적 실천, 친교, 영성 함양들을 통하여 다양성의 선교를 추진한다. 또한 성령론적 통전선교는 교회로 하여금 공적 비판을 통하여 대안 운동으로

²²²⁾ 임희모,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제31집, 32-33.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에 참여하여 공동선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²²³⁾

이러한 참여적 선교는 비기독교인 이라도 생명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지역사회에는 비기독교인, 타종교인, 타교단 기독교인, 천주교인 등이 살고 있다. 이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불어 선교를 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교회는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안적 노력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시민단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근거로 하여 생명살림에 투신하는 여러 주체들, 지자체 및 시민운동단체들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생명친화적 선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일은 한국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가 갖는 의의를 아래와 같이 10가지로 제시해 주고 있었다:

첫째,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와 달리 지역교회가 전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선교활동이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활발한 지역교회 존재와 활동이 중요하다. 70-80년대 대부분의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과정에 전도와 교회성장이론이 큰 영향을 끼쳤지만 90년대 이후에 교회성장이론이 더 이상 한국교회의 견인력을 갖지 못했다. 교회성장론 이후 한국교회를 견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다른 선교이론이 나타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 선교적 교회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것이다. 물론 선교적 교회론이

²²³⁾ 임희모,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제31집, 34.

교회성장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체이론은 아니다.

둘째, 한국의 지역교회는 성장 기간에 지역사회와 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 성장하였다. 이른바 '영혼 구원'과 '모이는 교회' 중심의 목회와 선교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보다 지역의 개 교회를 강조하는 전도방식이었다. 이러한 교회를 어떤 목회자는 "한국의 지역교회는 지역 사회에 전도는 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지역교회의 문제를 명쾌하게 지적하였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된 상태에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줄 것이다.

셋째, 현재 한국교회는 사회의 신뢰관계 조사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서 세 번째 위치를 차지한다. 교회를 향한 불신 현상은 전도가 힘들 뿐 아니라 교회를 반대하거나 심지어 모독하는 집단적 세력을 증가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지역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보기 전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의 관계를 강조하고 교회 존재 자체를 선교적으로 이해하는 선교적 교회론은 의미가 있다.

넷째, 기존의 선교는 19세기 서구교회의 배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해외 지역에 파송하는 선교사 중심의 선교관은 국내 지역교회의 선교 활동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기간과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 교회 활동은 선교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협소한 선교론에 기초하였다. 선교적 교회론은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선교지형 변화에 적합한 선교 이해를 제공한다.

다섯째, 한국의 개교회주의는 국내의 지역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에서도 그 병폐가 그대로 나타난다. 앞으로 국내의 선교에서 개교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선교적 교회의 한 유형을 개 교회 성장을 넘어서 지역복음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이론 연합과 협력 모형에서 찾을 수 있다.

여섯 째, 지역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포괄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 선교활동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선교학적 이론이 필요하다. 기존의 해외중심의 선교론이나 전도이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선교적 교회론이 추구하는 폭넓은 선교이론을 통해 지역교회들이 활동을 설명하고 지원할 수 있다.

일곱째, 현재 교회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은 자연히 목회자 중심 구조와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교회의 다양하고 폭넓은

선교 활동은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게 된다. 성도들이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을 위해 목회자 중심의 사고를 넘어서 성도의 세상(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평신도(성도)신학이 필요한데 선교적 교회론은 이런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신학적 공간이 있다.

어쨌든, 한국의 지역교회는 선교활동에서 목회자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 목회자 중심의 구조가 갖는 부정적인 면도 적지 않으나 선교적 교회론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강화함으로 교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존의 교회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목회는 주로 교회 내부적 일에 제한되어 있으나 지역사회에 문을 열고 활발하게 교류하며 활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의 영성과 리더십이 선교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즉 선교적 목회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선교적 교회의 한 분야로 선교적 리더십이 이 부분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교회가 활성화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더 이상 교회성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하고 활발한 교회의 기준은 성장이 아니라 활성화이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 소통하며 참여와 변화에 영향을 주는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열째, 지역사회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통일 후 북한 지역에 필요한 선교모델이 될 수 있다. 한기총에서 계획한 북한교회재건운동은 지역사회와 단절된 개 교회 중심이거나 교회건물을 세우는 것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전에 남한 지역에서 선교적교회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한다면 통일 후 북한 지역을 복음화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교회의 역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²²⁴⁾

이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성육화하는데는 관심을 소홀히 해 왔다. 지역을 섬긴다 해도 단순히 구제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패러다임을

²²⁴⁾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11-114.

바꾸어야 한다. 지역사회교회가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구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역사회로부터 사람들을 지역교회로 인도하는 '오는 구조' (come-structure) 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향하여 나아가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가는 구조'(go-structure),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²²⁵⁾ 그 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교회만의 교회였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 한국교회는 지역을 교회로,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를 따라야 한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주의 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 파괴적이 될 때에 그 사랑은 자기 소진을 가져오며 결국 중단하게 된다. 이는 자기만족을 위한 이타주의의 동기에서 수행한 사랑의 결과이다. 또한 사랑의 돌봄을 통해 우울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종속시키려는 사랑의 동기는 숨겨진 지배력의 작용이다. 가까운 사람에게만 머무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²²⁵⁾ 한국일,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용인: 킹덤북스, 2015, 218.

의미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면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없다”²²⁶⁾고 말하였다. 그는 교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형제자매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선교 사업은 지역상황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과제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이란 그 내부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인간들과 조직 및 기관들이 존재하는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역사회 선교는 일반적으로 유기체적, 상호의존적, 상생적, 관계적 성격을 지닌 통전적 개념을 통하여 수행할 때 한국적 선교적 교회가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²²⁶⁾ Howard A. Snyder, *Liberating the church*(참으로 해방된 교회),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179-181

IV.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에서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며 존재방식이다.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기에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소통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에 속한 교회는 그 지역과 함께 소통의 관계를 형성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A.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1. 지역의 정의와 구분

지역사회라는 용어의 학문적 개념의 근원이 되는 말은 커뮤니티(communitv)란 용어이다. 이 용어는 우리말로 지역사회로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로 번역되기도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키버(Maclver)는 지역사회를 “인간의 공동생활이 영위되는 일정한 지역, 즉 공동생활권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인접해 있으므로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생활하는 가족의 개념”²²⁷⁾ 을 지역사회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야 하고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어야 한다.”

²²⁸⁾고 말하였다. 마키버는 지역사회의 구성요소로서 동료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 등을 들고 있다. 동료의식은 인간의 공동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며, 의존의식은 물질적, 정신적 의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²²⁹⁾ 지역사회는 항상 특정한 지역, 즉 다른 지역과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성원은 그 안에서 정주함으로써 상호간에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연대의식이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공동생활의 기초가 된다. 공동생활의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공통의 습관, 전통, 사회적 관념 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생활양식은 그들이 함께 살아갈 요소이자 곧 문화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의 개념은 사회변화와 함께 역사성을 갖고 변화하여 왔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윌리엄스(Williams)에 따르면 커뮤니티라는 용어는 서구에서는 14세기부터 영어권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원래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일반시민을 의미하였다. 16세기에는 공통 요소를 지닌 어떤

²²⁷⁾ Edward G. Olson, *학교와 지역사회 (School and Community)*, 김은우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3, 64.

²²⁸⁾ Edward G. Olson, *학교와 지역사회 (School and Community)*, 김은우 역, 65.

²²⁹⁾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3, 22.

특성을 의미하거나 국가와 대비되는 시민사회를 의미하기도 하였다. 산업화가 진행된 19세기 이후에는 더욱 광범위하고 복잡한 산업사회와 대비되는 전통사회의 지역성을 의미하였다. 이후 캐나다 사회학자인 로스(Murray G. Ross)는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와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의 두 유형으로 구분했다.

첫째, 지리적 지역사회는 한 지역을 구성하는 사람들과 조직들의 지리적 분포라는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집단에 적용된다.²³⁰⁾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을 포함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가까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locational'이라고 부르는 것이 지역적인

지역사회이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인해 인구가동이 심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이러한 개념은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읍이나 시 같은 큰 단위의 지역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지역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단위의 지역사회는 보다 작은 여러 지역사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집단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둘째, 기능적 지역사회는 동일한 관심을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이념, 취미, 학연, 지연 종교들 공동의 관심과 기능을 함께 하는

²³⁰⁾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고양 공동체, 2006, 5.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²³¹⁾ 공동체는 합의성, 일체감, 공동생활양식 및 가치, 그리고 공동노력이 강조된다. 정당, 교회, 또는 전문적 단체 등이 그 예이다.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특정주제에 관한 관심이 지역사회를 형성케 하고 유지케 한다.

20세기 들어와 지역사회의 개념은 대체로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언급되었는데 다소 모호하고 가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 전통적 의미의 지리적인 지역의 의미가 무너지고 있다. 사이버공동체, 네트워크 공동체 등 다양한 관심사와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구촌의 형성으로 광의의 지역사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의미는 지리적 특성을 넘어 기능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의미가 변화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사회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가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내재화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보호와 안전장치가 되어주며 필요한 기회와 자원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역사회의 개념이 많이 변해 가지만, 지역사회는 여전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²³¹⁾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27.

2. 지역사회의 기능

지역사회란 사람들이 단순히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한 상호작용, 즉 서로의 생활과 생활, 행동과 행동을 나누면서 생활하는 공동체이다.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의 사회화를 포함한 인간생활에 필요한 자원이 생산과 분배 그리고 그 외 인간의 욕구충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미국의 사회학자 워렌(Warren)은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면 자신들의 생활을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사회구조와 사회적 기능(social function)을 발전시킨다”²³²⁾ 고 하였다.

워렌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보충해서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말하였다.²³³⁾

생산(Production)은 필요한 자원을 얻고 재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²³²⁾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28.

²³³⁾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29.

사람들이 이를 위해 일(work)을 하도록 동기를 지워주고, 그 일을 나누어 맡아
해나가는 분업을 마련하는 것이다. 분배(distribution)는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갓도록 하는가를 규정해주는 사회보장적 기능이다. 각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생산을 하면 그것을 나누어 가져야 일한 보람이 있기 때문이다. 생산의 분배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나 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consumption)는 인간이
욕구충족을 위해 생산 분배한 재화와 용역을 소모하고 이용하는 과정이다. 인간의
물질에 대한 욕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욕구충족 이상의 것으로서 사회가 조성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광고, 신용카드 등이 소비를
자극한다. 둘째,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은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그리고 행동양태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사회화는 사람들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그 사회의 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과정을 뜻한다.²³⁴⁾ 사람은 사회화됨으로써
비로소 사회의 성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화의 최초의 장은 가족이며 친구,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된다. 이러한 사회화의 장에서 그들은 사회유산의 전승과 인격을
형성한다. 셋째, 사회통제(social control)의 기능은 지역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규범(social norms)에 순응하도록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로 하여금

²³⁴⁾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2005, 10.

사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규범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사회통제이다. 일탈을 막고 일탈이 일어나면 그것을 제재하고 또 나아가서는 일탈자를 재 사회화하는 사회적 노력이 통제라는 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통제의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²³⁵⁾

첫째, 규범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norms)는 개인이 그 규범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규범의 내면화는 어린 시절에 가정에서 성격 지워진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회가 원하는 것과 규제하는 것을 자신의 도덕성에 기초하여 대부분 규범에 따른다. 둘째, 비공식(informal) 사회통제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법이나 제도로써 다스리지 않고 사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비공식적 사회통제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공식적(formal) 사회통제는 이질적이고 복잡한 사회일수록 친숙한 인간관계나 연대의식이 부족하고 이기주의화 되기 때문에 자연히 공식적 통제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국가는 법을 제정하여 범법자에 대해서 권위로서 다스리게 된다. 이 같은 공식적 사회통제의 접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탈자를 고립시키거나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탈자를 재 사회화 내지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²³⁵⁾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11.

것이다. 후자는 사회사업적 접근방법으로서 교정사업이라고 한다. 넷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기능은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사회단위조직들간의 관계와 관련된 기능을 말하였다. 특정제도의 구성원이나 전 사회체계의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충성하여야 하며, 사회체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결속력(solidarity)과 사기(morale)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통제의 기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의 규범에 순응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회통합은 어떤 법이 강제로 행해지거나 누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주민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이 참여하는 것이다.

워렌은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대신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제반 활동에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종교제도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회적 기능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 내는 사회조직으로서는 가정, 학교, 사회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의 과정에서 성원들이 기여이 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문화의 유형을 유지,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긴장을 관리함으로써 또한 사회적 통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다섯 째, 상호부조(mutual

support)는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사회제도에 의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을 말하였다. 개인과 가정은 누구나 질병, 사망, 실업, 사고 등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적, 사회적 제도가 부적절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²³⁶⁾

3. 한국적 상황에서의 지역사회의 변화

전통적인 한국의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었다. 그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직업군이 형성되었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멀리 떠나기도 어려웠고, 자연스레 거리가 가깝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공유할 수 있는 거리가 중요하였다. 또한 혈연중심의 한국사회를 생각할 때, 씨족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그들의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함으로써 전국이 도시화 되어가고, 교통과 통신과 기술의 발달로 그 경계는 이미 무너져버린 상태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생활과 문화는 도시의

²³⁶⁾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0-13.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들의 살아가면서 필요한 보편적인 모든 것들을 도시 공동체나 시골이나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의 의미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협력으로 새로운 개념의 지역으로 재편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 여기서 문화란 “관념과 감정과 가치의 통합된 체계 및 이와 연관된 행위의 형태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조직하고 규칙화하는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²³⁷⁾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전에는 한 지역 안에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한정적이었다면 이제는 한 지역 안에 살지만,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체득되어 온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고, 그만큼 사람들의 집단에 의하여 공유된 산물인 문화도 다양화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기능적 지역사회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마을공동체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곳도 분명 존재하기에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가 혼합된 형태로 남아있는 곳을 볼 수 있다.

4. 지역사회와 교회와의 관계

²³⁷⁾ Paul G. Hiebert,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3인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4, 41.

지역사회는 그 개념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지리적 영역, 사람들, 사회적 상호작용 및 공동유대감 등 4요소를 갖는다. 또한 협동생활의 가능성을 가진 상호 협동사회로서 봉사하는 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이 동일의식을 가지고 상호유대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 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역 내의 인간조직들이 참여하는데, 신앙기반단체 (FBO: Faith-Based Organizations)도 그 주체 중의 하나이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가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봉사에 참여할 때 기독교의 교리나 지식, 신앙과 믿음을 가진 자들로 구성됨으로서 그 종교의 이념이나 교리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종교적 실천이 지역사회로 스며들게 되므로 종교단체는 개발과 선교개념 사이에 긴장을 만들며 선교(evangelism)로, 삶(life-style)으로, 그리고 통전적 실천(holism)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B. 교회의 본질과 지역 교회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만을 위해 교회가 된다면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오던 교회의 전통과 질서인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 통일성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요한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²³⁸⁾ 서요한의 주장을 요약함으로 교회의 네 가지 본질과 지역사회에서의 선교적 교회와의 관계를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통일성과 지역교회

교회의 네 가지 본질 중에 하나인 통일성을 지역교회에 적용한다면,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지역교회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합하는 힘을 말하는데, 반 앵겐은 이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교회는 연합하는 힘과 같아 보인다. 그 교회의 삶은 모임, 초청, 그리고 연합(incorporating)하기 위해 점거된 듯 하다. 유기적 결합체.

²³⁸⁾ 서요한, *제자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선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개신논집 14호, 158-172 요약.

육체의 생활, 그리고 결혼의 축제와 같은 성경적인 이미지들을 선교적 활동(사회적 책임), 즉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활동을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²³⁹⁾

위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합하는 힘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의 하나된 모임이다. 따라서 통일성을 잃지 않고 지역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역 안에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일성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교회 밖으로도 이러한 성격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신학자 윌리엄스(Rodman J. Williams)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²³⁹⁾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68.

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에클레시아이며,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많이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그만큼 그리스도와 우리들은 서로 화목해지고,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강력해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에만 세상도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⁴⁰⁾

교회가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지역교회는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기 각자의 주장과 고집과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힘을 가지고 지역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2. 사도성과 지역교회

사도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 파송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우리를 파송하셨는가? 복음 증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증거한 이는 사도바울이므로, 여기에서는

²⁴⁰⁾ J.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the church, the kingdom, and Last Thing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34.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²⁴¹⁾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시작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그 선포의 핵심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비슬리-머리(G.R. Beasley-Murray)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서문의 정점으로 마가에 의하여 설정된 이 구절은 예수에 의해 선포된 복음의 요약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서의 본론에 나오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 요약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다.”²⁴²⁾고 말하였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마가복음 1장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한정되었으나, 이제는 그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의 절정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듯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²⁴¹⁾ 서요한, *제자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선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개신논집 14호, 161.

²⁴²⁾ G.R. Beasley-Murray, *Jesus and the kingdom of God*(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8, 123.

기록한 마가복음 15:38을 보면,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장벽을 제거하였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³⁾

니슨(Johannes Nessin)은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더 이상 성전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허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다."²⁴⁴⁾ 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알려야 사도적 책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남기신 지상 명령 속에 잘 들어나 있다(마 28:18-20). 해그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께 주어졌다. 그분은 여기서 그의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역사상의 모든 교회에 사명을 주신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과 권세로 복된 소식을 가지고 사방으로 나가야 한다. 사실상 그들의 사명은 책임이 너무 커서 두려움을 일으킬만한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 역사는 교회가 모든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상 모든 나라에 믿는 자들이 흩어져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예수의 죽음 후에

²⁴³⁾ G.R. Beasley-Murray, *Jesus and the kingdom of God*(예수와 하나님 나라), 201.

²⁴⁴⁾ Nessin, *New Testament and Mission Historical and Hermeneutical Perspective*, New York: Peter Lang, 1999, 41.

바로 시작했으나, 의심 많고 혼란스러워하여 힘없는 소수의 제자들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은 예수의 권세와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양쪽으로 갖고 있는 틀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 계속 존재해야 함으로 말해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²⁴⁵⁾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사도 바울에 의해 이방의 세계에까지 확장된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첫 번째 사도였다. 바울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지역적 경계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지만, 그가 가진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큰 차이가 있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문화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이방인과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바울은 이스라엘과 헬라의 문화를 바탕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개념을 벗어나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바울이 이해했던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니손이 말한 바로 같이 바울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허용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²⁴⁵⁾ Hagner, *Matthew*, 889.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과 함께 이방인을 위한 관심을 연결하고 있다. 로마서 3:29-30에서 하나님의 일위(Oneness)는 이방인들의 칭의에 대하여 명백하게 연결되고 있다. 로마서 3:21-22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누구의 차별도 없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났다고 한다. 모두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면서, 또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경험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죽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²⁴⁶⁾

바울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역적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세계에 소개함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지형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3. 거룩성과 지역교회

거룩성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거룩하고 정결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교회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지역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할 때 이 거룩한 힘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²⁴⁶⁾ Nessin, *New Testament and Mission*, 101.

이 힘에 대해 반 앵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는 거룩한 힘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교회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함의 존재(presence)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²⁴⁷⁾고 말하였다.

교회가 거룩함의 지역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가져야 할 거룩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거룩해 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고전 1:2)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회의 거룩성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세상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 교회의 거룩한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반 앵겐은 이와 같이 말하였다.

바울은 우리가 교회의 거룩성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실천하는 것을
깨닫기 원한다. 빛의 자녀로서 교회는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거룩함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도달 수 있는
빛을 전달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의 거룩성은 예배, 교회 조직과 그곳의 책임,
가족, 성관계, 그리고 직장까지도 포함하여 나타나야 한다.²⁴⁸⁾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이다. 반 앵겐은 "거룩함은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사랑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가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²⁴⁷⁾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68.

²⁴⁸⁾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110.

힘이다.”²⁴⁹⁾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인 거룩성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교회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나가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들에 대하여 교회의 거룩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침묵한다. 이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고,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랑이 식어지며 세속화 되어가는 것이다.

4. 보편성과 지역교회

보편성은 지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성은 지상명령에 따른 복음의 민족적인 보편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다.²⁵⁰⁾

보편성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회 간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연결고리가 되는

²⁴⁹⁾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111.

²⁵⁰⁾ 서요한, *제자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선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개신논집 14호, 170.

것이 지역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성의 핵심의 지역과 교회의 화목이다.²⁵¹⁾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회와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가 지역 사회에 드러냄으로 지역 사회와 교회가 화목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반 앵겐은 화목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회는 화목 하는 힘과 같아 보인다. 이것은 깨지고 동떨어진 인간성을 하나님과의 갭신과 교제를 위한 방법을 보여주는 연결고리(bridge-building)를 만드는 운동이다. 여기에서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대사(ambassador)와 같은 존재이다(고후 5장).²⁵²⁾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즉, 지역교회가 보편성을 잃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역할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이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지역주민들에게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환대하는 것이 보편성이 말하는 화목하게 하는 힘이다.

²⁵¹⁾ 서요한, *제자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선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개신논집 14호, 171.

²⁵²⁾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68.

그러므로 지역교회의 보편성이란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는 지역과 함께 하는 지역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즉 교회가 지역사회를 소외시키거나 분리시키는 잘못된 교회론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함께하며, 친밀한 만남을 통해 대화하고 소통을 이루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참여하면서 변화를 모색해간다.

교회와 지역의 관계를 세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 안에 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열린 관계를 갖는다.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누고 실천하는 열린 공동체라는 뜻이다. 둘째, 교회는 소통과 대화를 관계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와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역을 향해 먼저 소통의 문을 열고 대화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지역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란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와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열린 마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식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지역교회로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담혀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교회 자신과 세상에 대한 편협한 신학적 이해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곳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교회 스스로 벽을 쌓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를 거룩하다는 개념을 세상과 교회를 나누어버린다. 이러한 분리된 교회론은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고립시켜 단절의 관계를 초래한다. 한국교회에 만연한 “범주적 교회관”²⁵³⁾을 극복하고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 지역 주민을 대하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와 열린 관계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의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²⁵³⁾ 한국일 제,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48.

사랑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 파송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의 사역을 계승하는 교회는 세상과의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재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함께 하는 공동체이다. 전도와 선교활동에 열심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 활동의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도를 위한 지나친 목적지향적 활동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대상화 하면서 교회의 이해 관계에 따라 관계를 맺게 한다. 복음 전도가 교회의 사명 중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 활동의 주체가 되는 지역교회와 교인들을 신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 교회가 선교하기 이전에 주민들과 일상적 관계에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대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가 공간적으로는 지역사회 안에 있으나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선교의 첫걸음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며 대하는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열린 의식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의 관계로 대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주민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지역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은 진정성이 공감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지만 소통이 실현되지 않고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감을 얻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을 사회가 수용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²⁵⁴⁾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일방적 방식의 활동에 있다.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며 교회는 복음을 가졌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이원론적 인식으로부터 나온 선교는 자연히 교회중심의 일방적 선교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이웃에 대한 고려없이 복음의 전달과 사회변혁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면 상대한 이해와 관심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일방적 방식의 전도에서는 지역주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평소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대화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교인들 역시도 교제의 대상이 주로 동료 교인들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들은 실제적 대화와

²⁵⁴⁾ 한국일 저,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49.

소통의 범위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교는 상호주체적 관계에 기반한 소통행위로써 진행되는 것이다.²⁵⁵⁾ 선교가 상호성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구약이 내용이나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작은 행위와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존중하면서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기다리셨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초청할 때 자신들과의 사귀를 기반으로 언급하고 있다(요일 1:1-3). 복음전도는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사이에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전하는 자가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와 이미 사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들과의 진정한 사귀(코이노니아)를 동반해야 한다. 여기서 선교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에 진정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소통하고 대화하는 이유는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은 복음적 가치를 전하고 공유하는 데 있다. 지역교회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 운동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 지역사회 안에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²⁵⁵⁾ 한국일 제,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50

함께 수행한다.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다. 복음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잇는 환경과 제도, 문화 등을 변화시킨다. 한국교회는 주로 개인전도와 영적구원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개혁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영역에 미치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믿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 해서 반드시 교회적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역사회 안에 활동하는 출발이나 궁극적 목표는 서로 다를지라도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성은 곧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볼 때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다르지 않다.²⁵⁶⁾

²⁵⁶⁾ 한국일 저,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52.

V. 대영교회 사례연구

A. 대영교회의 지역선교 사역

1. 지역적 특성

대영교회가 위치한 안양은 전통적으로 불교가 강한 지역이다. 안양(安養)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되었다. 신라 효공왕 4년(A.D 900년)에 궁예의 후예인 왕건이 금주(시흥)와 과주(과천)등의 지역을 징벌하기 위해 삼성산을 지나게 되었다. 이때 산꼭대기의 구름이 5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룬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살피게 했다. 구름 밑에서 능정(能正)이란 노스님을 만났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건의 뜻과 같으므로 이곳(만안구 석수 1동 산 2번지 일대)에 안양사를 창건하게 되었다. 이 안양사로 인해 안양이란 명칭이 탄생하였다. 조선시대에 정조대왕께서 부친 사도세자의 능행을 위해 가설한 만안교의 안(安)자와 함께, 양(養)자는 후세사람에게 인류의 근본인 효의 뜻을 살리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짐작한다. 또한 1941년 시흥군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

되며 쓰였는데 안양이란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의 세계로 모든 일이 원만구복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자유롭고 아늑한 이상향이다. 안양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양에는 큰 절이 많으며, 그만큼 종교 성이 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²⁵⁷⁾

현재 대영교회는 안양의 호계 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64년의 역사를 간직해 왔다. 대영교회가 위치한 호계 3동이라는 동네는 지역 토착민보다는 70년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호남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안양의 다른 지역보다 낙후되었고, 노인 인구 수가 많다. 뿐만 아니라, 노동인력의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에 따라 집값이 싼 이곳으로 자리를 잡은 다문화 가구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한 새로운 세대의 유입으로 젊은 세대와 유아들의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세대의 유입, 다문화 가족의 증가로 인해 과거와 미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2.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대영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

²⁵⁷⁾ 안양시청 홈페이지, http://www.anyang.go.kr/web/smuseum/SM_history.do

은 지역사회의 필요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되었다.

먼저, 호계 3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되었다. 호계 3동의 총인구는 총 24, 197명이다. 그 중 남성은 12,191명이고, 여성은 12,006명이다.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48가구, 201명이며, 독거노인은 357명이다. 이와 같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을 모색하게 되었고, 지금 대영교회의 상황 속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좀더 실제적인 지역조사를 위해 주거, 환경, 생활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비영리로 노인들을 위한 경로대학 운영, 아기와 엄마들을 위한 아기학교,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 학교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제안들도 있었다. 마을 가꾸기, 교회 주변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자율방재활동 등 지역사회회진흥을 위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 요구들이 있었다. 또한, 대영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교회로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적 교회로서의 방향을 교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의식 조사(132명 참여)²⁵⁸⁾

이번 조사는 현재 우리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교인들의 의식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더 나은 지역사회 섬김을 실천해 가는데 도움이 되
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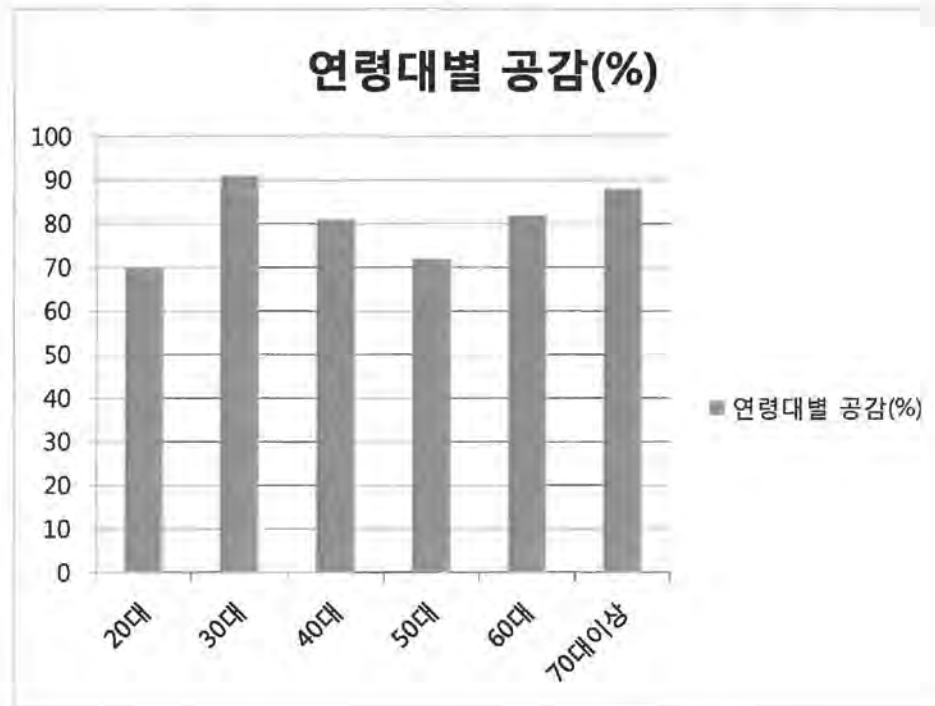
①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ㄱ. 반드시 필요하다 - 108명(82%)
- ㄴ. 하면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 21명(16%)
- ㄷ. 별로 필요하지 않다 - 0명
- ㄹ. 기타 : 무응답 - 2명(2%)

대체로 지역사회섬김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는 편이라 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 70%, 30대 - 91%, 40대 - 81%, 50대 - 72%, 60대 - 82%, 70대 - 85%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아직 지역사회 섬김활동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16%로 나타났다.

²⁵⁸⁾ 위 조사의 설문대상자는 대영교회 교인들이며, 132명이 참여하였다. 성별의 구분은 없으며, 각 연령층의 관심도를 알기 위해 설문지에 연령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2> 지역사회섬김활동에 대한 연령대별 공감대



②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ㄱ.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 96 명(73%)

ㄴ. 전도를 위해서 - 17 명(13%)

ㄷ.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 5 명(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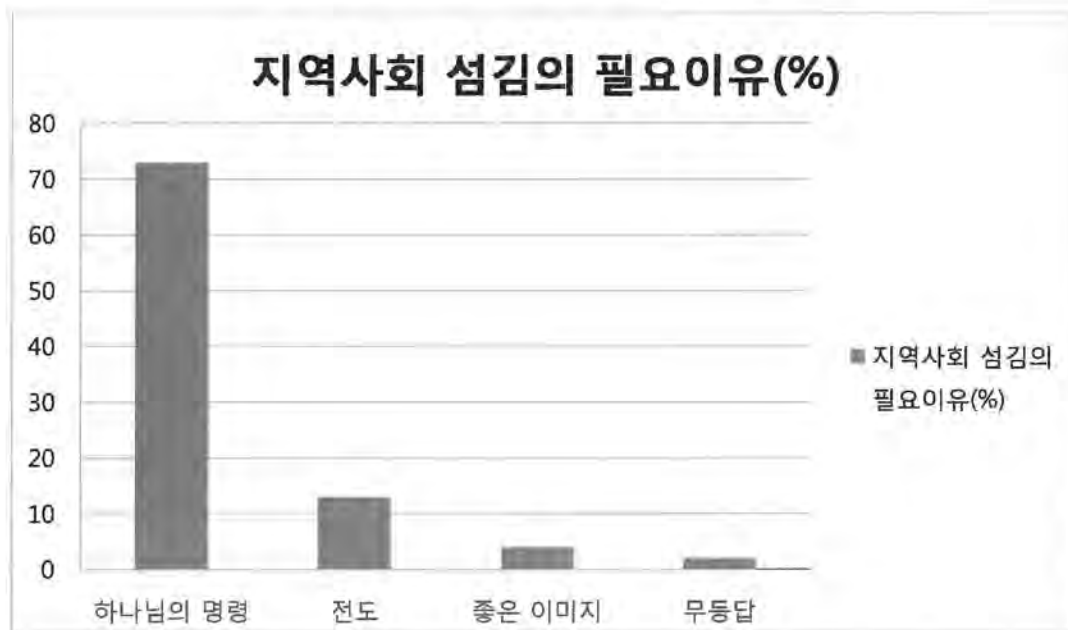
ㄹ. 무응답 - 3 명(2%)

교인들은 지역사회 섬김이 어떤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랑의 계명

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전도를 위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의 필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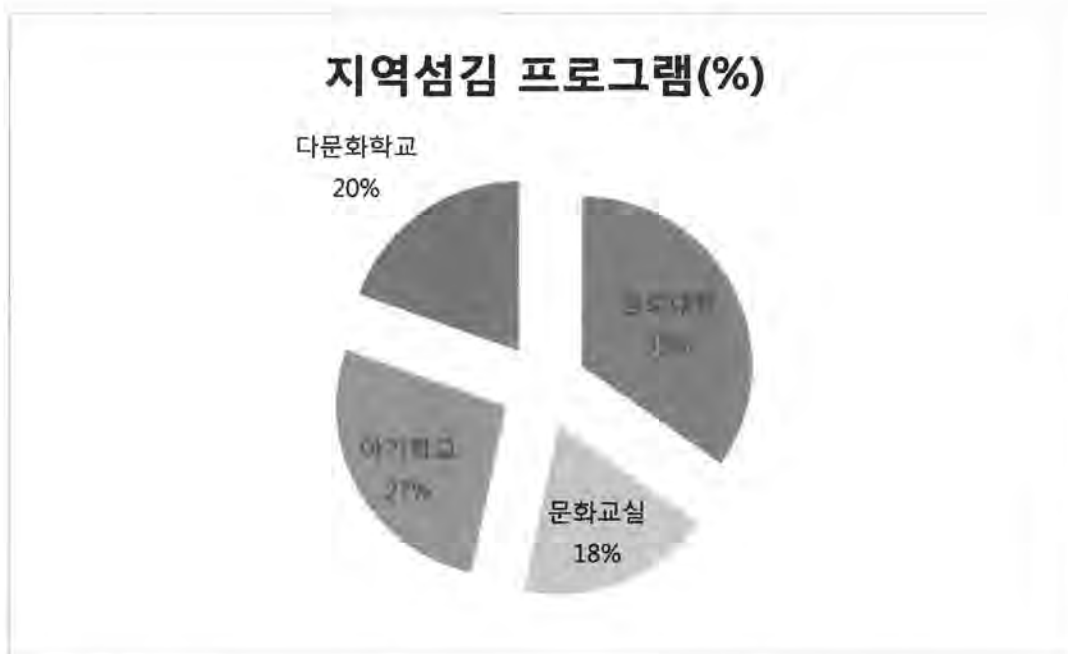
③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ㄱ. 경로대학 - 72 명(32%)
- ㄴ. 문화교실 - 56 명(17%)
- ㄷ. 아기학교 - 41 명(25%)
- ㄹ. 다문화학교 - 57 명(18%)

ㄹ. 구제활동 - 19 명(8%)

대체로 우리 교우들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 중에 경로대학을 선택하였다. 이것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된다.

<표-4> 지역에 필요한 섬김 프로그램



④ 이러한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ㄱ. 긍정적이다 - 82 명(63%)

ㄴ. 무관심하다 - 16 명(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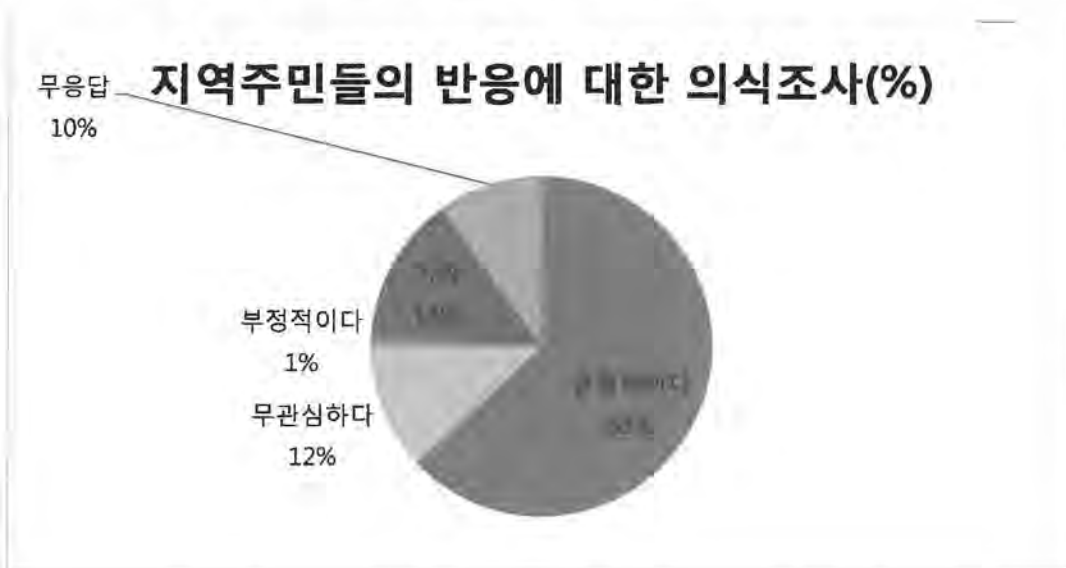
ㄷ. 부정적이다 - 1 명(1%)

ㄹ. 기타 - 18 명(14%)

ㅁ. 무응답 - 13 명(10%)

지역주민들이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응답한 경우가 63%이고,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역사회 섬김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데, 우리 교우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관심하다 12% 잘 모른다 14% 등의 응답을 통해서 볼 때 지역주민들에게 아직 인식이 부족함을 보게 되었다.

<표-5> 지역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의식조사



⑤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ㄱ. 전도의 좋은 도구가 됨 - 55 명(42%)

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줌 - 32 명(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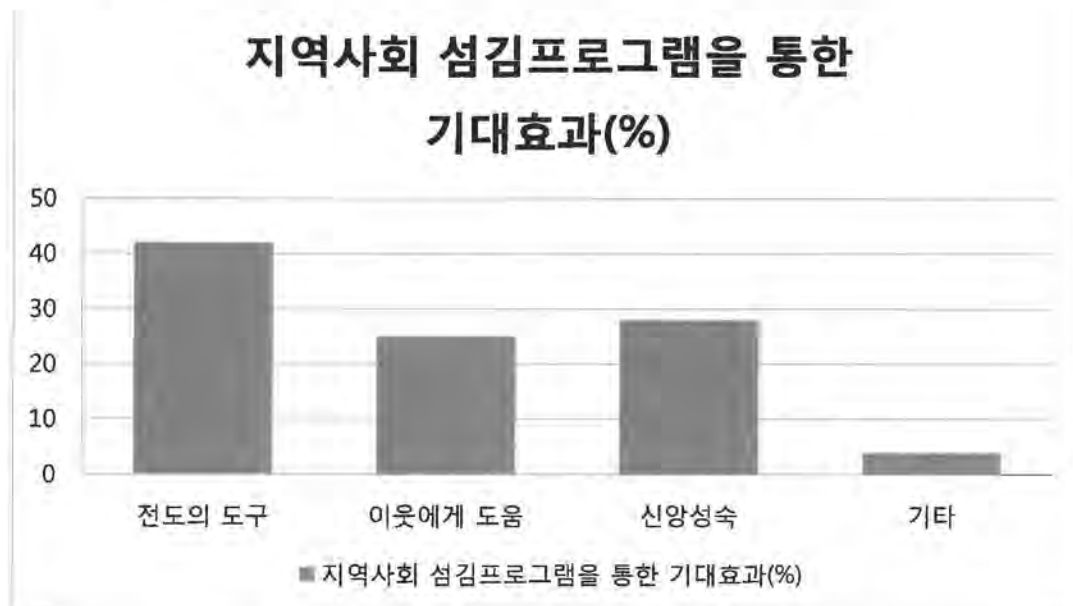
ㄷ. 교인들의 신앙성숙 - 28 명(22%)

ㄹ. 기타 - 4 명(3%)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기대되는 효과는 역시 전도(42%)

였다.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6>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을 통한 기대효과



⑥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섬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ㄱ. 아주 잘하고 있다 - 67 명(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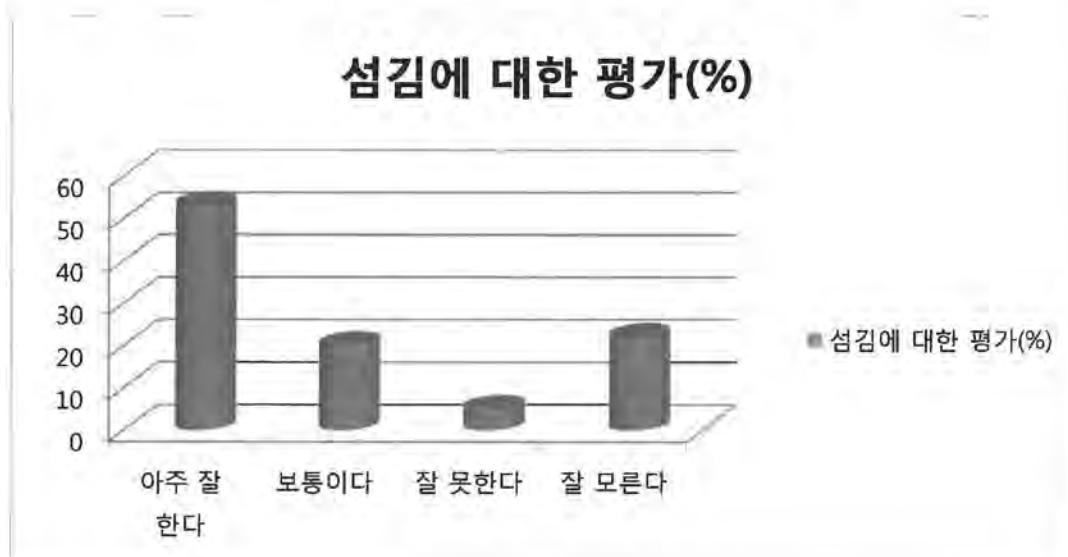
ㄴ. 보통이다 - 26 명(20%)

ㄷ. 잘 못하고 있다 - 7 명(5%)

ㄹ. 잘 모르겠다 - 29 명(22%)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 섬김 프로그램에 대해 대체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분석된다. 주목할 점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2%나 되었는데, 더 많은 교육과 참여의 장을 준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7> 지역사회 섬김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



이에 대영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디아코니아를 조직하여 그 아래 경로대학위원회, 아기학교 위원회, 다문화 학교 위원회를 두고 각 상황에 맞춰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갔다.

3.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

대영교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에 공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이다. 대영교회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교회만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열린 구조 속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선시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점과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고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선교적 상황화를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의 실천활동에는 교인만이 아닌 지역민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한다면, 신앙을 강요한다면지 하는 행위를 일체 삼가고 그들이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감동하고 스스로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다려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선교적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가기 위해 교인들과 헌신자들의 신학적 회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에만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공유하며,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삶까지 그 신앙의 지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묵상을 통한 영성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영성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한다.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해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목적을 벗어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영성훈련과 묵상과 기도에 전념한다.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대영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적 기초 위에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고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하는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만이 지역사회와의 하나됨을 위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적 고집이 그들을 배척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교회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기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일회적인 회심이 아닌 지속적인 회심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만의 사랑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성장하는 거룩을 향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는 교회이다. 또한 화목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지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수용하여 하나님과 선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교회이다. 교회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웃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피고 그 필요에 응답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향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영교회의 존재목적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지역사회를 위한 디아코니아

대영교회는 지역사회와 가장 실제적인 접촉점이 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다. 단지 봉사를 위한 봉사가 아닌 선교적 의미로서의 봉사와 나눔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다. 그 해답은 바로 교회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봉사, 즉 디아코니아였다.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디아코니아를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거나 교육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디아코니아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인 '봉사'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예배', '전도', '교육'의 권장과 장려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 교회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디아코니아를 조직하기에 앞서 디아코니아가 단순히 봉사가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서의 디아코니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디아코니아는 "우선적으로 신앙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서 복음을 받드는 사도적인 봉사와 함께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다."²⁵⁹⁾ 그 내용으로는 인간들 속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적 관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생계 돌봄과 생명 보호 그리고 나아가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인간 존엄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인간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회복되는 개인 구원의 상태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사회와 생태계를 포함하는 전체 창조 세계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봉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와 신앙인의 순종적인 행동화이며 실천적인 삶인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디아코니아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선교와 봉사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역적인 관계 속에서 유지되는데, 그 중심 자리가 바로 세상이다. 그러므로 전도와 봉사는 마치 가위의 두 양날, 수레의 두 바퀴처럼 상호 협력하여 작용함으로써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길 때, 선교사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전적 신학에 입각하여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세워진 '선교적 교회'는

²⁵⁹⁾ 김옥순, *디아코니아 학문의 위상과 그 과제*, 서울 한국디아코니아신학회, 2010 5.

디아코니아의 실제적 활동을 통하여 세상과 지역 사회를 좀 더 실제적이고 명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교회와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고, 더불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다.

B. 위원회의 구성 및 실천사례

1. 디아코니아 위원회

a. 디아코니아 운영회 규정

대영교회는 2013년을 앞두고 정책당회를 통해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아코니아 운영회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지역사회 섬김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 ① 디아코니아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모든 봉사 활동을 주관한다.
- ② 교회 안과 밖의 구제를 필요한 자들을 돌아본다. 교회 안의 구제는 정해진 예산으로 하며, 지역 사회의 구조는 교회의 절기 때마다 금식과 헌금을 통하여 지역구제에 도움을 준다.
- ③ 경로대학과 아기학교와 다문화 학교는 위원장을 따로 두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다.

- ④ 매 학기 정기적으로 교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부 학교와 연계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 ⑤ 가까운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 노인을 발굴하여 정기적인 방문과 봉사활동을 펼친다.
- ⑥ 디아코니아 운영을 위한 기금을 매년 예산에서 5%씩 적립하여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b. 디아코니아 위원회의 조직

대영교회 디아코니아 위원회는 각 위원회 위원장 1명씩(시무장로), 총 세 명과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담임목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위원회에는 지도 교역자와 부장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있어서 각 위원회의 사업을 총괄 진행하고 있다. 디아코니아 위원회 내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① 경로대학 위원회

65세 이상의 교회 내 어르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도 돌본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경로대학은 운영되며, 식사를 제공하고, 매 학기마다 소풍을 간다.

② 아기학교 위원회

24개월 이상의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진행되며, 매 학기마다 야외수업과 부모교육의 시간을 갖는다.

③ 다문화 위원회

지역 내 있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연령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베트남어 훈련과 놀이를 통한 학습의 시간을 가지며, 부모들은 한국 음식을 배운다.

C. 디아코니아 위원회 주요활동

디아코니아 위원회가 실천하는 활동을 보면, 불우 독거 노인 지원센터와 노인 복지 단체,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 다문화 상담과 같은 지역에서 필요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구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 내 공공기관(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와 인근 아파트 경비실 등에 명절과 주요절기 때마다 선물과 함께 섬김의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에는 사랑의 이웃 돕기를 꾸준히 10년동안 진행해 오며, 성탄목에 선물 장식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고 있다. 또한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악기를 배울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인 중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교인들이(바이올린, 트럼펫, 피아노, 기타, 드럼, 사물놀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동정의 차원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함께 삶으로 느끼는 활동이 되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

이제 디아코니아 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경로대학 위원회

a. 경로대학의 구성과 특징

대영교회 경로대학의 구성은 학장(담임목사), 부학장(부목사), 지도(전임전도사), 위원장(사무장로), 부장(권사), 담임교사, 식당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영교회 경로대학은 10년 전 설립취지에서 밝히는 대로 사람마다 고령에 이르면 느끼게 되는 고독과 소외감을 덜어 드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평생교육을 이념으로 각 분야의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교양을 높여 존경 받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벼를 많이 사귀어 새 삶의 패기에 찬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시게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매주 목요일 마다 운영되며 참석인원은 80명에서 100명 사이이다. 대영교회 교인이 400명 정도 되는 규모에 비해 큰 규모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대영교회 경로대학이 속한 경기남부지역경로대학연합회의 다른 교회들의 경우 교인과 지역주민의 비율이 80:20이라면 대영교회 경로대학의 경우 교인의 비율과

지역주민의 비율이 20:80이라는 사실이다. 대영교회 경로대학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닌 지역주민의 경로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경로대학에서는 매주 노인 체조교실과 노래교실, 성경교실, 사물놀이교실, 공예교실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대학에 5년 동안 참석하고 계신 한 할머니는 인터뷰를 통해

“가정이나 사회에서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인생들이 여기 와서 존경 받고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하시며, 경로대학은 노인들을 다시 다시 태어나게 해
주는 곳이라”고 답하였다.

대영교회 경로대학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회의 문턱을 아예 없애버리고, 교회와 노인, 교인과
노인의 간격을 허물어버림으로써 다양한 종교의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모든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식탁공동체의 실천을 꾸준히 실행해 오고 있다.

교회의 규모에 비해 많은 노인들이 참가하고 있어 교회의 재정적 부담은

없느냐는 물음에 경로대학의 한 관계자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셔서 한번도 모자람 없이 기적같이 풍족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답하였다.

b. 경로대학 학사 일정

경로대학의 학사일정은 1학기는 3월~6월, 2학기는 8월 ~ 11월이다

봄학기와 가을학기에는 소풍을 간다. 5월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경로잔치를 열고, 11월에는 1년 동안 배운 솜씨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2학기 마지막 시간에는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달란트 잔치를 열며, 대학 졸업식과 같이 사각모를 쓰고 졸업식도 갖는다. 학교를 다니거나 졸업의 경험이 없으신 어르신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졸업을 했다고 해서 다시 참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그만두고 싶을 때까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일년에 두 번 인근 병원의 의사들을 초청하여 건강에 대한 특강을 갖는다. 또 보건소와 연계하여 무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영교회 경로대학의 특징은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전도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자체가 전도가 되도록 신앙적인 색깔을 띠지 않으려고 배려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거부감 없이 다니도록 배려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중에는 교회의 그런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c. 경로대학 야외활동

고령화로 인해 외부 여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소풍을 통한 야외활동은

노후에 찾기 힘든 삶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떠나는 것도 대영교회 경로대학이 지켜오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이다.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소풍

때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일일 교사로 나선다는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여 출입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매년 두 차례 봄학기 와 가을학기에 야외활동을 통하여 여행의 기쁨을

맛보고, 함께 교제하면서 노년에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는 또 다른 행복을 영위하고

있다. 모든 경비는 교회와 교인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10월에는 경기남부지역경로대학연합회의 주최로

체육대회를 갖는다. 함께 울동과 경기를 준비하며 친목을 다지고, 함께 즐기는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

대영교회 경로대학은 믿음의 개방성과 포용성으로 희망을 잃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지역의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제공해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3. 다문화 학교

a. 다문화학교의 구성과 특징

대영교회 다문화 학교의 구성은 위원장(시무장로), 지도(담임목사 사모), 부장(권사),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다문화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타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 대해 봉사자들과 함께 연구했다. 연구의 결과물을 요약하면, 그리스도교는 다문화 사회에서 탄생했다. 유대교 내부에서 시작된 회개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출발한 그리스도교는 곧바로 이방인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개방적인 태도 때문이다. 그 개방성은 계급과 신분, 민족과 종교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노예주와 노예들이 함께 식탁에 앉았고, 귀족출신 과부가 해방된 노예와 혼인하는 것도 허락했다. 이런 개방성의 근원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사건, '자기 비움'을 통해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신앙이다.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의 선교는 대화의 선교, '경계 초월적' 선교였다. 특히 삼위일체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 위격의 내적 사귀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의 본질이 관계적임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양식의 풍요로움을 뒷받침해준다. 문화와의

만남에서도 그리스도교는 개방적이었다. 서양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와, 동양에서는 페르시아 문화와 만나면서 유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서구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 갈리아-게르만 문화, 헬레니즘이라는 세 기둥 위에서 성장했다. 근대 초기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지방어, 민중언어로 성서를 번역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타문화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근본 원칙은 “열린 문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적 기초와 문화적 이해 위에서 대영교회는 다문화 학교를 열었다. 현실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간의 피부를 ‘살색’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결정이 내려져 이제는 ‘살구색’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1 억 이상의 인구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지역의 필요로 인해 열게 된 다문화 학교의 취지는 ‘다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하기 위함이다.

대영교회 다문화학교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다문화 학교를 시작한 송시숙 사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다문화학교를 더 깊이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영교회 다문화 학교에 관한 인터뷰>

일시: 2018년 3월 6일, 대담자: 송시숙 사모, 사회자: 정승범

1. 처음 다문화 학교를 열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영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차이를 경험하며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알았으며, 다문화 센터에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사는 베트남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과의 친목과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문화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 다문화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을 위한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관용어, 토픽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술치료를 통한 심리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베트남 엄마들이 베트남어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엄마나라 말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면서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무시하게 되는데 엄마나라말을 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어 열린 사고를 하게 됩니다.

대영교회 성도 분들 중에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연령별로 나누어서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식을 먹고 함께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서로 동질감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3. 다문화 학교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나 어려운 것은 없으십니까?

-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며 부모교육의 인식부족으로 자녀들의 학습과 생활태도에 관심이 없어서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힘듭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4.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행과 즐거운 취미활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일상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5. 다문화 학교 학생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현재 3세에서 11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이 함께 활동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자녀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고집이 세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또래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약하여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적극적인 학습활동이 부족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부족하여 다양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으며 참여의지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엄마의 모국어를 함께 배우고, 또 한국어를 함께 배움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이들의 자신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6. 다문화 학교와 교회(신앙)의 연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불교 문화권에서 살다가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한국생활에서 외로움과 베트남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문화학교에 오지만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대영교회에서 성탄절에 선물과 쌀을 전달해 주는데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학생 중 한 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다른 학생들도 교회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교회학교에 오기를 원하기만 자녀들이 오기를 싫어해서 기다리다 보면 기회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문화 학교는 타 문화권에 살다가 온 이주여성들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배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기까지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다문화가 교회, 교회가 다문화 학교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 다문화학교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기회가 되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교회가 다문화 학교에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회가 다문화 학교에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한국생활을 하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며 친구가 되어 줄 젊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9. 향후 다문화 학교를 언제까지 지속하실 예정이며, 다문화 학교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 다문화 학교는 봉사자들과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삶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문화 학교학생들과 베트남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은 보람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 다문화 학교를 통해 느끼시는 보람은 무엇입니까?

- 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의 헌신이 없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함께
수고해주시는 귀한 손길을 통해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다문화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얻어서 좋고,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문제를 조금이라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또한
이 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될 믿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위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대영교회 다문화학교에서는 이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문화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국어를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
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였고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엄마와의 관계들이
회복되고 있다. 이들이 자라나서 선교사로 파송 된다면 이보다 더 값진 선교의

보물은 없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인종이나 피부색깔이나 신분의 그 어떤 것의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교회의 본질인 통일성을 기억하며, 그 위에 선교적 교회로서 서가기 위해 다문화 학교는 대영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자산 중의 하나이다.

b. 다문화 학교 학사일정

대영교회 다문화 학교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운영되며, 1학기는 3-7월, 2학기는 9월-12월까지 진행된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들의 상황에 맞게 학사일정을 조정한다. 일반적인 학사일정과 함께 특별한 학사 일정도 있다. 대영교회 찬양예배는 각 위원회 헌신예배도 드리는데, 다문화 학교 헌신예배 때에는 이들이 자기 나라의 고유한 복장을 입고 나와 베트남어와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예배뿐만 아니라 설날이나 추석 때 함께 웃놀이를 하고 송편을 빚으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함께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 다문화학교 야외활동

다문화 가정은 가족이 함께 여행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부부가 경제활동에 매달려 있어야 하고, 특히 다문화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휴일을 잘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 가지 신분의 문제가 있는 가정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대영교회 다문화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가족 별로 함께 여행을 가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교회에서 함께 여행을 떠난다. 한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고궁, 놀이동산 등을 함께 여행하며 그들에게 한국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아기학교

a. 아기학교의 구성과 특징

호계 3동 지역은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난 개발 지역이었다. 그러나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호계 1동, 2동, 3동이 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보다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었다. 이들의 특징은 아기가 어린 젊은 부부들이라는 것이다. 교회의 인근 지역에는 아기를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나 선교원이 없다. 그래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의 요구로 인해 대영교회는 10년 전 아기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기학교의 설립취지는 엄마와의 올바른 유대관계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대영교회 아기학교의 특징은 사전준비가 철저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엄마들이 할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선교원이나 유치원에 가기 이전의 아기들(24개월에서 36개월)의 연령에 맞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 서적들과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몇몇 유아교육 기관들을 탐방하고 시중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영역별 수업커리큘럼을 세우고, 교인 중에서 각 영역별로 달란트 있는 교사를 뽑아 봉사할 교사를 세우고 교육시켜 준비하게 하였다. 그러한 노력을 말미암아 아기학교는 수용 가능한 인원이 엄마와 아이 20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지만, 언제든지 엄마들이 필요로 할 경우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차량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지역의 특성상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나 다른 엄마들과 교제를 나누며 육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런 지역적 필요에 따라 교회에서는 아기학교 학생은 아니더라도 지역의 엄마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C. 선교적 교회로서의 대영교회 평가

1. 장점

대영교회는 창립 64주년이 되는 교회이다. 호계3동이 시작될 때부터

교회는 이 곳에 터를 잡았다. 대영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출입만 자유로웠다면 사람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고 지역의 문제와 고민해결에 늘 함께 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평가가 좋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준다.

선교적 교회로서 대영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선교사만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려고 하며, 세상의 위로자로서, 세상의 화해자로서의 그들의 은사와 직분을 감당해 나간다. 더불어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함께 배우는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고 있다.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시각으로 좀더 깊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역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2. 전망

대영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평신도들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국의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찾는 중 완도성광교회를 접하게 되었다.

완도성광교회는 평신도가 주체가 되는 선교적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다. 정우겸 목사는 전 교인을 봉사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목회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성광교회에는 530여개의 평신도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정우겸 목사는 “전교인 사역자화”란 구호 아래 “교회 안 실업자 없애기 운동”이라는 독특한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성광교회 성도가 되려면 530개의 사역 위원회 중 어디엔가에 소속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목회가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여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위원회이다. 담임목사의 역할은 사역내용을 보고받고 신학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특히 섬 지역에 소재한 교회로서 드물게 평신도의 자율성이 작용하는 있는 교회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²⁶⁰⁾ 평신도가 가진 은사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 교회 내부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활동적인 교회가 되었고, 교회 밖으로는 지역사회를

²⁶⁰⁾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27.

구체적이며 효과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평신도가 주체가 되어 자발적 방식으로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우겸 목사는 평신도 훈련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가 신앙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회 안에 "작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작은 예수"²⁶¹⁾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영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계급적 구조를 없애고,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로서 자신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평신도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그의 선교적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 교회로서 거듭나려고 할 때, 대영교회는 선교적 교회의 모범적 모델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²⁶¹⁾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229.

IV. 결론

A. 요약

오늘의 한국교회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상황이다. 공적인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렸다. 결국 그들만의 잔치를 즐기며 교회의 본질을 잃고, 교회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한국교회에는 탈출구가 필요하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고집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며 그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먼저 지역민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말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하기 위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찾아가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이 우리 교회에 어떤 계산적 이익을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하기 보다는 더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교회의 삶에 반영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 복음의 살아있는 구현으로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언제나 선교로 숨쉬며 살아왔으며, 선교하면서 존재했고, 또한 선교를 통해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선교는 교회 본질이며 생명이다. 따라서 선교는 교회가 수행하는 한 가지 사명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섬김으로써 증거하고 선포하는 총체적 사역임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기에 교회는 그 본질에 집중하고 그 본질을 이루면 되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에 열매가 열리듯, 건강한 선교적 교회에는 반드시 열매가 결실하게 될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인이 아닌 제자로 넘쳐나야 한다. “초대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였다.” (행 2:47)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구원받는 사람은 단순히 교인이 아니다. 제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다. 제자의 본분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세상에 보여줄 때, 세상 자체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 받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날마다 늘었다고 증언한다. 선교적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 받는 교회이다. 온 백성에게 칭송 받는 교회가 될 때 비로서 온전한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지역을 섬김다는 이유로 복음 전하는 교회를 배제해서는 안된다.

교회를 배제하고서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논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네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교회는 자신의 이중적 신원(하늘나라의 시민,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파악함으로써 자신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교회는 자신의 이중적 신원을 반영하는 선교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자신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현대 세계에 적절한 상황화(Contextualization)를 통해 복음을 전함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넷째, 교회는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교회는 오늘의 급변하는 문화를 상황화하며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는 교회로서 의미 있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B. 제언

선교를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선교적 교회를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선교교육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함께 실천적인 측면에서 교회의 삶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본질이 선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교회가 그 본질을 자동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교회는 모든 차원에서 선교적이지만 교회의 양태는 조직이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것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차원에서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가이다. 또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인지되고 삶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교회의 내적인 선교적 갱신이

일어나야 한다.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교회가 자동적으로 선교와 일치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선교가 교회의 본질인 것을 함께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선교적으로 행할 때에야 선교적 교회로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자리를 벗어나서 지역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과 교회가 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전적인 선교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을 상황화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야 한다. 그 길에서 서로 동반자가 될 것이며, 운명 공동체가 되어 갈 것이다.

이에 계속해서 급변하는 지역의 상황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역의 상황화에 대한 연구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며,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참고도서목록 (BIBLIOGRAPHY)

1. 한국 서적

강사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강성영, *디트리히 본회퍼의 교회의 현실성과 타자의 윤리*,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2014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김동수, *신약이 말하는 교회*, 서울: 성서마당, 2012.

김범수, 신원우, *지역사회복지론*, 고양: 공동체, 2006.

김성태, *현대 선교학 총론*, 서울: 미래서원, 2008.

김은수 외 15명,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문성철, *크레이그 벤 켈터의 선교적 교회론*, 서울: 한국선교연구원, 2009

서요한, *제자공동체로서 지역교회의 선교를 위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개신논집 14호.

손윤탁, *성경적 선교신학과 통전적 선교관*, 선교와 신학 7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01.5.

신현수, *선교적 교회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1.

안승오, 박보경 공저, *현대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오재식, *본회퍼의 현대적 의미*, 기독교사상, 137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9.

이광순, *한국교회의 성장과 저성장*, 서울: 미션아카데미, 2005.

이병옥 외 7인, *선교적교회의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6.

이종성, *교회론1*,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9.

- 이학준, *한국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 '공적 영성'*, 목회와 신학 통권 292호, 서울: 두란노, 2013.
- 이형기, *역사 속의 교회 : 교부들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까지*, 서울: 교육목회, 1995.
- 임희모, *생명 봉사적 통전 선교*, 서울: 케노시스, 2011.
- , *지역사회를 섬기는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선교신학* 제31집, 서울: 한국선교신학회, 2012.
- 정승현, *선교적 교회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GOCN의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 미션아카데미, 2011.
- , *하나님의 선교, 세상, 그리고 살롬-요하네스 호켄다이크의 선교신학*, *선교와 신학*, 제24집, 2009.
- , *하나님의 선교와 20세기 선교학자*, 인천: 주안대학원 대학교 출판부, 2014.
- 최윤배, 임창복, *개혁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최일섭,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최형근,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통권203호*, 서울: 두란노, 2006.
- , *한국적 상황에서의 선교적 교회론*, *선교세계* 9호, 서울: 서울 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07.
- 표갑수,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2003.
- 한국일, *선교적 교회의 실천적 모델과 원리*, *선교신학* 제36집, 서울: 한신대학교신학연구소, 2014.
- , *선교적 교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6.
- , *세계를 품는 선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 ,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 용인: 킹덤 박스, 2015.
- 한미준, *한국교회미래레포트*, 서울: 두란노, 2005.
- 황승룡, *교회란 무엇인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2. 번역서적

Barth, Karl, *교회/교의학 IV/2(Die kirchliche Dogmatik)*, 최종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2.

Barbieri, Louis A., *마태복음(Matthew)*, 정민영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1987

Beasley-Murray, G. R., *예수와 하나님 나라(Jesus and the kingdom of God)*,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8.

Bonhoeffer, Dietrich, *나를 따르라(Nachfolge)*, 허 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_____, *성도의 교제-교회의 사회학에 대한 교의학적 연구(Sanctorum communion)*, 유석성, 이신건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_____, *행위와 존재(Akt und Zein)*, 정지련, 김재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Bosch, David J., *변화하고 있는 선교(Transforming Mission)*, 김병길, 장훈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Glenn Wagner, E., & Steve Halliday,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Guder, Darrell L.,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신선한 통찰(The Continuing Conversion of the Church)*, 조범연 옮김, 서울: 미션텔, 2005.

_____, *선교적 교회: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정승현 역,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13.

Hare, Douglas R. A., *마태복음(Matthew)*, 현대성서주석, 최재덕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1.

Hiebert, Paul G., *선교와 문화인류학(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

화 외3인 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2004.

Keller, Timothy, *정의란 무엇인가? (Generous Justice)*, 최종훈 역, 서울: 두란노, 2012, 130.

_____, *살아있는 신(The Reason for God)*, 권기대 옮김, 서울: 베가북스, 2010. 82.

Küng, Hans, *교회(Die kirchliche)*,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Miller, Donald S., *왜 세계는 섬기는 교회에 열광하는가(Global Pentecostalism)* 김성건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8.

Moltmann, Jorgen,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이신건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kirche in der Kraft des Geistes)*, 박봉량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7.

_____, *신학의 방법과 형식(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김균진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4.

Motyer, J. A., *아모스(The Amos)*, 강성열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1973.

Newbigin, Lesslie, *교회란 무엇인가?(The Household of God)*, 홍병룡 역, 서울: IVP, 2010.

_____,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7.

_____,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The Gospel as Public Truth)*, 김기현 역, 서울: SFC출판부, 2008

_____, *선교신학개요(The Open Secret)*, 최성일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_____, *헬라인에는 미련한 것이요(Follishness to the Greeks)*, 홍병룡 역,

서울:IVP, 2005.

Olson, Edward G., *학교와 지역사회(School and Community)*, 김은우 역, 서울: 현대사상사, 1973.

Roxburgh, Alan J. and Boren, M. Scott, *선교적 교회입문(Introducing the Missional church)*, 이후천, 황병배, 이은주 공역, 고양: 한국교회선교연구소, 2014.

Snyder, Howard A., *우리 시대 교회는 예수 DNA를 가졌는가?(Decoding the church: Mapping the DNA of church's baby)*, 최형근 역, 서울: IVP, 2006.

—————, *참으로 해방된 교회 (Liberating the church)*, 권영석 역, 서울: IVP, 2005.

Stott, Walmsley & Robert, John, *살아있는 교회(The living church: convictions of a lifelong pastor)*, 신현기 역, 서울: IVP, 2009.

Sundermeier, Theo, *선교신학의 유형과 과제(Types and Tasks of Mission Theology)*, 채수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Van Gelder, Craig, *교회의 본질(The Essence of the church: A community Created by the spirit)*, 최동규 역, 서울: CLC, 2015.

Wright, Christopher, *하나님의 선교(mission of God)*, 정옥배, 한화룡 역, 서울: IVP, 2014.

3. 외국서적

Engen, Charles van, *God's Missionary People*, Michigan: Baker Academic, 1991.

Guder, Darrell L., *Missional Leadership: Equipping God's People for Mission*: San Francisco: Wiley, 2006.

Hagne, Donald A., *Matthew*, WBC; Dallas, Word Books, 1995.

Hill, David, *The Gospel of Matthew*,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80.

- Leith, John H., *Creed of church*,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2.
- Nissen, Johannes, *New Testament and Mission: Historical and Hermeneutical Perspective*, New York: Peter Lang, 1999.
- Roxbidge, Alan J., & Boren, Scott M., *Introduction the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2009.
- Stetzer, Ed & Putman, David, *Breaking the Missional Code: Your Church Can Become a Missionary in your Community*, Nashville, TN: Broadman & Holman, 2006.
- Wainwright, Geoffrey & Newbigin, Lesslie, *A theological Life*,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Williams, J. Rodman., *Renewal Theology: the church, the kingdom, and Last Things*, Grand Rapids: Zondervan, 1992.

4. 신문, 인터넷

국민일보, 2013년 1월 24일, 종교면 14.

한국기독교공보, 2017년 10월 9일자, 3110호, 교회면 2.

역사 및 지명 유래, 안양시청, 2017년 3월.

http://www.anyang.go.kr/web/smuseum/SM_history.do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뉴스엔조이, 2017년 3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30>

